조선예술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3

주체90(2001)

장군님께 설인사 드립니다

작사 최준경
작곡 엄하진



2. 장군님 건강하시면 내 나라 강대해 지고
집집의 창문가엔 만복이 꽃 펴납니다
(후렴)

3. 해마다 열두달을 충효의 열매로 엮어
세월이 다하도록 기쁨만 드리렵니다
(후렴)



조선예술



주체90(2001)년 제3호
(루계53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차 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음력설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음력설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주체90(2001)년 1월 24일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인 김영남동지, 조명록동지, 홍성남동지, 김영춘동지, 김일철동지, 리을설동지, 백학림동지, 전병호동지, 한성룡동지, 계응태동지, 김철만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최영림동지, 김국태동지, 김중린동지, 리용무동지, 조창덕동지, 김윤혁동지와 당, 정권기관, 행정경제기관, 근로단체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군종 및 병종사령관들을 비롯한 장령들,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책임일군들, 유능한 작가, 창작가, 예술인들, 론설원, 기자, 편집원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뜻 깊은 음력설경축공연을 보게 된 끝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가슴은 뜨겁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관람자들은 극장이 떠나갈듯 한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 받은 공훈합창단은 《동지애의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위대한 선군혁명 만세》, 《승리의 길》, 《우리는 잊지 않으리》, 《우리는 승리자》, 《대동강의 해맞이》, 《우리 장군님 높이 모시리》, 《선군령도 받드는 돌격대기수가 되리》, 《장군님과 붉은기》, 《붉은기 높이 조선은 나간다》를 비롯한 합창곡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출연자들은 전투적기백이 나래치는 공연을 통하여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 말 군대와 인민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 주었다.

관람자들은 시종 열정과 투지,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공연을 보면서 백배 천배로 용솟음치는 사상의 힘, 단결의 힘, 의지의 힘으로 사회주의락원에로의 총 진군을 다그침으로써 21세기의 첫해인 올해를 새로운 비약의 해, 전면적부흥의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 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위용 떨칠 희망찬 새 세기를 향하여 질풍같이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센 기상을 그대로 반영한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 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오르고 솟구치는 격정에 눈시울을 적시며 장군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의 심장의 웨침으로 하여 장내는 충성의 대하마냥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훈합창단 예술인들이 조선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감사를 주시고 공훈합창단의 전체 예술인들이 혁명적인 예술활동을 과감히 벌려 새해의 보람찬 투쟁에서도 전투적인 예술부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태양의 눈 부신 빛발아래

—문예총이 걸어 온 55년의 로정을 더듬으며—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 정 호

주체의 문학예술로 20세기를 빛나게 장식한 긍지와 자랑을 안고 보다 휘황찬란할 21세기의 첫 시작점에서 오늘 우리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창립 55돐을 뜻 깊게 맞이하고 있다.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솟구쳐 오를 우리 조국의 래일과 더불어 온 세계에 더욱 찬연히 빛날 주체문학예술의 미래를 확신성있게 그려 보며 뜻 깊은 창립일을 맞는 이 시각 동맹안의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문예총이 걸어 온 영광의 나날들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본다.

태양의 빛과 열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의 원천이다.

태양의 따사로운 빛과 열이 없이 어떻게 아름다운 화원을 바랄수 있으랴.

돌이켜 보면 문예총이 걸어 온 55년의 력사, 그것은 위대한 태양의 눈부신 빛발아래 태여나고 성장발전하여 온 승리와 영광의 자랑찬 력사이다.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해 오랜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민족문화유산을 여지없이 짓밟히우고 강탈당해야 했던 민족수난의 시기 나라 없고 진정한 령도조직을 가지지 못한 설움과 원한속에 우리 문예인들이 뿌린 피눈물 그 얼마였던가.

정의와 량심을 지켜 붓을 들었건만 일제의 탄압에 붓을 꺾고 산속에서 은둔생활에 파묻혀야 했던 작가들, 제 나라, 제 민족을 위한 무대마저 일제에게 빼앗기고 방황의 길에서 류랑걸식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예술인들.

이것이 바로 나라 잃은 식민지문예인들의 피할수 없는 운명이였다.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곳 없는 울분속에 가랑잎마냥 흩어져 사그라져 가던 우리 문예인들에게 재생의 빛을 안겨 주고 진정한 민족문화를 꽃 피워 주신분은 우리 인민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일제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던 작가, 예술인들을 한사람한사람 모두 찾아 위대한 사랑의 한품에 안아 주시고 그들이 자기의 재능과 기술로 새 조국건설에 참답게 기여하도록 따뜻이 손 잡아 이끌어 주시였다.

감회도 새로운 주체35(1946)년 3월 2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당, 건국, 건군위업을 이끄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민족문학예술을 새롭게 발전시키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조선문학예술총동맹(당시 북조선예술총련맹)을 창립하여주시였다.

문예총의 창립, 이것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우리의 문학예술운동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수 있는 위력한 조직체가 마련된 뜻 깊은 사변이였다.

문예총이 창립됨으로써 지난날 제각기 활동하던 작가, 예술인들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고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보장할수 있는 인전대가 마련될수 있었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하여 새로운 문학예술건설에로 힘 있게 추동할수 있는 위력한 추동력이 마련되게 되였다.

몸소 문예총을 창립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문예총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 주시고 동맹안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 주시였다.

갓 광복된 조국땅에서 민족문학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암중모색하던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북조선예술총련맹의 임무에 대하여》,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여야 한다》,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등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민족문학예술발전의 가장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나라사정이 그토록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귀중한 자금을 내여 극장을 건설하도록 해주시고 창작가, 예술인들의 집과 식량도 마련해 주시며 그들의 창작공연조건도 충분히 보장해 주시였을뿐아니라 친히 몸가까이 불러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며 혁명적인 문학예술활동으로 새민주조선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도

록 현명하게 령도하여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태양과도 같은 따사로운 사랑과 보살피심이 있었기에 문예총산하의 작가, 예술인들은 삶의 크나큰 환희와 열정에 넘쳐 새 민주조선건설에 힘 있게 이바지할 문학예술작품창작과 공연활동에 있는 힘과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다 바쳐 나갈수 있었다.

잊을수 없는 그 나날에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장편서사시 《백두산》, 예술영화 《내 고향》, 장편소설 《땅》, 가요 《밭갈이노래》, 《승리의 5월》, 유화 《보천보의 홰불》 등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여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차게 떠밀어 주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롭게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발전시켜 주시기 위해 정력적으로 지도해 주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등 여러 로작들을 통하여 전시정황에 맞게 우리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군하는 작가, 예술인들에게 친필존함이 모셔 진 파견장과 함께 군관복, 승용차까지 배려해주시였을뿐아니라 그들의 문예활동을 적극 보장해 줄데 대한 은정 깊은 조치도 취하여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은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에도 우리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필승의 신념과 무한한 헌신성을 가지고 전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문예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활발히 벌리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하여 불비 쏟아지는 포연속에서도 시 《조선은 싸운다》, 가요 《전호속의 나의 노래》, 《결전의 길로》, 예술영화 《정찰병》, 선전화 《조국의 독립과 자유와 영예를 위하여!》, 《모든것을 전선에로! 모든것을 승리를 위하여!》를 비롯한 문학예술창작과 공연활동을 벌려 조국보위성전에 떨쳐 나선 인민군군인들과 우리 인민을 전쟁승리에로 힘 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를 비롯하여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고 작품창작과 공연활동을 하나하나 세심히 지도해 주시면서 문예총과 작가, 예술인들의 사업과 생활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였다.

걸음걸음 앞길을 밝혀 주시고 따뜻이 손 잡아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현명한 령도, 뜨거운 사랑속에 문예총은 전후복구건설과 천리마대고조시기를 비롯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자기앞에 맡겨 진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었으며 혁명적인 문학예술건설과 발전에 힘 있게 기여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혁명의 년대기마다에 빛나는 승리와 영광을 수놓아 온 우리의 문학예술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속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급속한 발전의 길을 걷게 되였다.

일찌기 문학예술을 우리 당의 수중에 장악된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혁명활동의 첫 자욱을 새기시던 그 시기에 벌써 문예총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예총은 당과 작가, 예술인들을 련결시키는 인전대로서 당의 문예정책을 받들고 작가, 예술인들을 사상예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워야 하며 그들의 창작사업을 집체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문예총의 사명과 임무, 문예총사업에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근본원칙과 방도 등을 명확히 제시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맹사업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였다.

그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61(1972)년 9월 6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는 문예총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뜻 깊은 계기로 되였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문예총은 자기의 임무를 망각하고 동맹안의 당원들과 창작가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보답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 짜고 들지 못하였다.

결과 동맹안의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 철저히 조직진행되지 못하여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수정주의, 사대주의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였고 혁명적인 작품창작에도 지장을 받게 되였다.

이러한 실태를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문예총산하 창작가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동맹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에 대하여 분석총화해 주시면서 동맹사업과 창작활동에서 근본적인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명철하게 밝혀 주시였다.

그리하여 문예총은 작가, 예술인들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 세우며 그들의 정치실무수준

을 더욱 높여 혁명적인 문학예술활동으로 주체혁명위업수행에 힘 있게 이바지하도록 적극 떠밀어주는 교양단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보다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특히 주체적인 문학예술창작체계와 창작의 전 과정을 우리 식으로 조직화, 규범화한 주체적인 문학예술창조체계를 새롭게 확립하여 주신것은 문예총사업을 더욱 활성화할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중의 하나이다.

이밖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예술론》, 《주체문학론》, 《음악예술론》, 《가극예술에 대하여》, 《연극예술에 대하여》, 《무용예술론》, 《미술론》을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우리의 문학예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 주신 주체의 문학관과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에 관한 리론,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사상리론과 종자론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 등은 그 내용의 과학성과 진리성, 심오성과 풍부성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사상발전의 최고봉을 이룬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이 땅우에 문학예술혁명의 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고 이 과정에 우리의 문학예술은 세계 진보적인류의 지향과 념원을 대표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진보적인 인류문학예술의 최고봉에 올라 설수 있었다.

위대한 변혁과 자랑찬 승리를 새겨 온 뜻 깊은 이 나날에 우리 문학예술부문에서는 《피바다》, 《꽃 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성황당》, 《혈분만국회》, 《3인 1당》, 《경축대회》, 《딸에게서 온 편지》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와 가극, 연극과 소설로 옮기기 위한 사업이 힘 있게 벌어 져 우리 문학예술건설과 발전의 만년재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또한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이 창작된것을 비롯하여 문학과 영화, 음악과 미술을 비롯한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과 공연활동이 힘 있게 벌어 져 주체문학예술의 **위대한** 전변의 새 시대를 펼쳐 놓았다.

특히 20세기의 마지막시기인 1990년대에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세계적인 걸작으로 훌륭히 창작완성되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이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20세기의 총화작으로 훌륭히 완성된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긍지이고 자랑이다.

이와 함께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와 가요들인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높이 들자 붉은기》, 《승리의 길》,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그리고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과 선전화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를 비롯하여 문학예술부문에서 이룩된 그 모든 성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현명한 령도, 세심한 보살피심과 따사로운 사랑의 고귀한 결실이다.

참으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문예총이 걸어 온 자랑스러운 55년의 력사,

그 갈피마다에는 우리의 문학예술을 우리 당의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주체의 문학예술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령도의 자욱자욱이 빛나는 보석처럼 력력히 아로새겨져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는 보다 휘황찬란할 새 세기, 21세기에 들어 섰다.

거창한 창조와 **위대한** 변혁으로 이루어 질 새세기의 장엄한 진군길에 오른 동맹안의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제끼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 나갈 불 타는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러했던것처럼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기 위해 힘차게 떨쳐 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 주는 혁명의 진군가—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해 냄으로써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갈것이며 문예총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바쳐 오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나게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길이 빛내여 나갈것이다.

21세기 첫해에 새로운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자!

새 세기의 진격로에 펼쳐 진 힘있는 화폭들

리 정 복

21세기! 부를수록, 들을수록 그 얼마나 필승의 신심과 락관으로 우리들의 가슴을 불 태우는 희망찬 새 세기인가.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새로운 진격로에 힘찬 발구름을 울려 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 걸음걸음 보람차고도 성스러운 우리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고무추동하는 선동성과 호소성이 강한 힘 있는 화폭들이 사회주의붉은기진군길에 무수히 펼쳐 져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전화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자기의 본성적요구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키는 위력한 무기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올해 공동사설은 우리 당의 **위대한** 자주정치, 위력한 단결의 정치,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치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21세기의 성스러운 첫해의 투쟁에서 선군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열어 나가며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할데 대한 전투적과업들을 제시하였다.

공동사설관철을 위한 선전화전람회에 전시된 작품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권위로 혁명하는 세기인 희망찬 21세기에 모두다 통일되고 번영하는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 나가도록 힘 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선전화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 《장군님 따라서 승리만을 떨치리》, 《21세기를 강성부흥의 새세기, 조선의 세기로 되게 하자!》, 《일심단결의 력사가 21세기에도 끊임없이 흐르게 하자!》, 《모두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로!》를 비롯한 작품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계시여 오늘의 영광도 필승불패하는 주체의 사회주의도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지니고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 나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는 선전화들이다.

《장군님 따라서 승리만을 떨치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서 21세기의 승리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려는 우리 인민들의 확고한 신념과 불변의 의지를 기폭에 담아 양식화기법의 간결한 형상으로 보여 줌으로써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직관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을 견결히 옹호관철해나가는 힘찬 투쟁을 집약적으로 보여 준 《우리 당의 위력한 단결의 정치를 빛나게 구현하자!》, 《무궁번영할 **김정일**강성대국의 래일을 앞당기자!》, 작품은 20세기의 준엄한 년대들을 승리적으로 걸어온것처럼 21세기에도 성스러운 진군길을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과감히 헤쳐 나갈 때 우리의 혁명대오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승리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는 **수령**결사옹위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다져진다는것을 실감 있게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전시회에는 총대로 개척하고 총대로 승리해 온 우리 혁명의 전통을 계승하여 우리의 군력을

○ 명언해설 ○

《연극은 대사의 예술이라면 영화는 행동의 예술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말씀에는 연극이 대사를 기본형상수단으로 한다면 영화는 행동을 기본형상수단으로 한다는데 연극과 영화의 차이점이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연극과 영화는 다같이 대본으로 창작된 문학작품을 배우의 연기를 통하여 인간생활을 산 화폭으로 펼쳐 놓은 직관예술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그러나 어떤 형상수단을 기본으로 하는가에 따라 연극과 영화는 서로 구별되는 자기의 특성을 가진다.

연극은 대사를 기본형상수단으로 하는 대사의 예술이다.

연극에서는 대사를 통하여 인간의 생활모습과 감정, 정서,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표현한다. 이와는 달리 영화는 행동을 기본형상수단으로 하는 행동의 예술이다.

영화는 행동을 기본형상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사상감정, 생활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며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풍부한 형상적화폭속에 밝혀 준다.

불패의것으로 다져 나가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혁명시대를 더욱 빛내여 나갈데 대하여 호소하는 힘 있는 선전화 《선군혁명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군력을 불패의것으로 다져나가자!》, 《수령결사옹위!》, 《선군혁명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자!》 등은 직관적표현성이 강한것이 특징이다. 작품들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이며 사회주의건설의 만능보검인 선군혁명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는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 무적강군의 필승의 억센 기상과 위용을 집약과 함축의 수법으로 뚜렷이 표현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새로운 앙양에로 불러일으키는 선전화 《올해를 21세기 경제강국건설의 새로운 진격의 해로 빛내이자!》, 《21세기 첫해에 새로운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자!》,《올해에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최대의 힘을 넣자!》 등은 거창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혁신적인 안목과 기발한 착상, 진취적인 사업기풍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 사회주의락원에로의 총진군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도록 힘 있게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전람회에는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을 따라배워 생산과 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한 선전화작품들도 적지않다.

선전화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자!》, 《석탄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여 나가자!》, 《철강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철도운수를 정비보강하여 늘어 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자!》,《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경공업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자!》, 《대홍단정신, 대홍단일본새로 21세기의 첫해농사에서 풍작을!》 등의 작품들에는 사회주의붉은기를 휘날리며 올해를 21세기 경제강국건설의 새로운 진격의 해로 빛내일데 대한 당의 의도가 화폭마다에 잘 반영되였다.

이와 함께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으로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로 이룩할데 대한 작품들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하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 이룩하자!》, 《하나된 조국을 꽃피우고 싶어요!》는 우리 인민들의 통일지향과 념원을 감명깊은 화폭속에 펼쳐보이고 있다.

선전화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기동성과 선동성, 호소성이 높은 모든 작품들은 시대정신에 민감하고 시대의 기수로서의 선도자적역할을 언제나 훌륭히 수행해 나가는 선전화화가들의 독창적인 탐구와 지칠줄모르는 열정이 낳은 참신하고 세련된 형상성에 의하여 그 주제사상적내용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시된 작품들은 함축된 간결한 화면구성과 강한 색대조, 박력있는 형상으로 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주고 있다. 만일 구성이 째이지 못하면 화면이 조잡하여 구도적중심이 잘 안겨 오지 않고 작품의 본질적내용에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작품들은 본질적인 선을 명백히 살리고 부차적인 요소들은 대담하게 생략함으로써 말하고 보여 주려는 기본문제점들을 뚜렷이 살려주고 있으며 명백한 선과 색적느낌, 강한 색대조로 선전화의 호소성을 높은 형상화의 위력으로 한층 돋구어주고 있다.

그리고 각이한 형상방법과 표현기법에 의한 인상깊은 묘사와 다양한 생활소재의 선택이 주는 새로운 양상은 선동성, 호소성과 더불어 친근감을 더해준다.

참으로 이번 공동사설관철 선전화전람회의 모든 작품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세련된 령도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을 오늘도 래일도 크게 고무추동할것이다.

○ 해빛과 영생 ○

회령출신의 인기배우 신동철(1)

소 희 조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탄생하신 함북명승 회령은 예로부터 《회령3미》(녀미, 형미, 토미)와 함께 명사, 재사들을 배출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멀리로는 그만두고 근대 우리 문학예술부문에서만 하여도 혁명시인 조기천과 민족영화의 개척자 라운규 그리고 1960년대 조선영화계의 중진이였던 공훈배우 신동철이 바로 회령에서 배출된 사람들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회령사람들은 자기네 고장을 함북명승이라고 자랑한다.

…

지금 회령사람들은 자기네 고장에서 라운규와 같은 영화재사가 나오고 조기천과 같은 유명한 시인이 배출된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유서깊은 회령출신인 신동철은 비록 짧은 생을 마친 사람이였지만 인민배우들인 황영일, 리경환등과 함께 조선영화사상 부정역형상으로 유명해진 인기배우로서 명실공히 주체영화예술이 낳은 총아였다.

주체12(1923)년 8월 14일 회령군 오동리에서 신관식의 5남매중 넷째로 태여난 신동철은 유년시절부터 예술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은 사람이였다.

그가 태여날 당시 아버지는 막벌이를 하는 로동자였는데 주로 일제가 강요한 공사장에서 인부노릇을 하였다.

당시 일제는 두만강중류연안에 있는 국경도시 회령을 대륙침략을 위한 군사기지의 하나로 꾸리였다.

회령분지의 넓은 옥토를 빼앗아 비행장을 건설하였고 도처에 사격장, 병기창, 군마훈련장과 같은 군사시설들을 대량적으로 건설하였다.

일제는 엄청난 이 공사장들에 회령사람들을 강제로 동원시켜 야만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하였으며 고역에 시달리는 인부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아버지와 회령사람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의 한 축도였다.

그나마 섬약한 아버지는 신동철이 5섯살되던 해에 그만 공사장에서 당한 어혈로 한많은 세상을 떠나게 되였다.

하여 홀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라게 된 신동철은 어려서부터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는 어렸을 때 자체로 수염이랑 붙여 가지고 광대연기를 놀아 집사람들과 동리사람들을 되게 웃기군 하였다. 또한 그는 회령읍에 있던 《만년좌》극장으로 줄창 드나들면서 당시 이곳에 오군하던 순회극단들인 《림성우》, 《동지좌》가 출연하는 극구경을 하는것을 즐겨 하였으며 순회극단들의 광고기발을 자진하여 들고 다닌 《꼬마기수》이기도 하였다.

소학교과정을 간신히 마친 신동철은 모진 생활난으로 하여 상급학교에는 진급하지 못하고 어린나이에 고향에 있는 《동아일보북선인쇄소》에서 식자공으로 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여기서 그는 처음으로 《동아일보》를 비롯한 현대적인 출판물들과 접촉하게 되였으며 이 과정에 점차 계몽의 눈도 틔우게 되였다.

이 시기 그는 13살 나이에 홀잠뱅이를 걸치고 군에서 진행한 어른들의 마라손경기에도 참가하여 3등을 하는 전적도 창조하였다.

하지만 비둘기의 마음은 항상 콩밭에만 가 있다고 예술에 빠져 있은 신동철의 마음은 늘 극장들에만 가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13살 어린 그의 마음에 불을 달아 준 극적인 사변이 일어 났다.

당대 민족영화계의 거장으로, 재사로 칭송되던 라운규가 서울에서 자신이 직접 연출하고 주인공으로 출연한 예술영화 《아리랑》과 《풍운아》를 가지고 고향 회령으로 왔던것이다.

춘사가 왔다는 소리에 온 회령이 떨쳐 나서고 모두들 얼마나 기뻐 했는지 무슨 대통령이나 맞이하는것 같았다.

당대 사회를 적라라하게 파헤친 라운규의 영화들은 회령사람들의 반일감정에 크게 키질하였다.

라운규가 만든 영화를 본 신동철은 끓어 오르는 흥분으로 하여 자신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렇다. 나도 라운규선생처럼 훌륭한 문예인이 되자. 그리고 고향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자.)

하여 신동철은 몇달후 배우를 해보겠다는 욕망으로 홀어머니의 승낙도 받지 않고 집을 뛰쳐 나와 라운규가 있는 서울로 찾아 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라운규는 이때 중병을 만나 림종의 시각을 가까이 하고 있었다.

할수없이 풍랑아의 신세로 여러 극단들을 찾아 방황하던 신동철은 그후 서울에 있는 《경성극단》에 들어 가서 극단의 잡부로 있다가 후에는 배우로 일하게 되였다.

이 과정에 그는 배우예술에 대하여 일정하게 파악하게 되였다.

그는 자기가 내디딘 배우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향 회령을 생각하며 힘을 얻었고 민족적 울분이 치솟을 때도 고향을 그리며 끓어 오르는 격정을 토해냈다.

잠시라도 고향을 생각하면 모든 시름이 한순간에 풀리는듯 하였다.

이때 그에게 배우로서 새로운 활력을 부어 준것은 황철이였다.

좋은 음악을 듣는것으로 착각할만큼 매력적인 소리를 가진 황철은 당시 《이 땅에 저만한 배우가 없다》고 할 정도로 명성을 얻고 있던 인기배우로서 신동철의 은사였고 스승이였다.

말하자면 그를 예술로 인도한 사람이 라운규라면 배우로서의 첫 걸음마를 떼준 사람은 황철이라고 할수 있었다.

광복후에도 신동철은 황철에게서 연기술을 배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허지만 삶이 역겹고 고달프기만 하던 광복전 그 세월 신동철 역시 부평초처럼 세파에 부대끼는 가련한 신세를 면치 못했다.

예술에 대한 지향은 있어도 뚜렷한 좌표가, 옳바른 리정표가 없는 수난자의 길이였다.

그리고 정착할 곳은 있어도 그를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 주는 거룩한 위인의 손길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망국노가 가는 걸음마다엔 운명의 검은 그림자가 항시 그를 괴롭혔던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찾아 주신 조국의 광복은 비로소 신동철의 인생에도 삶의 보람과 행복의 길을 활짝 열어 주었다.

조국이 광복되자 지체없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돌아 온 그는 당의 품속에서 진정한 인민의 예술을 창조하는 참다운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주체35(1946)년 봄 원산5월극장(도립극장)에서 연극배우로 새 생활의 첫 걸음을 내디딘 그는 이해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입당하였으며 주체39(1950)년 봄부터는 내무성연극단 연극배우로, 세포위원장으로 사업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일어 나자 신동철은 자신이 속한 내무성연극단과 함께 공화국북반부와 남반부의 여러곳을 순회하면서 싸우는 우리 인민들을 고무격려하는 전선위문공연을 힘차게 벌렸다.

이 나날에 그는 처음으로 예술영화 《비행기사냥군조》(1952)의 단역으로 출연해보기도 하였다.

주체42(1953)년부터 국립연극단 배우겸 당위원장으로, 주체47(1958)년부터 평양극장 배우겸 천리마창작단 단장으로 사업한 그는 이 과정에 여러 작품들에 출연하여 배우로서의 예술적기량을 차분히 쌓아나갔다.

특히 그는 연극 《리순신장군》(1954)에서 부정인물인 원균역, 《승냥이》(1956)에서 미국선교사 역,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1960)에서 이시가와역 등 재치있는 역인물을 형상하여 개성을 가진 배우로서의 얼굴을 보여 주었다.

배우로서의 신동철의 예술적재능은 그후 영화부문에서 전성기를 이루었다.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주체52(1963)년도에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초대 배우단 단장으로 소환된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자신이 출연한 수많은 영화들에서 인기 있는 배우로서의 개성적면모를 뚜렷이 보여 주었다.

주체53(1964)년도에 조선예술영화촬영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신동철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며 우리 함께 일해 보자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영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해 보자고 크나큰 신임과 믿음을 안겨 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예술영화 《한 지대장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신동철이 출연한 수많은 영화들의 창조과정을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심으로써 그가 매번 연기형상에서 풍만한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시였다.

따뜻이 이끌어 주는 위대한 스승의 손길이 있고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의 지침이 있어 그는 특색있는 연기형상의 능수로, 자기의 품격을 갖춘 성격배우로 성장하는 묘리를 빨리 터득할수 있었다.

하여 신동철은 예술영화 《붉은 꽃》(1963)에서 지주역, 《유격대 오형제》(1968)에서 일본관동군대장역, 《압연공들》(1972)에서 간첩인 설비과장역 등 15편의 작품들에 출연하여 관중의 인상에 남는 훌륭한 연기형상을 창조할수 있었다.

신동철이 창조한 연기형상들을 보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연기들이 매우 진실감이 있고 깊은 인상을 준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런 성과는 배우의 가슴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이 간직되여 있었기때문이라고 뜨겁게 고무해 주시였다.

신동철을 우리 당과 인민의 사랑을 받는 우수한 배우로 키워 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은 끝이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신동철의 기량훈련동작을 몸소 사진으로 찍어 주시며 세심한 가르치심도 주시였고 그의 안목과 식견을 넓혀 주시기 위해 여러 기회에 친히 100여권에 달하는 각종 참고서적들도 보내주시였으며 외국에도 파견해 주시였다.

또한 그가 앓고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병세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친히 고급약재와 식료품까지 보내주시였다.

이 사랑, 이 믿음속에서 신동철은 주체57(1968)년 12월 8일 공훈배우의 칭호를 수여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으며 그의 삶과 재능은 더 활짝 꽃 피여 나게 되였다.

영화배우로서의 신동철의 특징을 론할때 무엇보다 이야기되여야 할것은 부정역 형상을 재치 있게 할줄 아는것이였다고 말해야 할것이다.

이미 앞에서 이야기된것처럼 신동철은 연극배우로 있을 때에도 영화부문에 있을 때에도 주로 부정역들을 맡아 수행하였다.

물론 이것은 그자신이 소망하여 된것은 아니였다.

묻건대 우리 배우들속에 과연 누가 부정역형상을 좋아 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배우는 긍정인물만이 아니라 순사나 지주, 자본가들도 형상하여야 하며 또한 얼마든지 형상할수 있다.

배우가 자기 계급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고 원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원쑤의 가증스러운 몰골도 그대로 재현할수가 있는것이다.

신동철은 자신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원쑤를 끝없이 미워하는 배우만이 적들의 반동적본질을 깊이 꿰뚫어 볼수 있으며 그로부터 흘러 나오는 반인민적인 사상과 감정, 추악한 행동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그것을 증오의 격정으로 생동하게 재현할수 있다는것을 누구보다 깊이 자각하고 있은 배우였다.

때문에 그는 적지 않은 배우들이 자기에게 차례진 부정역을 놓고 배역타발을 할 때에도 그것을 흔연히 받아 들일줄 알았으며 자신이 맡은 역세계를 충실히 개척해 나가군 하였다.

하여 그는 자기가 맡은 부정역들인 지주와 자본가, 순사와 자위대장 그리고 일제침략군 고관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형상들을 매번 개성이 뚜렷한 개개의 생동한 인물들로 창조할수가 있었던것이다.

조선영화사상 절대다수의 배우들이 긍정역의 주인공으로 성공하거나 이름을 날릴 때 그와는 정반대인 부정역으로, 그것도 주로 단역으로써 성공하여 우리 관중들과 친숙해 진 바로 여기에 배우로서의 신동철의 뚜렷한 얼굴이 있는것이다.

부정역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신동철은 특히 얼굴표정에 많은 신경을 쓰군 하였다.

그는 대본을 받아 쥐고 일단 그에 대한 파악이 선 다음에는 곧 분장실로 달려 가 자체로 분장을 한 기초우에서 역인물의 형상에 대하여 골몰하군 하였다.

그는 얼굴표정에 남달리 깊은 관심을 두었다.

실지로 그가 간주하고 있은것처럼 사람의 얼굴은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와 같은 사상감정, 복잡한 심리의 움직임도 섬세하게 나타낸다.

신동철은 얼굴표정에서도 눈연기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군 하였다.

아는바와 같이 얼굴에서도 눈은 사람의 내면세계를 가장 집중적으로, 민감하게 드러내 보이며 깊은 속생각까지도 예리하게 드러낸다.

눈은 때로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는 섬세한 감정과 미묘한 심리도 뜻깊게 나타낼수 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눈은 사람의 마음을 비쳐내는 거울이라고도 하는것이다.

이것은 신동철이 화면의 다양한 크기로 인간생활의 세부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영화의 특성을 처음부터 옳게 파악하고 있었다는것을 실증해 준다.

신동철의 이와 같은 자세와 립장은 그가 영화부문으로 자리를 옮긴후 처음으로 출연한 예술영화 《붉은 꽃》의 지주역형상에서부터 생동하게 드러났다.

지주가 자기집 사랑방에서 쌍가마 어머니를 욕질하는 장면이라든가 사과밭 장면에서 어린 쌍가마가 떨어진 사과알을 쥐려고 할 때 눈살이 꼿꼿해 가지고 입을 삐죽 내밀며 개화장으로 어린애의 손등을 사정없이 짓누르는 장면과 같은 그의 세부연기는 착취계급의 횡포한 잔인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가 창조한 지주역형상이 어찌나 생동하였던지 당시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술영화 《붉은 꽃》은 계급투쟁의 산 교과서와 같다고 하면서 악착스러운 자기 마을 지주놈을 보는것만 같다는 소감의 편지들을 촬영소와 신문사들에 련이어 보내여 왔다.

배우로서의 신동철의 특기라고 할수 있는 이와 같은 얼굴표정연기는 비단 예술영화 《붉은 꽃》에서만이 아니라 그가 출연한 다른 이여의 작품들에서도 뚜렷이 찾아 볼수가 있다.

문예총중앙위원회 제6기 제14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4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월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문예총중앙위원회 위원들, 문예총산하 각 동맹위원들, 문학예술관계부문일군들, 공로 있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새해 공동사설을 받들고 창작가, 예술인들을 새로운 창작적앙양에로 불러 일으키기 위한 문예총과 동맹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보고를 문예총중앙위원회 장철위원장이 하였다.

이어 《혁신적인 안목과 진취적인 사업기풍으로 우리 작가들이 새 세기에 맞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앙양을 일으켜 나가도록 하겠다》(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현승남), 《예술교양을 강화하여 영화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이 새 세기 문예부흥의 돌파구를 남먼저 열어 나가겠다》(조선영화인동맹 중앙위원회 서기장 최정건), 《현실체험을 강화하는것은 선군혁명의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명작창작의 선결조건》(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성민), 《21세기에 맞는 명작, 명곡을 창작하기 위하여 실력전의 된바람을 더 세차게 일으켜 나가겠다》(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학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성과에 토대하여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과 조선인민군창건 70돐기념 및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태양의 노래〉가 김정일세기의 장엄한 포성으로 되게 하는데 기여하겠다》(문화성 부상 송석환)라는 제목으로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지도밑에 지난해 문학예술부문에서 자랑찬 성과가 이룩된데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였다.

특히 당창건 55돐을 맞으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 세계적인 대걸작, 20세기 문예부흥의 총화작으로 훌륭히 창조하여 10월의 대축전장을 환희롭게 장식하고 20세기를 빛나게 결속한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또한 소설 및 시가부문에서 서사시 《조국이여 청년들을 자랑하라》, 련시 《우리의 고향집은 백두산에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붉은 산줄기》, 《삼천리강산》,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서해전역》을 창작한것을 비롯하여 영화와 음악, 미술부문에서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 우리 인민의 투쟁과 위훈을 노래한 시대의 명작들을 수많이 창작해 냄으로써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에 힘 있게 기여한데 대하여 긍지높이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해 문학예술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는데서 창작가, 예술인들이 맡겨 진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할수 있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며 우리의 문학예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하겠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문예총과 산하 각 동맹조직들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절대적인 숭배자, 수령결사옹위의 선봉투사들의 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창작가, 예술인들을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 세워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충성의 력사가 21세기에도 끊임없이 이어 지게 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들은 창작가, 예술인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문학예술부문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여 나가며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켜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명작들을 더많이 창작함으로써 새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문예총조직을 경애하는 장군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장군님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해나가며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능력 있는 일군들로 튼튼히 꾸려 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창작가, 예술인들이 들끓는 현실속에서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명작을 창작해 낼수 있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뚜렷한 목표와 탐구정신을 가지고 현실체험을 목적의식적으로 실속 있게 하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창작가, 예술인들의 실력을 높여 주기 위한 각종 강습과 작품현상모집, 작품전시회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히 벌려 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지적하였다.

혁명적인 무대작품창작에서 혁신을

—피바다가극단에서—

희망찬 새 세기, 21세기에도 주체조선의 예술인들은 우리 조국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세기, 우리식 사회주의의 붉은기가 더높이 휘날릴 승리의 새 세기로 되게 할 불타는 일념 안고 새해 첫 걸음부터 힘찬 진군길을 다그치고 있다.

모든 예술인들이 다 그러하지만 피바다가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도 시대를 진감하며 전진하는 대오속에 자기들의 힘찬 발걸음을 맞추며 21세기에도 영원한 동지애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할 드높은 열의에 충만되여 있다.

올해 창립 30돐을 맞는 이곳 일군들과 예술인들은 1970년대 피바다식혁명가극의 첫 포성을 울리던 그날의 정신과 그 기백으로 혁명적인 음악예술작품창작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

연출실장 채명석동무를 비롯한 창작가들은 혁명가극 《피바다》의 주역을 맡은 배우들의 노래형상은 물론 무대에서의 연기를 보다 진실하고 현실감이 나게 하기 위하여 창작적열정과 재능을 다 바쳐 가고 있다.

인민배우 조청미동무는 가극에서 주인공인 어머니역을 손색없이 하기 위하여 우선 자신을 우리 당의 문예사상과 리론으로 무장하기 위한데 모를 박고 학습을 실속 있게 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극은 노래의 예술이며 행동의 예술이며 생활의 예술이다.》**고 하신 말씀을 가슴깊이 새긴 그는 모든 예술형상에서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대 생활을 깊이 연구하고 있으며 노래형상에서 가사발음과 호흡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곳 창작가, 예술인들은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을 다그치는데서 기본은 선군혁명로선을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는것이라는것을 철리로 간직하고 시대정신이 구현된 가요를 창작형상하기 위한 전투를 힘 있게 벌리고 있다.

작곡가 김호일동무는 선군혁명로선관철 주제의 가요를 남성합창으로 훌륭히 창작형상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하고 있다.

무용안무가들인 전남영, 김목룡, 김인철, 김영선동무들은 여러가지 형식의 무용작품창작에 자신들의 창작적열정을 다 바쳐 우아하고 아름다운 민족무용의 춤가락들을 작품마다에 훌륭히 구현하고 있다.

또한 안무가 김동건동무는 여러 편의 발레무용창작에서 성과를 거둔데 자만하지 않고 보다 특색있고 우리 당의 문예사상이 구현된 발레동작을 창작하는데 있는 재능과 열정을 다 바치고 있다.

이제 머지않아 진행하게 될 전국무용축전에서 반드시 우승의 영예를 빛내일 불 타는 일념 안고 이곳 무용창작가, 예술인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 있다.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여러가지 음악무용작품창작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피바다가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

이들은 올해 공동사설관철에서 한몫 든든히 할 드높은 열의 안고 창작, 창조사업에서 보다 큰 창작적앙양을 일으켜 나감으로써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 주신 우리 당 문예로선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서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 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문예총사업의 성과여부는 문예총과 각 동맹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모든 지도일군들이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주도성, 창발성, 헌신성을 가지고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유능한 작전가, 패기 있는 실천가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집행계획서가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조직문제가 토의결정되였다.

◇ 방문기 ◇

시대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조선영화문학창작사 작가들을 찾아서—

우리가 작가 지희란동무를 찾아서 그의 집으로 취재 갔을 때 남편은 이런 쪽지의 글을 우리에게 내보이였다.

《오늘 저녁 기다리지 마세요.》

이것을 선뜻 리해하지 못하고 마주보는 우리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쪽지가 저를 이렇게 기다리게 한지는 이제는 한달이 되여 옵니다.》

(한달이라니?) 작가의 집으로 오기전에 영화문학 작가들의 창작전투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조선영화문학창작사에 취재 갔을 때 그곳의 한 일군은 아쉬워 하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었다.

《우리 작가들은 모두 현지에 나가고 여기에 없습니다. 조금만 빨리 왔어도 현실체험지에서돌아온 지희란동무라도 만나볼수 있을건데.

밤새껏 여기서 작품토론을 하다가 방금 돌아 갔습니다.》

그때 일군은 분명히 작가가 돌아 갔다고 말했다.

한달만에 현실체험지에서 돌아 온 작가가 집으로 오지 않고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것도 가정부인이…

우리는 좀처럼 리해가 되지 않아 망설이다가 남편에게 이야기하였다.

작가가 현실체험지에서 돌아 와 창작사에서 작품토론을 하고 돌아 갔다는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은 알만 하다는듯 머리를 끄덕이더니 웃으며 하는 말이였다.

《허허,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 올수가 없지요. 분명히 그는 현실체험지로 다시 갔을것입니다. 작품을 완성하려고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신들의 실책에 다음말을 찾지 못했다.

(아차, 우리가 무슨 실수를.)

새해에 들어 와서 조선영화문학창작사의 모든 작가들은 침식을 잊어 가며 현실에서 창작전투를 벌리고 있다는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가정부인까지야 했던 우리의 짧은 생각이 이렇듯 큰 실수를 낳게 할줄이야.

우리는 안해를 기다리는데 습관이 되였다고 하는 그의 남편의 말을 뒤에 남기며 서둘러 덕천에서 창작전투를 벌리고 있을 작가 지희란동무를 찾아서 떠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생활현상을 관찰하는데 머물지 말고 생활속에 깊이 들어 가 생활현상으로부터 생활의 본질에로 끝까지 파고 드는 철학적사색과 탐구능력을 가져야 한다.》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에 우리 안해들속에서 발휘되였던 아름다운 소행을 가지고 작품을 쓰고 있는 지희란동무를 찾아서 우리가 갔을 때 그의 방문에는 이런 쪽지의 글이 씌여 져 있었다.

《출입금지!》

우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

또다시 두드려 보았으나 역시 같았다.

우리는 저도모르게 갈마드는 불안한 생각을 안고 방문을 열어 보았다.

방 한쪽에서 키낮은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창작에 여념이 없는 작가를 보는 순간 우리는 반가움에 그를 소리쳐 찾았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찾는 소리도 우리가 곁에 와 선것도 모르고 원고지에 끝없는 창작의 세계를 펼쳐가고 있었다.

불타는 창작적열정을 가지고 창작전투를 벌리고 있는 그의 모습.

비록 그의 귀전에는 방안의 조용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어도 환상의 나래를 펼쳐 가는 그의 머리속에서는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녀인들의 락천적인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심장을 쾅쾅 울리며 들려 오고 있었다.

달리자, 우리 안해들이 어떻게 남편들을 도와주며 《고난의 행군》을 이겨 냈는지…

원고지우로 달리는 펜대, 깊은 호수와 같이 웅심 깊은 눈동자가 이 모든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는 그의 창작을 더는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무엇을 더 알수 있으랴. 그 무엇을 더 물으랴!

우리는 이미 조선영화문학창작사의 한 일군을 통해서, 작가들의 가정을 찾아서, 현실체험지에서 충분히 보고 느끼였다.

새해 공동사설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의 구호를 심장깊이 간직한 창작사의 모든 작가들은 21세기의 첫해인 올해를 더 훌륭한 명작으로 빛내이기 위하여 현지에서 창작전투를 힘 있게 벌리고 있는 것이다.

그가 신인작가든 오랜 작가든 지어 가정부인작가라 할지라도 모두가 한결같이 새해 첫날부터 창작전투를 벌리고 있었다.

하기에 조선영화문학창작사에서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련속편인 《청년영웅탑》, 《농민편》,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의 영화문학을 완성하여 촬영에 들어 갔거나 끝냈으며 영화문학 《심장에 간직하라》(가제), 《구봉령 일가》(가제), 《10년전, 10년후》(가제), 《생활이 시작되는 곳에서》(가제), 《소중히 여기라》(가제), 《기다리는 숲》(가제)등 수많은 작품을 창작하여 내놓을수 있었다.

현실속에서 시대와 심장의 박동을 맞추는 작가들.

이들의 창작전투장은 언제나 현실속이였다.

안주와 남포, 북방의 철의 기지와 먼 바다의 어촌 그 어디에서나 우리는 시대와 함께 심장의 열도를 뜨겁게 높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다.

영화문학작가 한정철, 김한솔, 한정희, 정영복동무들과 한일민, 허종선, 조학철 등 창작사의 모든 작가들.

그렇다. 사람들이여 이들을 믿으시라.

가정의 따뜻한 아래목도 뒤로 미루고 새해 첫날부터 엄동설한의 강추위속에서 입김으로 펜대를 녹여 가며 원고지를 번져 간 이들을 믿으시라.

비록 오늘은 기다리는 사람으로 되였어도 래일은 행복한 사람으로 불리워 질 우리의 미더운 모습들이다.

우리는 전국각지에서 힘찬 창작전투를 벌리고 있는 미더운 우리 작가들의 모습을 가슴 뿌듯이 받아 안으며 취재지를 떠났다.

본사기자 황 봉 송

새로운 형상적탐구에 열정을 바쳐

—평양미술대학 정현일선생을 만나다—

《볼수록 조선혁명이 어떻게 수호되고 우리 투쟁의 승리가 무엇에 의하여 담보되는가를 가슴 뜨거이 절감하게 되는 필승의 영웅적화폭이다.》

《혈전의 그 나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모습에서 오늘의 강행군의 진두에 거연히 서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엄한 영상을 뵈옵는것만 같다.》

…

이것은 두해전 미술박물관에서 본 한폭의 그림앞에서 듣게 된 참관자들의 감동젖은 목소리의 일부이다.

그때처럼 지금도 의연히 작품이 안겨주는 커다란 사상정서적감화력은 개성적인 필법이 보여 준 예술적형상화의 위력과 함께 흘러 간 세기가 낳은 또 하나의 현대조선화 본보기작품으로서의 품격을 유감없이 과시하며 미술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와 당앞에 나선 혁명임무로부터 문학예술부문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분발하여 우리 인민을 더욱 힘 있게 불러 일으키며 그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주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신에 필승의 신심과 용기 그리고 활력을 더해 주며 보는 가슴마다에 깊은 감명을 새겨주는 한폭의 조선화작품.

조국광복을 위한 우리 수령님의 피어린 20성상 항일대전의 그 불바다 만리길에 펼쳐졌던 소왕청 근거지 방어전투, 그날의 소왕청 혈전의 언덕을 보며 우리는 오늘의 억년 드놀지 않는 사회주의 성새를 생각하게 된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승리의 함성 높이 원쑤격멸의 결전에 과감히 일떠선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은 그대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쳐 우리 식 사회주의보루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의 서사시적 화폭이다.

당의 령도밑에 20세기 인류미술의 세계사적본보기로 되는 주체미술의 보물고를 또 하나의 국보적 명화로 빛내는 조선화 《혈전의 진두에 서시여》.

보면 볼수록 깊은 감동과 형상적여운을 안겨주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시대의 명작을 창작한 정현일동무를 만난것은 얼마전 주체미술의 믿음직한 후비들이 자라는 대학의 교정에서였다.

척 보기에도 인상적인 그의 얼굴표정과 몸가짐에서는 흔히 랑만적인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어떤 생리적인것이 비껴있었다.

우리는 그에 대하여 알고 싶었다. 그러나 항상 교원들과 학생들의 기대와 존경속에 있다는 교육자의 기색은 어쩐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놓기 어줍은 표정이였다.

(초면이여서 그럴가?! 얼굴색은 홍당무빛으로 변해 지고 몸새는 왜 저리도 부자연스러울가.…)

만나고보니 듣기와는 달랐다.

소기의 취재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것만 같은 걱정을 느끼고 있을때 마침 구면인 푸접좋은 전영삼강좌장이 우리의 우려감을 털어 주며 그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것이였다.

…정현일동무는 유년시절부터 그림그리기를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당에서는 미술에 뛰여 난 소질을 가진 그에게 배움의 넓은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주체72(1983)년 대학을 졸업하고 모교의 교단에 선 그때로부터 보람차고도 긍지로운 세월이 흘러갔다.

오늘도 그의 가슴속에는 지금껏 받아 안은 은정 넘친 사랑과 누려 온 행복한 삶에 대한 못잊을 추억이 소중히 간직되여 있다.

해빛 밝은 평양학생소년궁전창가에서 나서 자란 수도 평양의 아름다운 풍경을 크지 않은 화판우에 그려 간 꿈많던 미술소조시절,

미술대학 입학통지서를 작은 손에 받아 쥐고 기쁨에 넘쳐 달려 간 비 내리던 수십리 밤길,

전문부 3학년때 그린 조선화 《내칠보의 아침》이 대학전시회에서 1등의 영예를 쟁취했을 때의 그 남다른 희열,

학부 3학년때부터는 특별히 조직된 명화가반에서 마음껏 재능을 꽃피웠고 달마다 받아안는 김일성장학금에 고마움의 눈물지으며 맹세로 불타던 그 나날.

여기에 다 적을수 없는 크나큰 뜨거움을 안고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지난 17년간 그는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여 우리 화단에 그 생신함을 잃지않는 아름다운 꽃들을 소중히 피워가고 있다.

조선화 《칼춤》(주체74년), 《장군님의 품을 찾아서》(주체76년), 《모란봉의 가을》(주체77년), 《바다의 주인들》(주체77년), 《순천의 첫 불길》(주체78년), 《내여 줄수 없는 땅》(주체79년), 《신념》(주체81년), 《10월의 아침에》(주체83년),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주체85년),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주체86년), 《만경대의 봄》을 비롯하여 지난 기간 그가 창작한 30여점의 작품들중 여러 점이 국가미술전람회들에서 금메달을 받았고 국보로 평가된 그림도 적지 않다.

《전문창작기관도 아닌 대학에서 교육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작품을 창작한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과학부학장인 학사, 인민예술가 김삼곤선생은 이렇게 말하면서 훌륭한 명화를 창작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드릴 사상적각오와 불타는 열정이 없이는 오늘의 주목할만한 그의 창작적성과에 대해 기대하기 어려울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으로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에 의한 다양한 주제의 선택, 심오한 사상적내용, 유능한 형상적표현력을 지난시기의 성과작들에서 뚜렷이 보여준 정현일동무는 조선화 《혈전의 진두에 서시여》창작을 통해서도 재능있는 예술적기량을 다시금 높이 발휘하였다.

화폭에 그려진 전투정황에 맞는 각이한 인물설정과 진실하고 생동한 성격형상 그리고 집약과 함축의 표현수법으로 처리한 현실감나는 화면분위기,

조선화의 전통적인 몰골기법에 의한 기세차고 박력있는 선의 활용과 독특한 색채표현,

이것은 그의 풍부한 묘사력과 높은 형상수준에 의해 담보되는 귀결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런가 하면 개성의 자취가 뚜렷한 세련된 필치에서는 창작가의 얼굴과 예술적기교가 형상적매력으로 느껴지고 있다.

실로 명작이 거둔 높은 사상예술성에서 우리는 당의 주체적인 미학사상과 미술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보다 새로운 형상적탐구에 사색과 열정의 초점을 모아가는 미술교육자의 남다른 창작적자세와 재능을 충분히 엿보게 된다.

《참신한 〈씨앗〉에서 알찬 〈열매〉를 보기까지 미술가는 자기의 부단한 사색과 창조적열정을 〈토양〉에 소중히 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정신과 인간의 숨결이 느껴 지는 의의 있는 종자와 심오한 주제사상적내용도 완벽한 조형예술적형상과의 결합속에서 더욱 빛나고 한층 부각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언제나 새로운 형상에 바쳐가는 탐구와 열정, 그것은 명작창작의 중요한 담보라고 말할수 있지요.…》

이것은 교육자로서 사랑과 존경을 받고 화가로서 미술계에 잘 알려진 정현일동무의 열정 넘친 눈빛에서 읽게 된 심중의 목소리이다.

우리 조선화 화단에 인상깊은 개성의 자취를 남긴 미술교육자의 금후 창작적성과가 자못 기대되고 기다려 진다.

오늘도 그는 새 세기의 진격로에 빛나는 명화폭들을 펼쳐 갈 불타는 일념안고 새로운 형상적탐구의 길을 걸어 가고 있다. 언제나 쉼없이 그리고 열정에 넘쳐…

본사기자 량 금 철

패권을 쥔 소안삼불 남성4중창

전형적인 안삼불의 극치로 예술계에서 패권을 잡고 있는 만수대예술단 남성4중창조.

노래형상은 물론 키와 얼굴생김새에서도 하나같아 인민들의 아낌 없는 절찬을 받고 있는 남성4중창은 영화배우를 알고 있듯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랑 받는 소안삼불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주체예술이 온 세계 인민들속에서 폭풍 같은 환호를 불러 일으키며 최고봉의 예술로 이름 떨치던 그 나날에 자기의 뚜렷한 개성을 가진 하나의 공연종목으로 태여난 만수대예술단 남성4중창조는 모든 노래형상에서 안삼불의 극치를 이루며 자기 발전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남성4중창이 인민들속에서 왜 환영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입내 피우는 사람이 없을뿐아니라 만수대예술단 남성4중창조만이 패권을 잡고 있기때문입니다.

패권을 잡고 계속 텔레비죤에 나오니까 인민들이 영화배우를 알고 있듯이 남성4중창조동무들만 지나가면 〈4중창조다〉라고 말합니다.》

만수대예술단 남성4중창조가 오늘 완전히 자기의 특색을 가지고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것은 전적으로 예술의 스승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이 있었기때문이다.

주체62(1973)년 11월초 이날 만수대예술단에서는 년말을 앞두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할 신년경축공연준비로 흥성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구석엔 근심이 없지 않았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간곡한 가르치심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가슴속에 자리잡고 있었기때문이다.

그전해 신년공연을 준비할 때 예술단의 공연준비정형을 보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높은 연주기량을 보여 준데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주시는 한편 공연종목을 여러가지로 편성하여야 하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시였다.

그날 일군들과 예술인들은 심한 자책으로 하여 머리를 들수 없었다.

그후 예술창조사업에서는 여전히 고정된 형식에서 곡목만 한두가지씩 바꾸는 등 낡은 틀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몇곡의 새로운 노래를 형상하면서 그를 더욱 세련시켜 나가긴 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성중창이지 형식에서 새로운것은 아니였다.

더구나 크나큰 사랑과 영광으로 수놓아 진 주체62(1973)년을 생각해 볼 때 그대로는 더욱 새해를 맞이할수 없는 그들이였다.

하루의 련습이 끝나면 남성중창조성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구절구절 새겨 가며 깊이 연구해 나갔다. 그 과정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기본형식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형식을 만들어 낼데 대한 가르치심을 다시금 새겨 안게 되였다.

그 관철을 위한 토론을 심화시켜 나가던 그들은 남성4중창을 한번 해볼 생각을 안고 지휘자와 마주 앉았다.

욕망을 안고 창조에 들어 갔으나 4중창이라는 소안삼불을 해본 경험도 없고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는 그들은 형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여러가지로 토의하던 끝에 그들은 노래의 색갈이 서로 다른 몇개의 곡을 선정하여 련습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주체62(1973)년 12월 8일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할 신년공연준비정형을 보시기 위하여 만수대예술단을 찾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예술단은 명절처럼 흥성거렸으며 한해동안에 자기들이 쌓아 올린 새로운 연주기량을 보여 드리게 될 흥분을 안고 가슴을 들먹이고 있었다. 그러나 남성4중창조성원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다.

그이께 보여 드리기에는 너무도 어설픈데가 많은 남성4중창이였다.

공연을 앞둔 4중창조성원들의 심정은 마치도 시험준비를 잘하지 못한 학생들처럼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공연이 거의 끝나갈무렵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성4중창도 준비했다는데 한번 보자고 하시면서 그들을 친히 부르시였다.

자신 없는 걸음으로 그이앞에 나선 그들은 련습

할 때보다도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였다.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날 오늘 본 작품중에서 남성4중창이 제일 좋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식이기때문에 더욱 좋다고, 3중창도 아니고 4중창으로 편성한것이 잘되였다고 하시면서 편곡을 재미있게 하였을뿐아니라 노래 부르는 동무들도 잘 형상하였으며 연주수준이 높다는 과분한 치하를 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성4중창조가 앞으로 노래형상에서 견지하여야 할 방향과 방도들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친히 매 가수들의 이름을 불러 주시며 그들이 설 위치와 형상방도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1고음은 부드럽고 화려한 소리를 낼수 있는 가수로, 2고음은 윤택있고 강한 색갈을 가진 가수로, 중음은 맑고 윤활하게 소리를 내면서도 웃소리를 잘 낼수 있는 가수로, 저음은 풍만한 음량과 민활하고 맑은 소리를 낼수 있는 가수로 선정해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각이한 특징을 가진 가수4명을 선발하여 노래를 몇번이고 들어 보시고 거기서 울려 나오는 음악적조화를 일일이 가늠해 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듯 남성4중창조의 성원들을 한사람한사람 친히 선정하여 주시고 그 색갈과 울림에서 누구도 흉내낼수 없는 독특한 색갈을 가진 우리 식의 남성4중창 소안삼불로 꾸려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성4중창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인 12월 24일 남성4중창을 지도하여 주시려고 만수대예술단을 찾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 설명절연회공연에 새로 내놓을 남성4중창을 들어 보려고 왔다고 하시면서 4중창이 노래부르던 인상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믿음에 넘친 뜨거운 말씀을 주시였다.

이날 4중창조의 노래를 다시 들어 주신 장군님께서는 전번에 듣던 때보다 더 나아졌고 세련된 맛이 난다고 하시며 남성4중창의 특색을 잘 살려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설명절을 앞둔 그믐날 밤에 또다시 만수대예술단을 찾아 주시고 한해의 마지막밤을 고스란히 밝히시며 어버이수령님께 보여 드릴 모든 공연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 주시였다.

그날 밤 4중창조성원들이 너무 긴장하여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였을 때 장군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부드럽게 타일러 주시며 그 시정방도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였다. 그러신 다음 그들이 부른 세곡은 그 어느 하나도 예비곡으로 두기에는 아깝다고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 세곡 다 불러 드리도록 하는 크나큰 영광과 신임도 안겨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임의의 시각에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개별적으로도 들어 주시고 2중창, 4중창으로도 들어 보시면서 배우들의 얼굴표정과 입놀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음정과 화음, 노래성격에 대한 파악에 이르기까지 형상과 안삼불의 모든 요소들에 대하여 세심하신 지도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남성4중창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지도는 이렇게 처음부터 깊고 뜨거우시였다.

불과 20일 남짓한 기간에 5차례나 친히 보아 주시면서 남성4중창의 특색을 깨우쳐 주시고 곡목을 선정해 주시며 형상을 하나하나 다듬어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남성4중창은 드디여 하나의 독자적인 면모를 갖추고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새해 연회공연과 여러 국가수반들을 환영하는 행사공연에 출연하여 기쁨을 드릴수 있었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성4중창의 형상수준을 한계단 더 발전시키기 위한 지도를 더욱 정력적으로 주시였다.

4중창조성원들중 어느 한 배우의 노래를 들으시고 그의 얼굴색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종합검진과 치료를 받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런 육친적인 사랑과 가르치심속에 남성4중창은 가요《수령님 은덕일세》,《세금없는 우리 나라》,《최령감네 평양구경》,《웃음꽃이 만발했네》,《조국의 자연을 개조해 가세》,《지하전초병의 영예》등 여러가지 형식의 노래들을 민족적이며 현대적인 미감에 맞게 잘 형상하였으며 그 흥취와 기백으로 하여 인민들은 보다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

돌이켜 보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사랑속에서 만수대예술단 남성4중창이 걸어 온 지난 기간은 친어버이 품속에서 예술적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걸어 온 영광의 자욱이였으며 우리 식 4중창으로서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또 하나의 예술작품, 본보기 소안삼불이다.

오늘 이들은 남성4중창에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고저 새로운 음악예술작품창작과 창조에서 충성의 날과 날을 보내고 있다.

새 세기 혁명적예술창조의 보폭을 더욱 폭넓게 내디딘 주체조선의 예술인들이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20세기 문학예술부문에서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더욱 공고히 하며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자랑찬 예술창작과 창조사업에서 보다 큰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 주체예술의 위력을 다시 한번 힘있게 시위하자.

본사기자

◇ 창작수기 ◇

《푸른 견장》에 대한 이야기

—영화문학 《푸른 견장》을 쓰고—

리 희 복

1.아저씨의 견장은 왜 푸른색이나요?

이 물음은 예술영화 《푸른 견장》에서 연구사의 딸 경미가 주인공 리복재에게 묻는 말인 동시에 내가 인민보안성의 작가로 배치되여 집으로 돌아오던 날 웬 처녀아이가 나에게 문뜩 묻는 말이였다.

나는 그때 《글쎄?!》하고는 더이상 대답을 못한채 생각이 깊어졌다.

그날부터 나의 머리속엔 《푸른 견장》에 대한 이 물음이 그저 철 없는 아이가 묻는 말이 아니라 시대가 묻고 인민이 작가에게 묻는 말처럼 느껴졌다.

그렇다. 작가라면 마땅히 옳바른 대답을 해야했다.

대답도 한두마디의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영화로 대답을 주자!

푸른 견장의 참뜻은 무엇이며 그 견장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를!

그때부터 나는 《푸른 견장》의 주인공들을 찾아다니며 취재도 많이 했고 초고도 여러편 썼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채 번민속에 모대기고 있었다.

나의 작가적기량이 부족한탓인가? 아니면 주인공으로 될만한 원형을 똑바로 찾지 못해서일가?

이런 고충으로 머리를 싸쥐고 있을 때 뜻밖의 소식이 나의 심장을 높뛰게 했다.

주체86(1997)년 3월 30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보안성협주단 공연을 보시고 불순적대분자를 제압하고 희생된 리복재동무를 인민보안원, 인민경비대 군인들이 따라 배워야 할 수령결사옹위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의 전형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뜻 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렇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승차보안원이였던 리복재동무야말로 푸른 견장의 전형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때야 비로소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원고지며 취재노트를 그러안고 리복재동무가 생활하던 평양승차보안서로 달려 갔다.

이미 여러 출판물을 통하여 리복재동무가 발휘한 영웅적소행은 알고 있는지라 얼마간의 취재와 현실체험만 하면 일사천리로 초고를 써낼 심산이였다.

허나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주관적욕망이였을뿐 정작 펜을 들자고 보니 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리복재동무와 비슷한 원형인 김광철영웅과 비행사 길영조영웅에 대한 영화가 이미 세상에 나왔기때문이였다.

어떻게 하면 류사성을 피하겠는가?

그들 세사람이 발휘한 영웅적소행에서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리복재영웅은 렬차칸에서 수류탄을 덮었고 김광철영웅은 훈련도중 산중에서 수류탄을 덮었다는 사실이다.

생각할수록 난감했다. 여기서도 주인공의 성격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그리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한편의 작품을 써도 그것이 생활인식의 힘 있는 수단으로 될수 있게 여러모로 심사숙고하고 품을 들여 써야 한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나는 원형에 대한 취재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원형과 생활! 나는 뒤늦게야 원형의 생활을 모르고 창작에 달라붙었다는것을 알았다. 현실속에 들어 가자!

이런 결심으로 현실체험을 하던 어느날 렬차칸에서 나는 하나의 사실을 목격하게 되였다. 내가 한 승차조원과 함께 렬차칸에 들어 서는데 어디선가 총각애의 울음소리가 간간이 들려 오는것이였다.

다가가 보니 댓살나보이는 사내애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어머니에게 매달려 투정질을 해가며 울고 있는것이였다.

애어머니는 물론 옆에 앉은 손님들까지 사탕과 사과를 쥐여 주며 달래였지만 아이는 여전히 막무가내였다.

《아저씨! 이 애를 좀 욕해 줘요!》

급해 난 애어머니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것이였다.

그러자 함께 가던 승차조원이 《고운 아이 왜 욕을 해요. 야, 너 참 곱구나.》하며 다정히 머리를 쓸어 주는것이였다.

순간 우리를 힐끗 쳐다보던 아이는 신비스러울 정도로 대번에 울음을 그치였다.

그러자 곁에 앉았던 중년나이의 남자손님도 신통하여서인지 《허허, 그 녀석이 보안원을 알아 보는구만》하며 가벼운 웃음을 터치였다.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나는 생각이 깊어 졌다.

이것을 그리자.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푸른견장의 전형을 그리자. 울던 아이도 푸른 견장을 보면 웃으며 안기는 주인공을!

나는 그때야 비로소 리복재의 성격을 규정하고 작품에 주인공이 렬차칸에서 우는 아이를 달래는 장면을 설정할 생각까지 하였다.

주인공의 이 성격을 영화전반에 관통시킬수 있은것은 《아저씨의 견장은 왜 푸른색이나요》하고 물은 처녀아이의 질문에서 다소나마 얻은 성과라고 본다.

2. 대사 한마디, 생활세부 하나에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9(2000)년 9월 21일 예술영화 《푸른견장》 작업필림을 보시고 영화는 기본적으로 괜찮게 되였는데 농업과학원 연구사가 주인공인 렬차보안원의 아름다운 소행을 보고 일생에 처음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마치 우리 보안원들은 다 나쁜 사람들처럼 보이게 한것은 우리 나라의 긍정을 약화시키는것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는 그런 보안원은 일생에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할것이 아니라 드물게 보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또한 녀주인공이 보위대장을 하다가 결혼한후에는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 있는것으로 형상하였는데 사회생활을 그렇게 외곡하여 그리면 안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저는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전달 받고 온밤을 잠들수가 없었다.

제딴에는 우리 시대 보안원의 전형을 그린다고 했지만 대사를 아무런 생각도 없이 쓴것으로 하여 보안원들의 생활을 외곡하려고 했고 우리 나라의 긍정을 약화시킬번 하지 않았는가.

정말 엄중한 과오였다.

《일생에 처음 보는 사람》과 《드물게 보는 사람》 대사는 극히 짧은 한마디의 대사였지만 이 한마디의 대사에는 우리 시대의 전형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담겨 져 있었다.

생활세부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영화에서 다 수정되였지만 초기 작업필림단계에서는 녀주인공이 시집을 간 다음 복재가 승차근무를 떠날 때 집안에서 모자를 바로 씌워주는 장면밖에 없었다.

나자신도 이 장면을 보고는 녀주인공이 집에서 놀고 있는것으로까지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주관에 빠졌던 자신의 능력을 느꼈고 그후에야 주인공이 안해와 함께 출퇴근도 하고 산보도 하는 생활을 보충할수가 있었다. 다음으로 나는 초기 작품창작과정에서도 여러가지 고충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작품에 극성을 조성한다고 하여 려객전무 창호와 렬차보안원 승차조조장 광수와의 대립을 설정하여 놓고 창작에 달라붙었었다.

이렇게 되다보니 작품은 리복재에 대한 이야기보다 창호와 광수에 대한 이야기에 더 치우쳤다.

생활소재에는 저마다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작품의 원형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싶이 우리 시대 인간의 아름다운 정신을 지닌 소유자이다.

작품에서 미담적인 이야기를 피해 보겠다고 하여 인위적으로 극성을 꾸민다면 작가는 작품의 주인공을 잃게 된다는것을 나는 이번 창작과정을 통하여 절실히 느끼였다.

또한 작품의 견인력을 마감까지 끌고나가는데서도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이 작품에서 관중들이 기대를 가지고 보는것은 리복재의 사랑선이다.

그런데 이들의 사랑이 결합된 다음에는 무엇으로 관중들의 기대를 끌수 있겠는가.

물론 관중들은 수류탄을 몸으로 막는 주인공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려고 하는것만은 사실이지만 결코 이것이 작품의 기대선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여 찾아낸 인물이 작품에서는 미지의 인물선이였다.

자칫 잘못했다간 반탐물주제의 작품으로 될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였지만 나는 철저히 주인공 성격에 충실하면서 이것을 작품에 끌고 나갔다.

돌이켜 보면 예술영화 《푸른 견장》은 명실공히 원형으로부터 작품의 대사 한마디, 생활세부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가르치심속에서 완성된 영화이다.

나는 이 영화의 창작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언제나 명심하고 21세기의 첫해인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기 위하여 꼭 훌륭한 명작을 창작해 내겠다는것을 결의한다.

인민보안성 문학창작사 작가

독특한 형식과 연주로 이름 떨치는 녀성취주악단

사람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정말 멋있다. 대단하다. 녀자들이 나팔도 잘 불고 인물도 곱다. 게다가 복장도 하나 같고…

황홀경에 사로잡혀 연방 터치는 감탄의 인사를 받는 그 주인공들은 누구인가.

사람들은 흔히 나팔이라고 하면 남성들만 다루는 악기로 생각한다.

하지만 녀성들도 남자들 못지 않게 나팔을 잘 분다. 그것도 한두명이 아닌 백수십명의 녀성나팔수들이.

여러가지 형식의 취주악곡들을 높은 예술적기량으로 형상하여 뭇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주인공들은 바로 인민보안성 녀성취주악단의 연주가들이다.

그들의 박력 있고 저력 있는 연주솜씨와 울림은 일시에 땅을 박차고 질풍같이 내달리는 천군만마 같기도 하고 풍만한 정서와 랑만을 안겨주는 서정적인 곡들을 부드러운 소리로 재치있게 연주할 때면 하늘의 선녀들이 내려와 로동당시대의 숨결을 노래하는듯 하다.

하다면 사람들이 그처럼 황홀해하고 감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는 이런 훌륭한 녀성취주악단이 어떻게 꾸려 졌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음악은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풍부한 정서, 약동하는 생기, 래일에 대한 희망과 랑만을 안겨 주는 인간생활의 가장 친근한 예술이다.》

주체85(1996)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안전부 (당시)에 여러 국가행사들의 주악을 맡아 보장하는 녀성취주악단을 새로 조직할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녀성취주악단!

그것은 녀성들을 사회의 꽃으로, 행복의 꽃으로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이 생각하시고 그 어디에도 없는 새롭고 독특한 형식의 녀성취주악단을 꾸려 주실수 있은것이다.

처음 녀성취주악단을 꾸릴 때 이곳 창작가, 예술인들은 무엇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선발된 배우들의 대부분이 고등중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동무들이였고 필요한 음악기재와 설비들도 부족하였다.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배우들의 선발과 악단의 규모, 악기의 편성과 연주할 곡목들에 이르기까지 녀성취주악단의 사업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였으며 현대적인 금관악기들과 음악기재들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조치들도 취해 주시였다.

그때로 말하면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과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워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엄혹한 시기였다.

그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두차례에 걸쳐 200여점의 악기들과 수많은 악기부속품을 비롯한 음악기재와 설비들을 선물로 보내주시였던것이다.

참으로 그것은 우리 전사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의 재부도 아낌없이 돌려 주시는 우리의 장군님께서만이 베푸실수 있는 은정깊은 사랑이며 최상최대의 특전이였다.

하나를 주시면 열, 백을 주고 싶어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친어버이심정으로 그후에도 녀성취주악단의 규모와 연주가양성체계에 대해서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당시 한개 취주악편성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것을 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취주악한개편성을 가지고는 행사를 할 때 연주가들이 힘들어서 오랜 시간 연주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 규모를 더 늘일데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였다.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고 날을 따라 더해만 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은 그대로 녀성취주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의 지혜의 샘이 되고 열정의 나래가 되여 그들의 연주기량은 더욱 높아 갔다.

조직된지 몇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100여곡의 취주악곡을 창조 형상하였다니 정말 놀라운 성과라 아니할수 없다.

안겨주신 사랑과 믿음에 비해 볼 때 아직은예술적기량이 부족한 이들에게 여러 국가행사들의 주악을 맡아 연주하도록 하는 크나큰 신임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관악기의 더 높은 연주기술과 음악적인 기초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이들의 향학열을 기특히 여기시여 평양음악무용대학 통신분교까지 내오도록 하시여 이들이 음악적인 지식을 더 많이 쌓도록 하시였다.

진정 걸음걸음 따뜻이 손 잡아 이끌어 주시는

○ 명언해설 ○

《음악은 선률의 예술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말씀에는 음악은 선률을 기본수단으로 하는 예술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선률은 음악의 사상정서적내용을 묘사하는 기본수단이다.

음악에도 여러가지 표현수단이 있지만 여기에서도 독자적이고 자립적인 표현력을 가진 수단은 선률이다.

음악에서 화성이나 장단, 리듬도 자기의 독특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으나 독자적으로 음악형상을 창조할수는 없다.

오직 선률만이 음악의 사상정서적내용과 형상의도를 명백하고 충분하게 표현할수 있다.

선률은 음악형상의 사상예술적질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이다.

음악의 가치는 선률이 얼마나 아름답고 건전하며 특색 있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세상에 널리 알려 진 명곡들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선률로 남아 있으며 우리 인민이 즐겨 하는 아름답고 고상한 민요들도 다 선률로 전해 지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이 있어 녀성취주악단은 자기 발전의 첫 걸음마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뗄수 있었으며 길지 않은 나날속에 마련된 눈부신 성과도 그 사랑속에 마련될수 있은것이다.

지난해 4월 2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일요일 한순간의 휴식마저 마다하시고 몸소 인민보안성 녀성취주악단의 공연을 지도해 주시였다.

얼마나 바라고 소원하던 이날이였던가.

꿈결에도 뵙고 싶던 장군님을 모시고 공연하던 그날 녀성취주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이 세상 천만부모의 사랑을 다 합쳐도 따르지 못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만을 드릴 충성의 일념안고, 훌륭한 연주가로 성장한 긍지를 안고 자기들의 예술적기량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직 예술적측면으로 보나 연주기술적측면으로 보나 부족점이 적지 않은 그들에게 공연이 끝난 다음 새로 조직된 취주악단의 연주수준이 괜찮다고, 녀성취주악단은 세상에 없는 우리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라는 분에 넘치는 말씀을 주시였다.

그날 장군님께서는 취주악단의 연주활동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에 대하여 환히 밝혀 주시였다.

그리고 나어린 녀배우들이 힘들어 하지 않는가, 배우 년한은 얼마나 되는가도 물으시고 취주악단의 지휘자문제까지도 구체적으로 알아 보시고 그 양성사업을 잘 할데 대하여까지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녀성취주악단의 예술인들은 그 어디에 내세워도 제일 멋 있어야 한다시며 새로 완성된 옷도안도 친히 보아 주시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행사취주악을 제때에 보장할수 있도록 기동기재들도 보내주시고 보천보전자악단과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노래를 비롯하여 필요한 음악자료들을 제때에 보장 받도록 그 체계도 몸소 세워 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날 녀성취주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언제나 당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잊지 말고 그에 높은 예술적기량으로 보답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며 모든 고난을 이겨 내고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보람찬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주시였다.

이 땅에 만발하는 꽃송이들이 저 하늘의 태양의 빛과 열이 있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여 나듯이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해빛보다 따사로운 사랑과 믿음이 있어 녀성취주악단은 세상에 없는 독특한 형식과 미를 갖춘 예술집단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여러 국가행사장들과 범민족통일대축전장을 비롯한 조국땅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인민보안성 녀성취주악단의 힘찬 나팔소리.

이는 오중흡 7련대의 넋을 그대로 이어 받은 결사옹위의 혁명군악, 강성대국건설에로 힘있게 떠미는 투쟁의 진군가이다.

새 세기 진격로를 열어 나가는 돌격의 나팔수, 승리의 나팔수로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 가고 있는 인민보안성 녀성취주악단의 연주가들!

오늘도 이들은 장엄한 새 세기의 진군길에 높이 울려 퍼질 새로운 취주악곡창작과 창조에 자기들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가고 있다.

본사기자 김 초 옥

사랑의 풍경 《옥류풍경》

—텔레비죤예술영화 《옥류풍경》을 보고—

박 영 철

대동강의 풍경중에서도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펼치는 옥류풍경이 장관이다.

뭇사람들의 시선에 하나의 아름다운 자연풍치로만 안겨 오던 옥류풍경에서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지향과 열정에 넘친 생활을 포착한 창작가들세계는 더듬어 볼수록 즐겁다.

사람들속에서 긍지높이 전해가던 평양랭면 자랑은 21세기의 새해 첫날에 텔레비죤예술영화 《옥류풍경》에 의해서 더욱 감미롭게 안겨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가들은 큰 사건, 요란한 생활을 가지고 창작에서 한몫 보려고 하지 말고 현실에 있는 실생활을 의의 있게 그려 내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평범한 생활속에서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지향과 삶의 참다운 의미, 생활의 깊은 뜻을 음미하게 한 텔레비죤예술영화 《옥류풍경》은 시사해 주는 예술적가치가 자못 의의 있다.

《평양랭면》과 《옥류관》

평양랭면이라면 이 사람 자랑이 다르고 저사람 자랑이 다르다.

하지만 옥류관의 평양랭면자랑은 하나와 같이 엄지손가락이다.

그런데 이것이 텔레비죤예술영화의 소재로 될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눈부신 발전을 요구하는 오늘의 현실에는 참으로 기적적인 위훈들이 많다.

20세기의 끝점에서 21세기의 미래를 바라보며 줄달음친 우리 조국의 현실속에서 창조된 눈부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청년영웅도로건설전투장과 자강땅의 세벌농사, 대홍단의 감자농사, 발전소건설장들…물론 여기에는 우리 시대가 추켜 들어야 할 영웅적성격이 무수하다.

이에 관심하는 수많은 창작가들의 응당한 열의에 못지 않게 《옥류풍경》을 안고 고심속에 찾은 창작가들의 발견과 주장은 무엇이며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웃음속에 받아 안은 진실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평양랭면과 더불어 자랑하고 자랑하는 《옥류관》을 무심히 보지 않은 창작가들의 예술적소재의 선택은 선뜻 안겨 오기엔 평양랭면자랑이다.

그다음에 안겨 오는것은 옥류관자랑, 평양자랑이다.

영화가 끝날무렵 감격의 눈물속에 받아 안는것은 백두산3대장군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뜨거움이다.

피어린 항일전의 그날에 우등불가에서 조국이 광복되면 평양랭면과 숭어국을 실컷 먹어 보자고 하시며 조국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심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

몸소 옥류관의 터전도 정해 주시고 개관식날에는 함께 오지 못한 대원들을 그리시며 조용히 《사향가》를 부르시던 어버이수령님.

가장 어려웠던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안겨 주신 《고기쟁반국수》.

여기서 창작가는 흥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인민들에게 전하자. 재미 있는 생활, 흥미 있는 옥류관의 료리사들의 세계에 뛰여 들어 이 세상에 으뜸 가는 평양랭면의 력사를 더듬어 오르다 보니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눈굽을 적시고 온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웨치고 싶은 작가의 흥분과 환상이 나래편것이다.

평범한 우리 생활속에서 우리 시대의 모습을 포착한 여기에 우리가 긍정하는 소박한 모범이 있다.

소재는 이렇게 찾기탓이다.

《오시라 옥류관으로》

평양랭면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고 옥류풍경이라는 제목만 생각해도 마음이 경쾌해 진다.

영화는 경희극적양상으로 흐른다.

《고난의 행군》을 웃음으로 헤쳐 가는 사람들, 웃음속에서 랑만에 겨운 우리 생활의 진실을 보여주자.

우리 평양을 자랑하고 우리 시대 청춘들을 자랑하자.

창작가들의 의도는 이렇게 섰다.

은반으로 달리는 처녀빙상무용선수와 주방에서 국수와 씨름하는 남자료리사와의 어울릴수 없는듯한 인간관계가 맺어 지고 발전하는 과정에 생활이

탐구되고 극적인 리듬이 생긴다.

경쾌한 음악속에 료리사들의 대렬점검이 군대식으로 진행되고 로총각을 장가 보내기 위한 집단적이며 가정적인 움직임이 벌어 지는가 하면 이에 반기를 든 처녀측의 인물들이 동분서주한다.

그러나 날이 흐를수록 국수에 매혹되고 국수를 만드는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감동되여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에 머리가 숙어지면서 이들의 사랑은 싹트고 무르익는다.

어찌 국수자랑뿐이랴.

5월1일경기장, 옥류교, 동평양대극장, 청년중앙회관, 빙상관 등 평양에 펼쳐 진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이 온 세상에 자랑을 떨치는듯하다.

이들의 인간관계에 휘말려 들고 이들의 미묘한 사랑의 세계에 말려 들며 다시한번 심취되는 수도 평양의 황홀경이 새롭다.

평양랭면을 자랑하는 흥겨운 노래속에 흐르는 생활, 만사람의 박수갈채속에 은반으로 달리는 빙상무용수의 화려한 률동, 고전의 세계에서 사는 력사학자이면서도 찬란한 래일에 대한 애착을 안고 사는 주인공의 녀동생 미래, 청춘남녀의 사랑의 틈에 끼여 제나름으로 모대기는 긍부정인물들…

형상에는 시종일관 우리의 생활에 대한 뜨거운 애착과 열렬한 긍정의 열정이 굽이친다.

사람들은 웃음속에서, 재미 있는 생활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어버이사랑을 가슴 뜨겁게 받아 안는다.

그리고 옥류관을 다시 바라본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결정체인가 옥류관은 합각지붕을 떠이고 대동강의 풍치를 더욱 돋군다.

《오시라 옥류관으로》라고 부르는듯 하다.

자연이 창조한 온갖 아름다운 꽃들가운데는 향기가 풍기지 않는 꽃들도 있지만 인간의 미적리상에 의하여 창조되는 예술에서 독특한 정서적향기가 풍기지 않는 작품이란 있을수 없다.

《평양랭면》에 빠진 《얼음제비》

아름다운 률동을 펼치며 관람자들의 인기를 독점하는가 하면 달력에까지 올라 더욱 인기 있는 빙상무용수가 옥류관의 료리사에게 반하게 되기까지가 관중들이 보게 된 이 영화의 사랑선이다.

흥미 있는 사랑선이다.

사람들에게 무한히 아름다운 정서를 안겨 주며 은반우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꿈 꾸는 처녀빙상무용수가 료리사를 사랑하게 된다면 이것이 자랑스러운것인가 자문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처녀들을 독점할수 있는 대상을 요란한 위훈을 세운 청년들이나 인기 있는 학자 등으로 내세운 예술작품들이 많기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어떤 규정에 조건지어지는것이 아니다.

빙상무용수가 료리사에게 반하게 되였다는것이 오히려 흥미 있다.

빙상무용수의 시점에서 옥류관료리사의 정신세계가 하나하나 밝혀 진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된 관심이 탄복으로, 사랑으로 이들의 심장과 심장이 합쳐진다.

빙상무용수 류순애는 아낙네들틈에 끼여 국수떡을 주무르는 로총각으로만 보이던 한기가 《민족을 빛내는 청춘이 되려는 애국자》로 거인처럼 돋보인다.

평양랭면을 세계적인 수준에 끌어 올려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제손으로 만든 랭면을 장군님께 올리고 싶은 소원을 안고 사는 인물,

21세기에 모든 청춘들이 자기 맡은 초소에서 이와 같은 꿈과 리상을 안고 아글타글 노력할 때 강성대국의 미래를 더욱 앞당길수있지 않는가.

이들의 사랑이 무르익은 류다른 정서속에 우렷이 솟는것은 바로 이 정신이다.

민족료리로써 민족의 자랑을 세계에 떨치려는 료리사총각과 빙상무용수로서 세계적인 패권을 쥐고 우리 민족의 승리를 빛내이려는 처녀의 정신세계가 꼭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

사회적지향의 공통성이 바로 이들의 사랑의 기초로 된것이다.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여 백두산의 천연감자를 메밀의 첨가제로 리용하여 우리 식의 메밀국수를 만들어 낸 무한기의 성공과 함께 평양랭면에 풍덩 빠져버린 《얼음제비》!

《얼음제비》를 따라 다니며 그들의 사랑을 한사코 막아서던 순애의 삼촌도 《평양랭면》에 《풍덩》…

이들의 무르익은 사랑의 정서속에서 진동하는 영화의 호소는 21세기의 청춘들은 세계적인 패권으로 민족을 빛내는것이다.

《평양랭면》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번지였다.

새해공동사설은 모든 분야에서 강성대국의 체모를 갖추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밝히였다.

우리 땅에 든든히 발을 붙이고 눈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에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시대적요구앞에 예술적형상으로 화답한 텔레비죤예술영화 《옥류풍경》.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는 투쟁의 길에서 사랑하는 주인공들은 우리와 함께 있다.

주체예술의 화원에는 이런 아담한 영화들도 많아야 한다.



예술영화

푸른 견장

주요배역		
리복재	공훈배우	고승룡
광 수		안현철
선 희		신영니
윤 옥	공훈배우	정미숙
차옥금		안창순
려객전무		장철우

창조성원		
영화문학		리희복
연 출		전종팔
촬 영		류승철
미 술	공훈예술가	려영구, 김현철
작 곡	인민예술가	한시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예술영화 《푸른 견장》은 수령결사옹위의 전형인 공화국영웅 리복재를 원형으로 하여 창작된 작품이다.

주인공 리복재는 어깨우에 단 견장의 푸른색을 안전표식의 푸른 신호등처럼 여기며 언제나 인민의 생명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색하고 노력한다.

보안원인 그는 렬차안에서 바뀌여 진 손님들의 가방을 밤새워 가며 찾아 주인들에게 돌려 주며 렬차안에서 알게 된 한 연구사와 그의 딸의 병치료를 극진히 돌봐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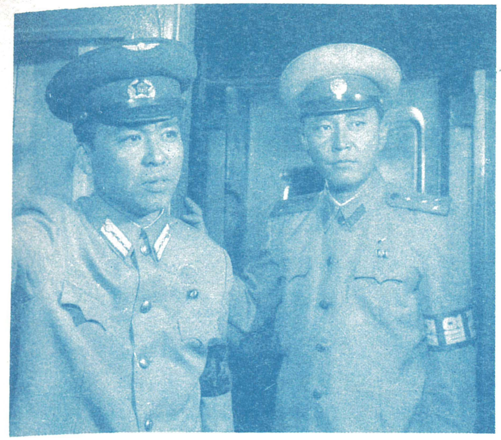
그런가 하면 보안원의 본분에 맞지 않게 권세를 부리며 지어 농업생산을 위해 애쓰는 녀성연구사를 장사군으로 모욕하는 광수를 진정한 인민의 보안원답게 살며 일해 나가도록 원칙적으로 비판하고 이끌어 준다.

그러던 어느 날 렬차안에서 임무수행중에 있던 복재는 적간첩놈과 맞다 들게 된다. 놈이 꺼내든 수류탄이 터지게 될 위기일발의 순간 복재는 한몸을 날려 수류탄을 덮음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위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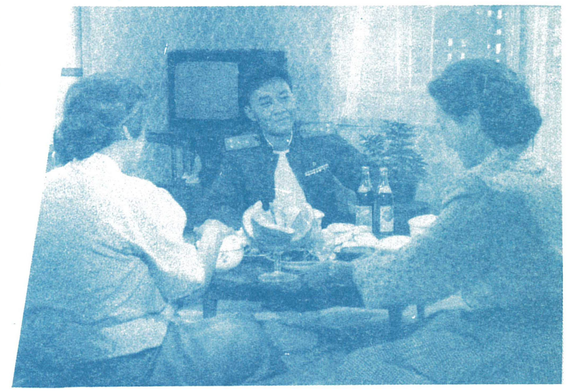
이와 같은 형상을 통하여 영화는 우리의 인민보안원들은 자기 수령을 어떻게 보위하여야 하며 인민의 행복을 어떻게 지키고 가꾸어 주어야 하는가를 깨우쳐 주고 있다.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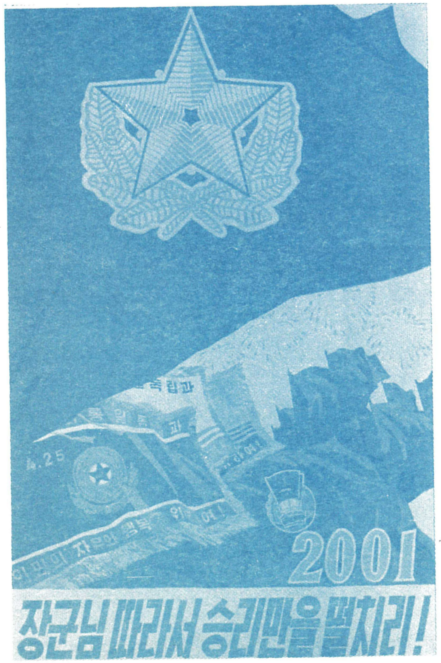
선전화 박명철, 김익현



선전화 전영준, 강성철, 김영삼



선전화 김명건, 주정철, 황정균



선전화 홍용일



선전화 동하도, 심원석, 장성범



선전화 최준호



선전화 박영호, 홍수강

—조선인민군창작사에서—



선전화 최광혁



선전화 정명기



선전화 오광호



선전화 강정표



선전화 리원철

조각의 넋(6)

조각의 생명력에 대한 생각

로력영웅, 인민예술가 오 대 형

위대한 **김정일**시대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미술가들에게 있어서 남다른 긍지와 보람은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고 그이께서 안겨주신 슬기와 약동하는 기백, 창조적힘과 지혜로 산인간형상창조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된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향도의 빛발아래 세인을 경탄시킨 주체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 지던 그 나날에 조각가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 주신 주체의 인간학리론을 조각작품창작에 구현해 나가는 실천과정에 인간을 주되는 대상으로 하는 조각예술의 특성에 따라 조각의 영원한 생명력을 담보할수 있는 요인에 대한 미숙한 견해를 가질수 있게 되였다.

그것은 주체시대의 전형으로 되는 건전하게 발달된 체모와 함께 자주적인간의 숭고한 사상과 도덕, 성격과 심리, 사색과 감정 등 정신활동의 총체로서의 산 인간의 넋이 깃들어야 한다는것이다.

나는 먼저 여기서 조각의 생명력에 대하여 제나름의 모색으로 고심하던 초학도시절 그 언제인가 들은적 있는 고대그리스조각에 깃든 전설을 상기하게 된다.

전설에 담겨진 대략한 내용인즉은 이러하다.

…비스마르크라는이름을 가진 한 조각가가 일생동안 낮과 밤을 이어가며 쉬임없이 대리석에 아름다운 녀인상을 새겨가다 보니 결혼도 못한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백발의 로인이 되였다.

바야흐로 조각이 거의 완성되여가던 어느 날 깊은 밤, 정적속에 울리던 마치소리가 뜸해 지는 순간, 말없이 서있던 녀인상이 조용히 움직이면서 두팔을 벌려 조각가를 그러안으며 《당신이 한생을 바쳐 나를 세상에 없는 미인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안해가 되여 행복하게 해드리겠어요.…》하고 청혼하였다는것이다.

물론 세상에 없는 거짓말이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그 전설은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는 우리 속담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열정이면 차디찬 돌조각에도 온기가 스며 지고 움직일 정도로 생동한 형상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고 보면 조각에 생명을 부여하는 길은 단순하고 명백하다.

정열! 바로 이것이 조각작품의 넋이다.)

성공의 욕망과 창조의 열정으로 가슴을 끓이던 홍안의 그 시절, 극히 소박하고 일면적이던 이러한 상념을 나는 세월의 흐름속에 다시금 새롭게 정립하게 되였다.

사회적인간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평범한 인간과 비범한 인간이 존재하기마련이다.

평범한 인간이라면 비교적 인격에서 특이한 차이가 없기때문에 개별적인 창작가가 일반인물을 작품에 재현하면서 별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는 일 없이 오히려 자기 만의 주관과 허구를 가미하여 그럴듯한 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그와는 달리 비범한 인간, 다시말하여 만민이 우러러 칭송하고 열렬히 흠모하는 위대한 인간형상은 인간과 그 성격을 파악하는 특출한 능력을 가진 탁월한 령도자의 빛나는 예지와 위인적안광이 아니고서는 감히 해결할수 없는 비상히 높은 경지이다.

이로부터 전 사회적이면서도 높은 정치사상적 의의를 가지는 거창한 규모의 대기념비 특히는 수령형상조각에서는 그 영원한 생명력이 개별적인 유능한 조각가 또는 창조집단의 집체적힘과 지혜, 역할에 의해서만 담보되는것이 아니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대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정화, 나라와 민족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과 뜨거운 사랑의 결정체—바로 여기에 주체로 빛나는 우리 로동당시대에 수풀처럼 솟아 난 대기념비조각의 생명력, 수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조각예술의 력사가 찾을수 없었던 산 인간형상의 넋이 깃들어 있는것이다.

그것을 오랜 기간의 나의 체험과 창조과정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

로인의 청

인류는 수십세기를 걸쳐 나라와 민족별로 자기

식의 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나라와 민족이 예술이라는 문화정서적인 수단을 가지고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진행하는 과정에 언어와 풍습이 다르지만 인간과 생활을 진실하게 묘사한 사실주의적예술작품이라면 긍정과 공감, 경탄과 찬사로 세계가 공인하는것은 엄연한 실증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에 만수대창작사를 찾으시여 우리의 조선화에 대하여 앞으로 세계가 공인하게 될것이라고 하신 교시는 현대추상주의미술에 비한 주체사실주의미술의 우월성을 확증하는 뜻 깊은 가르치심이였다.

실제로 우리의 주체미술을 동경하는 세계적인 반향에 대하여 독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나역시 그렇다. 조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체험했으니…

그때가 아마 1980년대 중엽이라고 기억된다.

당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미술은 서방의 추상파미술조류에 심히 오염되여 혼탁속에 헤매고 있었다.

이러한 형편에 처해있는 어느 한 나라에서 국제조각창작경연이 진행되였는데 나는 우리 나라를 대표하여 그 경연에 참가하게 되였다.

당에서는 우리 대표단을 파견하면서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민족미술형식을 가지고 대결할데 대한 방향을 정해주었다.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주최국에서는 먼저 자기 나라의 조각전시관으로 우리를 안내하는것이였다. 보아하니 현 조각의 세계적추세를 알고 경연에 참가하라는 일종의 암시였다. 무엇인지 알수 없는 파철전시장 같기도 하고 막돌무지와도 같은 전람장을 돌고나니 머리가 어지러워져 도저히 견딜수 없었다.

《참관》끝에 안내자는 우리에게 조각의 세계적인 추세를 대체로 이러하니 침착해서 경연에 림하는것이 좋을것이라는 《의견》까지 덧붙이는것이였다.

경연은 시작되였고 우리는 당에서 준 방향대로 우리 식의 조각작품창작에 달라붙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여 온 경연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돌덩어리들을 골라잡고 제나름의 형태를 가공하면서 우리가 하는 사실주의적인 형상기법이 현 추세에 떨어진 《저속한 방법》이라는 눈치까지 보이는것이였다.

저마다 막돌이 생긴데 따라 겉면을 다스리고 있을 때 우리는 막돌을 선녀의 생동한 형상으로 파고 들어 나갔다. 그러자니 시간이 모자랐고 다른데 눈길을 돌릴 경황이 없었다.

드디여 금강의 호수가에서 맑은 물결우에 비낀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 보는듯한 선녀의 형상이 돌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어느날.

사람들이 뒤에서 우리의 작업모습을 지켜보는듯한 느낌을 받고 일손을 멈춘 순간, 나와 눈길이 마주친 한 녀성이 방해를 끼쳐 미안하다는 안색을 지으며 《이곳을 지나던 관광객들인데 좀 구경해도 일 없겠는가》하고 량해를 구하는것이였다. 보니 그 녀성은 안내원인것 같았다.

나는 손에 들었던 마치와 정을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기꺼이 수락해 주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경연참가자들과 수많은 관객들이 나에게로 바싹 조여 들면서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조각기술은 어데서 배웠는가?》《조선녀성들은 이 조각상처럼 곱게 생겼는가?》등의 물음을 숭벽내기로 던지는것이였다.

나는 가슴을 쭉 펴고 대답해 주었다.

《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사는 조선사람이다. 그리고 평양미술대학에서 조각을 배웠다.…》라고.

잠시후, 시간을 재촉하는 안내원을 따라 관광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때, 붐비는 관광객들속에서 움직일줄 모르며 말없이 나를 지켜보는 한 로인이 있었다. 조용해진 틈을 타서 나에게 다가선 그는 손을 자기 입술에 가져다대는 시늉으로 선녀상과 입을 좀 맞추게 해달라는 청을 표시하였다.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더니 로인은 선녀조각상을 정히 그러안고 이마와 볼, 입술에 차례로 자기의 입술을 가져다 대는것이였다. 그러고나서 다시 나를 향해 돌아서더니 가슴에 손을 얹은채 머리를 깊이 숙여 절을 하였다. 무슨 말인가 하고 있었다.

로인은 몇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젖은 눈길로 선녀상을 한참 말없이 바라보고 또 보는것이였다. 주름 깊은 로인의 젖은 눈길에서 많은것을 읽으며 나는 그때 생각했다.

(추상주의 탁류속에 피여 오른 한떨기 아름답고 생신한 꽃을 보고 청춘을 되찾은 환희와 격정에 설레는 이국의 로인의 심정, 그것은 인간의 존엄과 미덕을 생명으로 하는 참다운 예술의 향유자로 살고 싶은 인류의 량심이고 희망이 아니겠는가.…)

오산덕에서

우리 걸어가는 새 세기의 진격로에 해빛같이 밝은 미소를 뿌려주시며 오늘도 서계시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는 어머님의 동상으로 언제나 그리움에 불 타는 심장들이 오산덕으로 대하마냥 굽이쳐 흘러 든다.…

지금도 나의 눈앞에는 20여년전의 회령의 유서깊은 오산덕마루가 어리여 와 눈굽이 젖어듦을 금할수 없다.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에 의하여 회령땅에서 혁명사적지건설이 힘 있게 벌어 지고 있던 주체67(1978)년의 늦은 가을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몇달전에 함경북도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과정에 어머님의 동상을 군복을 입으신 상으로 새로 모실데 대한 교시를 하신 때로부터 얼마 안되여 동상건립을 위하여 나는 현지에서 창조사업중에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동상주변 식수사업에 참가하고 있다는 나이지숙한 한 인민군장령이 나에게로 찾아 와서 어머님의 동상을 한번만 뵈옵게 해달라고 간청하는것이였다.

동상건립사업이 끝나기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보여 주어서는 안되는 엄격한 준칙이 있어 나는 그의 요구를 들어줄수가 없었다.

그날 아쉬움속에 돌아간 장령은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찾아와 《끈질긴 공세》를 들이대는것이였다.

그의 사정을 들어 줄수 없는 그때의 나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는가. 장령의 절절한 하소연과 나의 딱한 립장이 서로 물러서지 않는속에 잠간만이라도 어머님의 동상을 뵙고 싶어 하는 그의 남다른 사연이 설명되였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장령은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정숙어머님의 뜨거운 사랑과 극진한 보살피심속에 자라난 아동단출신으로서 어머님의 동상이 건립된다는 소식에 접하여 자기의 작은 지성이나마 바치고 싶어 출장길에 들렸던 길인데 곧 부대로 돌아 가야 한다는것이였다.

부대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으로 하여 이번에 어머님을 뵈옵지 못하면 제막식에도 참가할수 없는 자기를 좀 리해하고 도와달라는 절절한 호소에 감동되여 나는 조용한 기회를 리용하여 남몰래 장령을 풍막안으로 안내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안에 들어서자 그는 《어머님! 어데 가셨다가 30년만에야 이렇게 오셨습니까?》라고 하면서 오열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옷매무시를 바로하며 차렷자세로 거수경례를 붙이는것이였다.

그를 보는 나의 눈가도 젖어들었고 사람들이 순수 동상으로 대하는것이 아니라 영생의 모습을 우러른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절감할수 있었다.

이런 일이 있은 며칠후, 오산덕에서는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동상모심정형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가리웠던 풍막을 벗기게 되였던것이다.

풍막이 벗겨지는 순간에 가까이는 물론 먼곳에서 일하거나 휴식하고 있던 공사참가자들과 시내주민들이 일시에 어머님동상으로 달려왔다.

그날에 본 인산인해를 나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어머님의 숭고한 모습을 우러러 흐느낌에 목메여 부르고 눈물 짓는 웃음속에 환성을 올리던 그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사무치는 그리움에 어머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서군 했는데 오늘 이렇게 군복을 입고 환하신 미소를 짓고 계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뵈옵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정말 모르겠소.》

그때 수많은 군중들의 하많은 이야기중에는 이런 목소리도 울렸다.

그로부터 몇해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산덕에 모셔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으시고 매우 만족하시여 여러차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는 소식에 접했을 때 우리 창조집단의 격정은 어떠했으랴.…

어머님의 동상건립이 최상의 수준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이 위대하고 령도가 현명하였기때문이였다.

처음에 우리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어머님께서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시기때문에 근엄한 자세, 엄숙한 모습으로 되여야 한다는 주견을 세우면서 초안도 그러한 방향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항일혁명선렬들은 산에서 싸울 때 다리에 행전을 친것이 전형이므로 장화를 신으신 모습으로 형상하는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까지 내놓았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지에게는 사복보다 군복이 더 어울리며 얼굴모습은 산에서 싸울 때 자신과 함께 찍은 웃는 모습이 제일 좋다고 하시며 구체적인 창작방향을 밝혀 주시였다.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머님께서 진달래꽃을 안으시고 환히 웃고 계시는 모습으로 형상하도록 하여 주시였을뿐만아니라 군복을 입으신 어머님께서 행전을 착용하신것으로 하는것보다 장화를 신으신것으로 형상하는것이 더 좋겠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은 바로 이렇게 되여 우리 인민 그 누구나 마음의 고향으로 부르며 간직하고 사는 회령의 오산덕에 높이 모셔 지게 되였다.

수령결사옹위의 최고화신, 21세기의 태양을 받들어 올리신 위대한 어머님의 불멸의 모습은 오늘도 태양의 영원한 빛발을 찬연히 뿌리고 있다.

그러니 주체시대 우리의 모든 조각, 모든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지니게 되는 생명력은 그 어느 개별적인 전문가들의 재능과 열정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원한 사색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되는 가장 고귀한 결실인것이다.

20세기와 더불어 21세기에도 우리는 강성대국으로 빛나는 이 땅우에 시대의 기념비들을 더많이, 더 훌륭하게 일떠세워야 한다.

그 모든 기념비들과 조각작품들에 주체시대혁명의 넋을 심어 그의 생명력을 영원히 담보해 나가야할 중하가 우리 조각가들의 어깨우에 영예롭게 지워 져 있다.

◇ 창작수기◇

고충—그것은 응당한 《봉변》

손 광 수

텔레비죤예술영화 《옥류풍경》에 대한 창작수기를 쓸데 대한 편집부의 청탁을 받고 보니 이 작품을 놓고 고심하던 지난날이 다시금 되새겨 진다.

초고단계때까지만 하여도 이 작품의 제목은 《사향가》였고 주인공도 지금처럼 옥류관의 국수료리사인 무한기가 아니라 빙상무용수인 류순애로 되여 있었다.

또한 작품의 기본줄거리도 지금과는 달리 순애가 한기와의 오해과정에 옥류관에 깃든 백두산3대장군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 알게 되면서 빙상무용의 주제곡을 《사향가》로 바꾸는것으로, 이렇게 1인조형을 완성한 순애가 국제경기에 나가 공화국기를 올리는것으로 되여 있었다.

이러했던 작품이 왜 제목으로부터 주인공설정, 이야기흐름이 바뀌여 지게 되였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떤 작품을 보면 일정한 이야기거리도 있고 재미나는 일화도 있지만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데 흔히 이런 결함은 사상적알맹이를 잡지 못한채 형상을 꾸며 내는데서 생긴다.》

미리 부언하건대 내가 6개월나마 진통속에 모대기게 된것은 바로 종자를 옳게 잡고 그에 맞게 형상을 창조할 대신 주관적인 욕망을 앞세웠던것과 관련된다.

땅에 씨앗도 심어 놓지 않고 좋은 열매를 바라는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것인가.

내가 옥류관과 빙상관을 소개하는 영화를 창작할것을 결심한것은 어느 가을날 학생들을 데리고 대동강반에 나가 이동강의를 하던 그때부터였다.

학생들과 함께 청류벽이며 부벽루 등을 오르내리며 평양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 아름다운 자연경치에 대해 해설해 주던 나는 대동강물결우에 그림처럼 비껴 진 평양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연히 생각이 깊어 졌다.

위대한 로동당시대를 자랑하듯 대동강반에 일떠선 문수거리 그리고 주체사상탑과 5월1일경기장, 동평양대극장과 청년중앙회관, 옥류교와 청류다리, 옥류관…

오직 대자연의 풍치만을 담아 안고 흘렀을 대동강물결우에 펼쳐 진 로동당시대의 장쾌한 풍경을 바라볼수록 이 위대한 전변을 마련해 준 위대한 사랑에 대하여 노래하고 싶은 창작적충동을 금할수가 없었다.

그러면 어디에 발을 붙이고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펼쳐 나갈것인가.

거듭 고심하던 끝에 나는 빙상관과 옥류관을 무대로 하고 그에 깃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노래할것을 결심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 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 청년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정신세계, 지향세계를 밝혀 내리라 생각하였다.

위대한 사랑을 가슴깊이 새겨 안고 조국을 빛내여 나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생활을 펼쳐 보이자!

이미 텔레비죤예술영화 《갈매기》를 창작해 본 경험이 있는지라 나는 대뜸 빙상무용수인 순애를 주인공으로 하고 그가 한기를 통하여 평양랭면과 옥류관에 깃든 백두산3대장군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과 은정을 새겨 안는것으로, 이 과정에 순애가 새로 창작하는 1인조형작품의 주제곡을 이미전부터 주장해 오던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쯔가 아니라 위인들의 숭고한 세계가 비껴 있는 《사향가》로 바꾸어 형상을 완성함으로써 국제경기에 나가 공화국기를 휘날리는것으로 이야기를 펼쳐 나갔다.

이렇게 서둘러 초고를 완성하였으나 륜독과정에 수많은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인물관계가 석연치 않은것은 물론 제목과 주제가 서로 잘 융합되지 않으며 특히는 기본생활무대, 묘사대상이 옥류관과 평양랭면인지 아니면 빙상관과 빙상무용인지 이야기흐름이 분산된다는것이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수중무용과 비슷한 빙상무용을 전면에 내세우면 이미 나온 《갈매기》와 어슷비슷하여 형상적효과를 볼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비대로 옥류관과 평양랭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문학의 주제대상이 될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거침없이 쏟아 지는 의견앞에서 나는 당황하였고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다른 의견들은 다 일리가 있었지만 《될수 없다》는 의견에는 동감할수가 없었다.

취재과정에 눈물겹게 체험하였지만 옥류관과 평양랭면에는 그 얼마나 가슴 뜨거운 사연들이 깃들어 있는것인가.

백두산시절 어버이수령님께서 언감자국수에 대하여 들려 주시며 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애국의 넋을 키워 주신 이야기, 항일의 나날 어느 음력설날 김정숙어머님께서 통졸임통으로 만든 국수분틀로 성의껏 만든 국수를 어버이수령님께 올리셨다는 이야기, 평양의 가장 풍치 수려한 대동강반에 옥류관을 건설해 주시고 개관식날 항일혁명투사들을 초청하시여 랭면을 드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함께 돌아 오지 못한 대원들을 그리시며 조용히 《사향가》를 부르시였다는 이야기, 광복후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남조선의 민주인사들이 만경대를 찾아왔을 때 김정숙어머님께서 손수 대접해 주신 메밀랭면과 닭고기육수물…

어찌 그뿐이겠는가.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인민을 위하여 그리고 민족의 자랑인 평양랭면을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마련하여 주신 옥류관의 《고기쟁반국수》.

참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시는 백두산3대장군의 숭고한 사랑이 뜨겁게 어리여 있는 평양랭면이고 그 사랑을 전해 주는 옥류관인것이다.

그런데 왜 작품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가.

다시금 초고를 한장한장 번지며 모대기던 나는 내가 심한 주관에 빠졌었다는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사실 순애를 주인공으로 설정한것은 빙상무용수로서의 우아함을 시각적으로 조형화하여 보여 줄수 있는 형상적효과를 먼저 생각하였기때문이다.

그러다나니 옥류관을 기본으로 보여 주는 작품에서 옥류관료리사 무한기가 부차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평양랭면에 깃든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한갖 덕성이야기로 되였던것이였다.

문제는 빙상무용수 순애를 통하여 빙상관과 옥류관, 평양랭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며 이 과정에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상한 지향세계를 밝혀내겠다는 주관적욕망만 앞세우던 나머지 종자를 바로 찾고 그에 기초하여 형상을 심화시키지 못한데 원인이 있었다.

결과 주인공의 몫이 뚜렷치 못하고 생활무대, 이야기흐름도 분산되게 되였으며 나중에는 평양랭면이 문학의 주제대상으로 될수 없다는 혹평까지 나오게 된것이였다.

이미 써놓은 초고를 뒤집어 엎고 나는 대동강반에 나와 다시 사색하기 시작하였다.

훨훨 날아 예는 기러기떼인양 대동강기슭에서 자기의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옥류관, 오랜 력사와 더불어 창창한 래일을 과시하는듯한 푸른색의 청기와합각지붕, 준엄한 《고난의 행군》속에서도 승리에 대한 신심과 랑만에 넘쳐 그앞을 붐비며 오고 가는 남녀로소들, 시원한 랭면을 맛나게 들며 행복에 겨워 하는 단란한 가정…

이것이야말로 로동당시대가 낳은 대동강의 새 풍치가 아니겠는가.

나는 다시금 옥류풍경에 대해 음미해 보았다.

옥류관과 평양랭면을 통해 안겨 지는 옥류풍경,

그것은 백두산3대장군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이 어리여 있는 천하제일절경, 로동당시대의 새 풍치인것이다.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한 사랑이 비껴 있는 옥류풍경.

그에 기초하여 나는 주인공을 한기로 정하고 그의 성격을 파고 들었다.

이 과정에 얼핏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평범한 평양랭면을 세계적인 수준에 끌어 올려 자기 수령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온 세상에 떨치기 위해 사색하고 분투하는 그의 성격적핵을 찾아 쥘수 있었다.

기본문제점에 기초하여 주인공의 성격을 확정하고나니 전반적인 형상문제는 어느정도 수정보충하기만 하면 되였다.

그리하여 오늘과 같이 옥류관과 평양랭면, 빙상관을 소개하면서도 단순한 국수 하나를 놓고도 수령의 업적을 빛내이고 민족을 떨치려는 한기와 빙상무용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쥠으로써 조국을 빛내려는 순애의 형상을 통하여 제각기 맡은 부문에서 민족의 영예와 자랑을 떨치는 청춘! 이것이 21세기에 살 우리 청춘들의 인생관으로 되여야 한다는 사상을 다소나마 밝혀 냈다고 본다.

이처럼 주인공이 류순애로부터 무한기로 바뀌여 지기까지에는 무려 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렸다.

그 기간 내가 겪은 고충을 어찌 한두마디의 글로 다 적을수 있으랴.

이번 《옥류풍경》의 창작과정에 겪은 고충은 종자를 바로 잡고 그에 기초하여 형상을 창조할 대신 주관적욕망만 앞세웠던 결과에 차례진 응당한 《봉변》인것이다.

조선민요에서 형식구조형성원리의 일반적합법칙성과 그 특성

손 창 준

우리 인민의 집체적지혜와 예술적재능에 의하여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 온 조선민요의 우수한 성과들을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음악창작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현시기 음악예술부문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특히 민요의 각이한 분야들가운데서도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분야라고 할수 있는 조선민요 형식구조형성원리의 일반적합법칙성과 그 특성을 옳게 인식하는것은 민족음악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민요 형식구조의 형성원리에서 근본기초로 되는것은 전렴과 후렴이며 이 전렴과 후렴에 의하여 음악구조 형식이 이루어 진다.

일반적으로 성악음악인 가요는 전렴과 후렴으로 구성되며 이것은 음악형식구조 형성원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성악음악인 가요에서 음악구조는 음악에서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악구, 악단, 악절에 의한 음악형식 구성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자기의 합법칙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로인민대중이 창조한 조선민요에서 구조형식은 우와 같은 형식구조원리가 내포되여 있으면서도 자기의 고유하고 독특한 형식구성원리를 가지고 있다.

인민에 의하여 발생발전하여 온 조선민요들은 거의 모두가 절가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가형식은 서로 묻고 대답하는 대구적인 특성을 가진다.

그것은 조선민요 발생자체가 인민대중의 로동생활과 밀접히 결부되여 있을뿐아니라 집단적인 가창형식에 기초를 두고 있기때문이다.

또한 민요가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 생활의 노래인것만큼 거기에 적용되는 표현형식들 역시 민족의 생활정서에서 우러나온 형상수단과 형상수법들에 기초하여 창작되였기때문이다. 조선민요가 가지는 이러한 전렴과 후렴은 독특한 대구적인 특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 전통적인 민요의 형식구조형성원리에서 근본기초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절가형식은 가사와 곡에서 주고받는 대구적인 구조를 가지므로 간결하면서도 풍부한 내용을 담을수 있는 우월성이 있다. 절가형식이 가지는 전렴과 후렴의 대구적인 특성은 집단적인 가창생활과정에 인민대중의 재능에 의하여 형성된 인민적인 요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민요형식이 가지는 대구적인 특성은 간결한 구조의 절가적인 반복을 통하여 많은 내용을 담으면서도 사상주제적 및 음악형상적통일을 보장하는데서 커다란 효과를 나타내게 한다.

우리 나라 전통적인 민요들에서 전렴과 후렴의 대구적인 특성은 매우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 민요가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되는것은 그자체가 근로하는 인민대중의 집체적인 지혜에 의하여 로동과 생활속에서 직접 창조되고 보충완성되였을뿐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치는 우리 인민의 풍부한 음악창조와 활동과정에 그 우월성이 실천적으로 뚜렷이 확증되였기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민요에서 음악형식구조의 근본기초로 되는 전렴과 후렴의 형성발전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첫째로; 우리 민요에서 전렴과 후렴의 형성은 집단적인 로동생활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예로부터 뛰여 난 예술적재능을 지닌 우리 인민들은 춤과 노래를 무척 즐겨 하였으며 모든 로동생활 과정에 집단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창조적인 로동을 하였다.

특히 우리 인민들은 농업로동, 어업로동, 토목로동 등 모든 생산로동과 그에 따르는 매 작업공정마다에서 자기 로동에 알맞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으며 이러한 로동가요들은 거의 모두가 먹이는 소리와 받는소리로 되여 있다.

이것은 로동생활과정과 가창실천에서 생겨난것이여서 생활적인 진실성과 합법칙성을 보유하고 있다.

집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는데는 동작의 일치성이 필요하므로 전체 집단은 웨침소리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움직였으며 또 그것을 계속 반복하여 노래를 불렀다.

여기서 집단이 웨침소리의 화창으로 노래 부르고 한사람이 목청좋게 먹이는 가창방법이 생겨난것이다.

수인목판화에서 화면의 흰 여백과 그의 표현적특성

김 휘 웅

화면의 흰 여백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는것은 수인목판화의 화법적특징에 대한 리해에서 나서는 관건적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반적으로 유인판화는 명암대조의 원리에 기초하여 대상을 그려 내지만 수인목판화는 화면의 흰 여백과 대상물의 형태를 대조시키는 방법으로 이 원리를 특색 있게 구현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수인목판화화법의 기본특징은 화면의 흰 여백과 대상물의 형태를 대조시키는 방법으로 판화적형상을 창조하는것이다.

화면의 흰 여백과 대상물의 형태를 대조시키는것이 수인목판화화법의 기본특징으로 되는것은 이 방법이 수인목판화의 공간구성, 형태묘사, 색채표현, 새김과 찍음의 전 과정을 관통하면서 하나의 화법적체계를 이루는 원리적작용을 하기때문이다.

그러면 화면의 흰 여백이란 무엇인가?

원래 흰 여백이란 흰 종이나 천, 벽체 또는 그와 같은 사물에서 흰 바탕그대로의 빈 자리를 말한다.

회화적형상창조원칙의 견지에서 볼 때 화면에 빈 자리란 있을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선화나 수인목판화작품들에서 바탕그대로의 흰 여백들을 흔히 볼수 있다.

작품들에서 보게 되는 흰 여백들은 단순한 빈자리가 아니라 묘사대상들과 대조되면서 중심을 조형적으로 돋구어 내거나 부차적인 대상들에 대한 함축과 비약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깊은 정서적여운을 주고 있다.

이것은 화면의 흰 여백이 조형적형상창조에서 일정한 형상적요구를 실현하는 표현요소의 하나임을 말하여 준다.

그 어떤 묘사도 가해지지 않은 여백부분들이 자기의 몫을 차지하는 표현요소로 되는것은 화면의 흰 여백이 조형언어적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징표들을 가지고 있는것과 관련된다.

우선 화면의 흰 여백은 자체의 바탕색을 가지고 있다.

화면의 흰 여백이 가지고 있는 바탕색은 무채색에 속하는 흰색이다.

회화의 색채는 크게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나누어 본다.

유채색은 기본3원색과 그 갈래로 다시 나누어지며 무채색은 검은색과 흰색으로 나누어 진다. 흰색은 회화의 형상창조에서 다른 유채색들과 조화될 때 사물의 형태를 색채적으로 선명하게 표현하는데서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또한 흰색은 색채계렬에서 그 밝음도가 가장 높은것으로 하여 어떤 색과도 대조되는 속성을 가진다. 뿐만아니라 화면바탕의 흰색은 명암적측면에서 놓고 볼 때 가장 밝은 상태라고도 할수 있다.

이것은 화면의 흰 여백이 선이나 점, 명암 등처럼 이여의 회화적표현수단들과 같은 조형언어적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화면의 흰 여백이 조형언어적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징표를 가지고 있다는것은 그의 률

이것은 작업행동(받는소리)과 다음 동작을 준비하는 시간(먹이는 소리)과의 흐름의 일치성을 보장하려는 목적과 긴밀하게 련관되여 있다고 말할수 있다.

둘째로; 우리 민요에서 전렴과 후렴의 형성은 로동가요뿐아니라 인민적인 합창륜무가요에도 바탕을 두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선창자가 부르는 먹이는 소리와 군중이 화답하며 부르는 받는 소리가 있다.

이때 먹이는 소리와 받는 소리는 로동과 관련된 동작과는 달리 춤을 추기 위한 률동과 관련되여 있다.

로동가요와 륜무가요에서 받는 소리는 로동적이며 률동적인 리듬과 힘찬 호소의 기백을 가지며 이와 반대로 먹이는 소리는 많은 경우 서정적이며 즉흥적인 성격을 띠는것이 일반적이다.

로동가요와 륜무가요에서 형성된 먹이는 소리와 받는 소리는 인민서정가요의 창작과 가창실천에서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그 과정에 먹이는 소리는 전렴부분을, 받는 소리는 후렴부분을 형성하는 원칙이 자연스럽게 조성되게 되였다.

(다음호에 이음)

질재료적측면을 통하여 찾아 볼수 있다.

회화의 선과 점이 붓이나 먹, 채색안료를 떠나 표현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생각할수 없듯이 화면의 흰 바탕색도 회화적형상창조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본바탕재료라는 물질적기초를 떠나 그 존재를 생각할수 없다.

이로부터 화면의 흰 여백은 회화의 표현수단들이 가지고 있는 조형언어적이며 물질재료적징표들을 체현하고 있다고 할수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조형언어적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화면의 흰 여백은 그것이 묘사대상의 형태들과 대조될 때만이 비로소 조형언어적작용을 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 화면의 흰여백이 조형언어적이며 물질재료적인 징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여의 회화적언어수단들과 구별되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묘사대상과의 대조를 전제로 하는 흰여백의 조형언어적작용은 화면에서 높은 표현성, 함축성, 정서성을 나타낸다.

우선 화면의 흰 여백은 높은 표현성을 나타낸다.

화면의 흰 여백은 그자체가 가지고 있는 흰 색채로 하여 그 어떤 묘사대상과도 대조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형태적으로 명확하거나 불명확한것, 색채적으로 진한것과 연한것, 명암이 강한것과 약한것 등 모든 대상들과 대조되며 그것들을 선명하게 드러내게 한다. 그러므로 형상창조에서 화면의 흰 여백은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과 창작가들의 묘사적기교를 보다 뚜렷하게 보여 줄수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조형적형상의 높은표현성을 가지게 한다.

다음으로 화면의 흰 여백은 높은 함축성을 가진다.

화면의 흰 여백이 높은 함축성을 가진다는것은 화면의 흰 바탕색으로 현실의 묘사대상들의 색채를 특정 짓거나 생략하는것과 관련된다.

수인목판화 《첫눈》(함창연작)에서는 눈내린 주위환경의 색채를 흰 바탕색을 그대로 리용하여 현실의 색채적느낌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수인목판화 《만경봉의 샘물터》(김철강작)에서는 주인공들이 서 있는 지면과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만경봉까지의 공간에 대한 묘사를 흰 여백으로 생각하면서 형상의 함축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한 실례들은 수인목판화만이 아닌 조선화작품들에서도 수많이 찾아 볼수 있다.

이것은 화면의 흰 여백으로 현실의 묘사대상들의 색채를 특징짓거나 묘사의 생략을 함으로써 형상의 함축을 보장한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므로 화면의 흰 여백은 함축성을 가진다고 할수 있다.

또한 화면의 흰 여백은 높은 정서성을 산생시킨다.

화면의 흰 여백과 대상물의 형태를 대조시키는 방법으로 형상된 수인목판화작품들에서는 주제사상적내용을 보여 주는 본질적측면들이 뚜렷하게 강조되고 부차적인것들은 함축되거나 생략되면서 조형적형상의 간결성을 보장함으로써 작품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화면에 표현되지 않은것까지도 련상적으로 그려 보게 한다.

련상은 어떠한 대상을 대할 때 그것과 관련된 다른것을 그려 보는것으로서 그 과정은 일정한 정서상태에서 진행된다고 할수 있다. 말하자면 련상 그자체는 정서가 아니지만 련상적으로 그 무엇을 그려 보는 과정은 이러저러한 대상들에 대한 구체적표상을 하는 심리적과정으로서 생각하는 대상에 대한 일종의 정서적감정을 동반하게 된다는것이다. 더우기 미술작품에 반영된 아름다운 생활과 자연의 구체적형상으로부터 오는 련상은 보다 풍만한 정서적감정을 동반하게 된다.

이것은 화면의 흰 여백이 그자체로서는 무의미하지만 묘사대상들과의 대조에 기초하여 사람들에게 시각적련상을 불러 일으킬 때 높은 정서적여운을 산생시킨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따라서 화면의 흰 여백은 높은 표현성, 함축성과 함께 정서성을 산생시킨다고 할수 있다.

화면의 흰 여백이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표현적특성들은 어디까지나 조형적형상창조의 직접적담당자인 화가의 주동적인 형상적의도에 의하여 발현되는것이다.

이 모든것을 통하여 우리는 화면의 흰 여백이 결국 화가의 의도에 따라 형상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조형적표현요소라는것을 알수 있다.

수인목판화에서는 바로 이러한 조형적표현요소를 형상창조에 적극 리용하는것으로 하여 공간구성, 형태묘사, 색채표현, 새김과 찍음에서 유인판화와 다른 화법적특징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화면의 흰 여백과 대상물의 형태를 대조시키는 수인목판화의 화법은 함축을 전제로 하는 판화일반의 특징과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전통적인 조선화의 형식을 토대로 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민족적풍격이 짙은 화풍을 다양하게 창조할수 있는 우월한 판화법이다.

우리는 화면의 흰 여백을 리용하는 수인목판화 화법에 대한 리해를 보다 폭넓게 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풍부화시켜 판화분야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나가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평론◇

경희극작품에서 웃음과 오해선의 설정

학사 명 일 식

경희극에서 웃음은 매우 중요한 기본요구의 하나이다.

꽃이 없는 화원을 생각할수 없듯이 웃음이 없는 경희극이란 있을수가 없다.

경희극은 오늘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온갖 낡고 뒤떨어 진 사상잔재와 현상을 웃음을 통해 비판하는 사상교양의 힘 있는 무기로 발전하여 왔다.

하지만 새 세기 오늘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부정을 폭로규탄하고 결렬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현실생활속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낡은 사상의 잔재요소들을 웃음으로 비판하고 교양개조하여 다같이 손 잡고 전진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생활과정에 우리는 자기는 다 옳다고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빚어내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된다.

그러한 현상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학적인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이러한 웃음이 예술에 반영되면 바로 경희극적 웃음의 색갈을 가지게 되며 그 웃음을 기본으로 하여 경희극적양상의 작품이 창작되게 된다.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우리 시대 경희극의 주되는 웃음의 정서적색갈은 밝고 명랑하며 해학적이고 동지적인것이 특징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희극은 웃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하는 사색적인 예술입니다.》

웃음을 생명으로 하는 경희극에서 웃음의 계기를 잘 설정하고 그 정서적색갈을 잘 살려 내는것은 작품의 인식교양적의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웃음을 잘 조성하기 위해서는 오해선을 능란하게 활용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에 대한 모범을 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창작한 경희극 《편지》, 《동지》, 《웃으며 가자》들에서 찾아 볼수 있다.

경희극 《편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인민군군인들의 혁명적군인정신과 군민일치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보여 주는 정극적인 생활과 함께 웃음이 저절로 나오게 희극적인 생활과 오해선을 잘 설정하고 있다.

경희극 《편지》에서 희극적인 생활과 오해선은 생산지도원 허풍기와 양수기운전공 돈순호의 희극적인 성격에서 많이 찾아 볼수 있다.

허풍기는 오늘 농촌현실생활속에 적지않게 남아있는 부정적인 허풍과 형식주의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이고 다 옳다고 생각하는 희극적인 인물이다.

허풍기는 뜨락또르의 다이야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을에 쌀을 주기로 약속하고는 사방으로 불이 나게 뛰여 다닌다.

그리고 김매기판정검열을 나온다는 말을 듣고서는 길옆에 있는 논들만 김을 매고 안골에 있는 논들은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런데 검열성원들이 와서 안골논들부터 먼저 보자고 하자 허풍기는 바빠 맞아 돌아치면서 검열성원들과 사업할 물고기와 음식을 마련하느라고 분주탕을 피운다.

허풍기의 이 그릇되고 희극적인 성격은 인민군군인들의 원칙적인 행동으로 하여 즉 그들이 안골논부터 먼저 깨끗이 김을 맨것으로 하여 오히려 높은 평가까지 받게 되는것으로 더욱 승화된다.

뜻밖의 검열결과를 놓고서 놀라는 허풍기의 행동에서 웃음은 저절로 생긴다.

허풍기의 성격에서 나오는 이런 희극적인 웃음은 또한 자기의 딸 미옥이와 양수기운전공 돈순호와의 사랑관계에서 생기는 오해선에서도 볼수

있다.

경희극에서 오해선은 웃음을 낳는 기본수법으로 된다.

경희극 《편지》의 사랑관계속에서 벌어 지는 오해선들이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이 경희극에서 허풍기는 딸 미옥이의 대상자인 돈순호를 놓고 처음에는 군대에도 나가지 못한 청년으로 나무라며 맺히지 못했다고 좋아 하지 않는다.

그러다 돈순호가 련대장의 친척벌이 된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가 달리 보인다고 좋아 하면서 몇가지 특별과업까지 준다.

돈순호는 허풍기의 특별과업을 자기에 대한 《검열》의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기뻐 하며 성실히 집행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특별과업은 끌끌한 총각 하나 선정하는것이였다.

돈순호는 그 말에 크게 실망한다.

그것은 허풍기가 요구하는 그 끌끌한 총각이 딸 미옥이의 대상자를 두고 하는 말인줄로 오해했기때문이다.

그러다 그 총각이 자기의 애인 미옥이의 대상자가 아니라 관리위원장 옥심이의 대상자라는것을 알고서는 너무도 기뻐서 춤까지 춘다.

여기서 오해선은 다시 옥심이의 대상자가 련대장 철석이라는데 쏠리게 된다. 그것은 련대장 철석이가 돈순호에게 옥심이의 대상자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기때문이다.

돈순호는 련대장의 말을 듣고 옥심이의 대상자가 련대장자신인줄로 알고 그 말을 허풍기에게 전한다. 허풍기는 돈순호의 그 말을 완전히 인정하고서 특별과업을 잘 수행한 돈순호를 자기의 사위가 다 된것처럼 여기면서 이제부터는 아버지라 부르라고까지 한다.

그러다 련대장의 안해가 찾아 오자 허풍기는 아연해 하며 굳게 믿었던 돈순호를 다시 나무라며 무시해 버린다.

돈순호는 허풍기의 이러한 행동에 더는 격분을 참지 못하여 머리로 벽돌장까지 깨는척한다.

한편 관리위원장 옥심이의 어머니는 딸의 혼사문제를 놓고 의논하다가 사진 한장을 허풍기에게 준다.

그 사진은 허풍기의 손에서 돈순호의 손을 거쳐 련대장의 손에 갔다가 옥심이의 손에 되돌아 오면서 옥심이의 기본대상자는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서 영웅이 된 성근이라는것이 알려지는것으로 오해선은 다 풀리고 이 과정에 희극적인 웃음이 생겨 나게 되는것이다.

희극적웃음이 생겨 나는 오해선이 잘 설정된 모범은 경희극 《동지》에서도 볼수 있다.

이 경희극에서 오해선은 처음 사단장 정광철이 병사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를 진짜 신입병사로 알고 벌어지는 생활속에서 나온다.

소대장 장득호를 비롯하여 분대장 석중팔, 상급병사 지일섭, 장대철, 초급병사 손기택, 병사 방시남은 정광철을 진짜 병사인줄로 알고 그를 제일 마지막병사로 대한다.

때문에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생활들이 기본적으로 다 오해선에서 진행되지만 특히 희극적웃음이 많이 나오게 되는것은 부사단장의 식사인 《면가마밥》에 대한 오해선이다.

병사생활을 하는 광철은 자신도 모르게 부사단장식사준비로 고기잡이에 나간다.

소대장을 비롯하여 초급일군, 병사들은 부사단장의 식사준비에 신경을 크게 쓴다.

그런데 정광철의 자의적인 결심으로 부사단장의 식사가 몸이 불편한 방시남병사에게로 돌려진다.

이것으로 하여 큰 소동이 벌어 지며 크게 문제가 선다.

대철은 자기가 수염이 나기 시작해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말하며 병사교양을 잘못했다고 한다.

광철이 이들에게 《면가마밥》을 없애는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고 하자 더 크게 놀라 떠들며 교양대책까지 세운다.

그럴수록 오해는 더 커지며 웃음도 더 커진다.

이밖에도 이 경희극에는 방시남의 누이동생을 데리고 온 사단장의 안해 한순이와 광철이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듣고서 놀라는 병사들의 이야기속에도 오해선이 잘 설정되여 있으며 웃음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

경희극적웃음이 나오는 오해선이 잘 설정되여 있는것은 경희극 《웃으며 가자》에서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련습을 진행하는 과정에 《가짜남편》을 련락병으로 등장시켜 벌어지는 희극적인 생활들에서 볼수 있다.

홍왈규지도원은 《가짜남편》리명수를 보고 애처가로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해군정찰로 오해하고 단속까지 한다.

그리고 주인공 보금의 시아버지 덕배는 명수가 며느리를 홀리는 녀석으로 여기고 욱욱 벼르다가 나중에 사연을 알고는 《내 아들아.》하고 포옹까지 하게 된다.

이 과정에 희극적웃음은 더 커지며 경희극으로서의 희극적특성은 더 돋구어진다.

이상에서 본바와같이 경희극에서 경희극적웃음은 잘 설정된 오해선에서 생겨 나며 희극적특성을 살려내는데 큰 작용을 한다.

우리 작가들은 경희극창작에서 웃음과 오해선을 더 잘 설정함으로써 희극적성격이 뚜렷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경희극을 더많이 훌륭히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가극문학의 이야기줄거리조직방법

전 수 철

오늘 우리 가극창작가, 예술인들앞에는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 나가는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숭엄하고 벅찬 생활을 아름답고 감동깊이 형상한 가극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 무거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극문학창작가, 예술인들이 가극문학의 형상적특성을 옳게 살려 낼수 있는 가극이야기줄거리조직방법에 대하여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극에서 이야기줄거리는 선이 굵고 간결하여야 하지만 생활은 섬세하고 풍부하게 그려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바와 같이 가극의 이야기줄거리는 첫째로 선이 굵고 간결하여야 한다.

이야기줄거리를 굵고 간결하게 엮어 나간다는것은 인물의 성격과 그 호상관계의 발전과정을 비교적 명백하고 뚜렷하게 보여 줄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이야기줄거리를 굵고 간결하게 엮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주인공이 부르는 첫 노래를 작품의 첫 머리에서 인상 깊게 심어 주고 그것을 가극의 기본사상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들에서 반복하도록 해야 한다.

가극에서 주인공이 부르는 첫 노래는 일반적으로 주제가사 또는 기둥가사로 심화되면서 가극줄거리의 기본선을 제시하며 그 노래가사의 상을 가극이야기의 몇개 단락에 깊이 심어 주며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을 이야기줄거리의 흐름을 따라 굵직하게 펼쳐 보일수 있게 한다.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에서 주제가사 《설레이는 밀림아 이야기하라》는 가극의 서장과 제3장, 종장에서 반복되여 울리면서 이야기줄거리의 흐름을 굵직하게 엮어 주고 있으며 혁명가극 《피바다》에서 기둥가사 《녀성들도 모두다 힘을 합치면》은 이야기발전의 중요대목들에서 여러번 반복되면서 혁명을 인식한 어머니의 성격장성과정을 깊이 있게 보여 주고 있다.

가극문학작가는 생활에서 찾아 쥔 사상적알맹이나 사회적문제성을 주제가사나 기둥가사에 깊이 심어 주는것과 함께 그것을 형상으로 꽃 피워 갈수 있는 여러가지 이야기줄거리조직방법을 잘 살려 나가야 한다.

혁명가극 《피바다》에서는 수난의 《피바다》가 투쟁의 《피바다》로 된다는 명작의 종자를 집중적으로 보여 줄수 있도록 두 《피바다》장면을 작품의 첫 머리와 절정장면에 설정하여 대조적표현성이 강하게 엮어 나가고 있는가 하면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에서는 주인공 최병훈이 왜놈들의 충실한 《개구장》으로 되는 운명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관중으로 하여금 이야기흐름과 그 결과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도록 하며 극발전자체의 흐름도 주인공이 심각한 극적체험을 하도록 하여 주고 있다.

또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서는 순희의 실명과 오빠의 체포, 어머니의 머슴살이와 죽음, 순희와 꽃분이의 리별, 700리 머나먼 타향길과 오빠의 죽음, 순희의 행불과 꽃분이의 항거와 같은 상대적으로 완결된 작은 이야기들을 기본이야기줄거리선상에서 내적으로 련결시켜 덧쌓아 주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조직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에서는 제3장 4경에서 시련의 언덕과 사선의 고비를 헤치며 부대를 찾아 가는 과정에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장군님만을 그리는 연옥이의 꿈세계로 감정적앙양을 조성한 뒤에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끊어 버리고 제4장 1경에서는 참대숲이 무성할 때 떠나갔건만 흰눈이 쌓이도록 오지를 않는 연옥이네를 안타까이 그리워 하는 군의소 간호원들과 세포위원장의 생활을 펼쳐 주어 먼저 벌어 진 이야기에 대한 아쉬움과 초조감, 기대와 념원 등 다양한 정서를 조성하고 또다른 이야기에서 새로운 흥미와 기대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가극의 이야기줄거리조직방법에는 또한 가극 《연풍호》, 《은혜로운 해빛아래에서》, 《청춘과원》, 《남강마을녀성들》에서와 같이 어떤 실재한 인물이나 사실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조직하는데 맞게 시작된 이야기를 절정을 거쳐 다시 처음의 계기에로 돌아 오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가극문학작가는 이밖에도 여러가지 이야기줄거리조직방법을 활용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집약하고 함축하여 주되는것만을 그려 나갈줄 알아야 한다.

5대혁명가극들만 보아도 주인공들의 복잡한 생활경력과 여러가지 생활을 종자의 요구에 맞게 몇가지 문제점에 결고 집약과 집중의 수법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 인물의 기나긴 성장과정도 단락별로 꼭 필요한 시기에로 비약시켜 주고 있다.

가극의 이야기줄거리조직에서는 둘째로 생활을 섬세하고 풍부하게 그려 주어야 한다.

생활을 섬세하고 풍부하게 그리는것은 이야기줄거리를 극성이 있고 긴장감이 나게 엮어 나가며 시대상을 진실하게 보여 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생활을 섬세하고 풍부하게 보여 주는데는 생활을 세부화하여 보여 주는 수법, 평범하고 아담한 생활세계로부터 복잡하고 심오한 생활세계에로 확대시키는 방법, 이야기를 굴절시켜 예상외의 결과를 추구하는 수법 등 다양한 방법과 수법들이 있다.

가극문학작가는 이러한 방법과 수법들을 적극 살려 쓰는것과 함께 가극문학의 형상적특성에 맞는 방법과 수법들도 적극 탐구리용하여야 한다.

생활을 섬세하고 풍부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우선 인물들의 뒤생활을 잘 파주어야 한다.

원래 시공간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영화나 소설에서는 그 형상적특성에 의하여 사람들이 인물들의 뒤생활을 짐작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 가거나 또 인물들의 뒤생활이나 과거를 관중의 눈앞에 마음대로 재현해 놓을수 있다.

그러나 상연시간과 무대라는 공간을 통하여 생활을 현재형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 가극의 특성은 무대우에서 벌어지는 일면적인 생활만을 평면적으로 벌려 놓을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상하여 볼수 없는 무대밖의 필요한 생활들을 직접 무대우에 극적으로 행동화하여 펼칠것을 요구한다.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창조하던 초기 창작가들은 명작에 담겨진 기본생활내용들을 가극에 옳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야기의 기본내용에서는 명작의 종자를 안고 있는 갑룡이와 만식, 철삼의 우정선보다 아버지에 대한 효성선과 금순이와의 애정선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그후 혁명가극에서는 아버지와 금순이의 관계는 관중과 약속된 상태에서 묻어 주고 뒤생활로 묻혀 있던 세 친구의 우정관계는 산판생활에서부터 모가 박혀 형상됨으로써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는다는 명작의 종자를 심오하게 돋구어 줄수 있게 되였다.

생활을 섬세하고 풍부하게 그려 주는 방법에는 다음으로 이야기가 벌어 지는 생활장소나 인물들의 성격에 대한 정서적표상을 심어 주는 수법이 있다. 서정적묘사방식에 속하는 가사를 기본형상수단으로 하여 인간과 그의 생활을 그려 나가는 가극문학에서 이러한 수법은 높은 시형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이야기줄거리조직에서 무시할수 없는 큰 역할을 한다.

금강산에 선녀들이 내린다 하지만
눈물 고인 나의 눈엔 보이지 않네
이 강산에 무지개가 비끼는 그날엔
우리 아기 곱게 자라 땅우에 선녀될가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에서 나오는 이 가사에서는 금강산을 두고 내려 오는 전설에 기초하여 생활장소에 대한 정서적표상을 주고 있다.

또한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에서는 당원들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기는 연옥이의 티없이 깨끗한 마음이 수정같이 맑은 시내가라는 생활장소에 의하여 더욱 정서적으로 돋구어 지고 있으며 동지위해 피를 바치는 주인공의 아름다움은 천년을 자란 나무가 서 있는 생활장소와 어울려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에서 주인공 최병훈의 성격에 대한 정서적표상은 드놀줄 모르는 천년바위와 그우에 지심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란 아름드리나무로 주고 있다면 꽃늪가와 그속에 핀 외로운 진달래는 복순이의 성격을 표상화하고 있다.

생활을 섬세하고 풍부하게 그려 나가는 방법에는 또한 무용을 이야기줄거리의 적중한 대목들에 조직해주는 방법이 있다.

혁명가극 《피바다》에서 제1장 백두산장면의 무용과 마감장면의 무용은 주인공이 수난에 찬 생활로부터 새로운 생활, 새로운 투쟁에로 넘어 가는 계기를 열어주면서 이야기줄거리조직에 필수적으로 작용하고있다.

또한 혁명가극 《꽃 파는 처녀》에서 제3장 2경, 제5장 2경과 마지막장면 등에 나오는 3편의 무용은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던 주인공이 착취 없고 압박없는 새 세상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안고 마침내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는 명작의 이야기줄거리를 한줄기에 꿰도록 엮어 지고 있다.

가극문학작가는 이야기줄거리조직에서 인물의 성격과 지향, 생활분위기와 감정적고조를 표현하는데 적중하게 리용되는 무용형상을 구성단계에서부터 똑바로 엮어 주며 바탕글에서 명백히 조건지어 주어야 한다.

가극의 특성에 맞는 이야기줄거리조직방법은 이밖에도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다.

그러므로 가극문학작가들은 여러가지 이야기줄거리조직수법과 방법들을 적극 탐구하여 능숙하게 활용해 나감으로써 21세기의 첫해인 올해를 명작으로 빛내여야 한다.

21세기를 강성부흥의 새 세기, 조선의 세기로 되게 하자!

시대와 음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량된 민족악기

좌 련 희

주체음악발전에서 민족악기는 민족음악의 우수성을 살리고 인민들의 민족적긍지를 높여 주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재부이며 자랑이다.

오늘 주체음악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는 우리의 민족악기들은 독특한 음색과 '울림으로 하여 만사람의 절찬을 받고 있다.

우리의 민족악기가 자기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고 절찬을 받고 있는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음악예술부문 사업을 지도하시던 첫 시기에 민족악기를 시대적요구에 맞게 주체적으로 개량발전시키실 구상을 지니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악기를 현대적으로 개량발전시키는것은 민족음악을 시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악기는 음악형상을 창조하는 물질적수단으로서 민족악기의 발전을 떠나서 민족음악의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인민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감정과 예술적재능이 반영되여 있는 민족악기들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를 반영하는데서 다른 나라의 그 어떤 악기도 대신할수 없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민족악기는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에 걸쳐 창조한 민족의 고귀한 재부로서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반영되여 있으며 고유한 민족적특성이 뚜렷이 체현되여 있다.

우리의 민족악기는 또한 그 음색이 아름답고 우아하고 처량하여 민족적정서와 미감에 잘 맞을뿐아니라 그 주법에서도 롱음과 같이 독특한 연주효과를 낼수 있는 좋은 점이 많다.

그러나 시대의 요구와 현대적미감에 비추어 볼때 재래식민족악기들에는 부족점도 많았다.

그것은 재래식민족악기들이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그 계승발전의 필요한 단계와 과정을 제대로 밟지 못한데서부터 산생된 부족점이며 특히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의 후과로 근대적인 기술문명의 혜택을 보지 못한채 봉건시대의 뒤떨어 진 악기들을 그대로 물려 받은데서 초래된 부족점이였다.

재래식민족악기의 제한성과 부족점은 음역이 넓지 못하고 음량이 적은데서와 일부 탁성이 섞인 소리가 나거나 악기들의 형태에서 고티나는 요소들이 있는데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였다.

또한 음률체계를 놓고 볼 때도 재래식민족악기의 음률체계는 오늘날의 음률체계에 비하여 단조롭다. 때문에 재래식민족악기를 가지고는 우리 음악에 차넘치는 혁명적기백과 랑만을 옳게 표현하는 문제도 민족음악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며 다양한 형식의 안삼블을 창조하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없었다.

이로부터 민족악기를 현대적으로 개량발전시키는것은 시대와 민족음악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족악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우점은 적극 살리고 악기를 현대적으로 개량하여 부족점은 극복해 나가야 민족악기를 가지고서도 우리 시대의 음악을 훌륭히 형상할수 있고 민족음악을 우리 인민의 미감에 맞게 더욱 발전시킬수 있다는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족악기를 개량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면서 악기개량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악기개량에서 본래의 민족악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은 그대로 살리는 원칙을 지킬데 대하여 밝혀 주시고 소리색갈을 옳게 살리는 문제, 소리의 크기와 형태, 구조와 재질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족악기개량에서 서양악기의 본을 따는것과 같은 편향들도 바로 잡아주시였다.

이러한 편향은 해금과 같은 민족현악기들의 음량을 크게 한다고 하여 바이올린과 같은 서양현악

기모양으로 공명통을 크게 하고 단소나 저대와 같은 민족목관악기의 음색에서 맑지 못한 쐑소리를 제거한다고 하면서 플류트나 오보에같은 서양목관악기처럼 쇠를 많이 쓰는 등 일부 악기들의 제작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족악기를 개량한다고 하여 민족악기가 서양악기를 닮아가는 현상을 제때에 바로잡도록 하시고 매개 민족악기의 본래의 특성을 잃지않도록 하는 민족악기개량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였다.

민족악기는 고유한 민족적색갈이 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새롭게 개량되는 민족악기들을 소리가 충실하면서도 독특한 민족적색채가 보존되게 하며 그 모양도 현대감이 나면서도 서양악기의 모양과는 완전히 구별되게 만들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사용되여 온 조선의 고유한 민족현악기인 해금을 개량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해금이 자기의 독특한 소리로 양악을 할수 있다면 몰라도 바이올린소리를 내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악기를 잘못 개량하면 범벅이 되여 민족악기인지 양악기인지 알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시였다. 또한 공명과 음량에만 신경을 쓰면서 바이올린과 같은 소리가 나게 하여서는 안되며 음량이 작다고 하여 공명통의 형태를 개조할 필요는 없다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미 해금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익혀 진 조건에서 그 형태를 고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음량을 크게 하는 방도를 공명통을 크게 개조하는데서만 찾지 말고 악기의 재질과 제작에서도 찾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마침내 해금은 우아하고 기묘한 소리를 내는 독특하고 우월한 악기로 개량완성되였고 소해금, 중해금, 대해금, 저해금으로 확대발전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개량완성된 악기는 결코 해금뿐이 아니였다.

가야금, 양금 등 현악기들과 저대, 단소를 비롯한 목관악기들도 다 이렇게 개량완성되여 민족관현악과 배합관현악에서 자기 역할을 다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처럼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민족악기를 현대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되였으며 현대적인 음악을 연주하는데서 많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던 민족악기들이 그 어떤 음악도 훌륭히 연주해 낼수 있는 세련되고 완성된 악기로 발전하게 되였다.

민족악기를 현대적으로 개량발전시키는 과정에 옥류금과 같은 새로운 민족악기들도 태여나게 되였다.

옥류금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세심한 지도밑에 제작된 특색 있는 악기로서 음색과 주법, 형태에서 와공후와도 다르고 하프와도 다른 자기의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구슬과 같이 맑은 소리를 낸다고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 이름을 친히 《옥류금》이라고 달아 주신 이 악기는 넓은 음역의 분산화음을 자유자재로 연주할수 있을뿐아니라 민족악기의 고유한 롱현도 할수 있고 안삼블음악에서 리듬도 담당할수 있는 다능의 민족악기로서 세계적으로도 음색이 절묘하고 표현력이 풍부한 악기로 높은 평가와 인정을 받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불과 몇해사이에 정력적으로 진행하신 민족악기개량사업, 이것은 말그대로 하나의 혁명이였다.

오랜 력사와 넓은 세계를 둘러보아도 이처럼 짧은 기간에 모든 민족악기들을 현대적으로 개량하여 대민족관현악을 편성한 례는 그 어디에도 없다.

실로 이 시기 민족악기개량사업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는 전적으로 우리 식의 음악형식을 새롭게 창조해 나갈데 대한 방침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음악예술인들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음악예술부문에 이룩하여 놓으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하고 더욱 빛내여 나가는것보다 더 신성하고 영예로운 임무는 없다.

우리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 민족음악발전에 기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것이 세월이 흘러 세대가 바뀌여도 영원히 빛을 뿌리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나가야 할것이다.

어린이의상미술창작에서 실용성과 예술성의 결합문제

홍 애 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의 사상도덕적풍모는 그의 활동상 편리와 고상한 미적지향과 함께 의상에 반영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의상에 반영되는 사람의 활동상 편리와 고상한 미적지향은 의상미술창작에서 실용성과 예술성의 옳은 결합에 의해 표현되게 된다.

의상에서 실용성은 예술성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의상의 실용성은 두 측면에서 볼수 있는데 하나는 옷을 입었을 때 편안한가, 불편한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때와 장소, 환경과 조건에 어울리는 옷차림에 의해 평가되는 문제이다.

예술성은 옷의 아름다움, 다시말하여 옷의 형태, 비례, 색채와 장식 등 옷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조형적결합, 꾸밈새에 대한 질적측면을 말한다.

이로부터 의상에서 실용성은 내적속성으로, 예술성은 외적속성으로 볼수 있다.

그것은 의상에서의 실용성이 주로는 육체와의 관계에서 편안한가, 불편한가 하는 편리성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이고 예술성은 미적지향과 요구로부터 제기되는 시각적아름다움에 대한 문제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의상의 실용성과 예술성에 대한 요구에서는 속옷과 겉옷에 따라 일정한 특성이 있다.

의상에서 속옷은 사람의 피부와 직접 접촉하면서 겉옷을 받쳐 주는 역할을 하기때문에 보다 부드럽고 유연하며 당김성이 좋아야 하지만 겉옷은 사람의 용모와 체형을 조형적으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기때문에 나이와 체형의 특성, 기호나 취미, 계절과 장소, 직업적특성 등에 따라 의상의 형태와 재질, 색갈, 장식 등에서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형상적이다.

또한 외적으로 표현되는것은 속옷이 아니라 겉옷이기때문에 겉옷은 속옷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술성이 보다 중시된다고 볼수 있다.

의상의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흔히 사람들은 옷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할 때 겉옷을 념두에 두게 된다.

정신육체적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고 피부가 연약한 어린이들의 의상에서 실용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어린이의상에서 실용성과 예술성의 옳은 결합이 중요한것은 어린이들의 정신육체적성장에 직접적영향을 미치기때문이다. 어린이의상에서 편안한것만을 생각하면서 예술성을 무시하면 비록 육체와의 관계에서는 불편이 없겠지만 모든것을 새롭게 보고 느끼고 받아 들이는 어린이들의 미적인식과 문화정서적생활형성과 발전에 긍정적영향을 줄수 없게 되며 반대로 편리성을 무시하고 예술성만을 중시하면 육체적으로 연약한 어린이들의 성장발전에 부정적영향을 주게 된다.

어린이의상미술창작에서는 연약한 어린이들의 체형적특성, 활동의 편리성을 보장하면서도 조형예술적으로 아름답게 하여 미적인식과 문화정서생활형성과 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게 하여야 한다.

어린이의상미술창작에서 실용성과 예술성의 옳은 결합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옷을 입었을 때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아무리 형태가 새롭고 재질이 좋은 옷도 입는 사람의 몸에 맞지 않거나 불편하고 활동에 지장을 주게 되면 실용적요구에 만족을 줄수 없으며 따라서 예술성도 부각될수 없다.

더우기 어린이의상에서 이러한 현상은 비단 불편한것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발육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게 되는것으로 하여 후과가 크게 나타난다.

의상에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것은 활동의 편리성을 보장하는것에 의해 담보된다.

장난이 심하고 육체적활동이 매우 자유분방한 어린이시기의 의상에서 활동의 편리성을 보장하는데서는 옷의 형태와 장식, 색갈도 중요하지만 특히 옷의 품과 길이를 알맞춤하게 해주는것이 보다 필요하다.

유년기 어린이시기에는 일단 옷을 입은 다음에는 옷건사에는 거의 무관심하다. 따라서 한번 옷을 해주고 몇년 입히겠다는 생각으로 품과 길이에서 지나치게 여유를 주게 되면 활동에 지장을 주게 되는것은 물론 옷도 인차 못 쓰게 된다.

그러므로 어린이옷에서는 품을 알맞춤하게 하면서 특히 길이여유는 다양한 형식으로 접어서 장식적으로 처리하는것이 효과적이다.

어린이의상미술창작에서 실용성과 예술성의 옳은 결합을 보장하는데서는 또한 의상의 형태와 장식을 때와 장소, 환경에 맞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떤 옷을 입는가 하는

것은 사람의 인품과 관계되는 동시에 문화적수양정도를 표현하게 된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때와 장소, 환경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옷차림은 그들의 문화정서적교양과 인식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미감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어린이의상의 편리성은 때와 장소, 환경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의상형태와 결합될 때 어린이들의 밝고 명랑한 동심적지향과 요구에 만족을 줄수 있을뿐아니라 사회주의적생활양식과 문화정서적인식과 교양에도 이바지할수 있다.

어린이의상 미술창작에서 실용성과 예술성의 옳은 결합을 보장하는데서 또한 어린이들의 동심적인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의상창작을 다양하게 하는것이다.

어린이들은 년령심리적특성으로 하여 호기심이 강한 반면에 사고의 지속성이 짧고 단순하며 자연과 사회현상에 대하여 주로 인식하는 단계에 있게 된다.

이런 특성으로 하여 어린이들에게서 새것에 대한호기심은 인차 또 다른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뀌며 단순하고 정적인것보다 변화 있고 동적인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비록 그것이 곱고 화려한 옷이라고 해도 다양하지 못하면 그들의 동심적요구에 만족을 줄수 없다.

또한 사회적으로 놓고 볼 때도 어린이들의 의상이 어른들의 의상에 비해 보다 변화 있고 화려하고 다양해야 어린이들의 동심적지향과 요구에 만족을 주는것은 물론 밝고 명랑한 사회의 락천적인 문화정서적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이바지할수 있다.

그러자면 어린이옷의 형태를 다양하게 하는것과 함께 그에 맞게 색채와 장식도 변화 있게 하여야 한다.

옷의 형태는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과 용모, 육체적특성에 어울리게 의상의 동심적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성별, 계절별, 때와 장소 등에 맞추어 입을수 있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고유한 조선옷을 현대적미감과 어린이들의 체형적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으로 그 가지수를 늘이는것이 중요하다.

의상을 다양하게 하는데서 색채를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같은 형태의 옷도 색채를 달리하면 새로와 보이며 다양한 느낌을 주게 된다.

어린이옷에서 색채는 원색계통의 색조화를 잘 살리는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그것은 원색조화가 보다 대조적인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이 강하고 활동적인것으로 하여 어린이들의 동심적인 성격에 맞기때문이다.

옷장식을 다양한 형식으로 잘하는것은 어린이들의 동심에 만족과 기쁨을 줄뿐아니라 지적인식과 교양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어린이옷장식에는 동물무늬, 식물무늬, 기물무늬와 장식무늬 등을 다양하게 리용할수 있으며 의인화적수법과 양식화적수법으로 같은 장식소재도 다양하게 형상할수 있다.

어린이옷장식에서는 또한 주름처리와 레스장식, 리봉이나 곱게 만든 꽃송이등을 리용하여 장식의 립체적효과로 새롭고 특색있는 옷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어린이의상미술창작에서 실용성과 예술성을 결합하는데서 천재질선택을 잘하여야 한다.

천의 재질은 부드러운가 빳빳한가 하는 여러가지 성질을 가지고 옷의 형태에 영향을 줄뿐아니라 어린이들의 연약한 육체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의 육체적활동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보기 좋고 오래 갈수 있게 어린이들의 성별과 체질적특성, 계절과 장소 등에 어울릴수 있게 다양한 재질의 천을 옳게 배합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나라의 꽃봉오리인 우리 어린이들의 의상을 희열과 랑만에 넘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현실에 맞게 보다 민족적이며 아름답고 다양하게 창작하는것은 의상미술창작부문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의상미술창작가들과 이 부문 전문가들은 어린이의상미술창작의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고 어린이의상창작을 우리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우리 어린이들의 체형적특성과 정서심리에 맞게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식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경의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추대 9 돐경축 음악무용종합공연중에서—



남성 4중창과 녀성 2중창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녀성민요독창 《조선아 다시 안아 보자》



남성독창 《장군님 여기는 최전연입니다》



피아노독주와 남성중창 《전사의 의리를 지키리라》



녀성독창
《장군님 모시고 기어이 돌아 오리》



무용 《나의 어머니》



녀성민요4중창 《선군령도 제일일세》

미덥고 자랑스러운 모습들

—인민보안성 녀성취주악단—



뜨거움에 눈물 젖는
은정 넘친 배려



더 높은 창작과제를 세우는
참모일군들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심장마다에



부단장 김종덕



악 장 장미란

볼수록 인상 깊은 률동취주악





창조적지혜로
새로운 취주악선률을…



지휘자 박미선



세련된 동작으로



목관악기의 특성을 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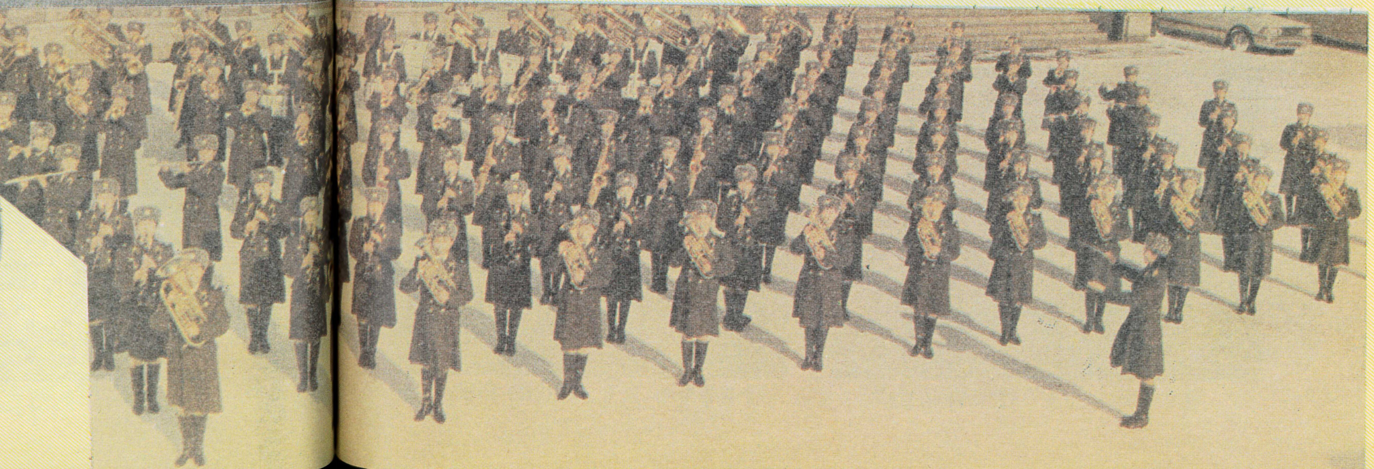


능숙한 타악기연주



호흡조절에 중점을 두고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힘찬 취주악소리
더 높이 울려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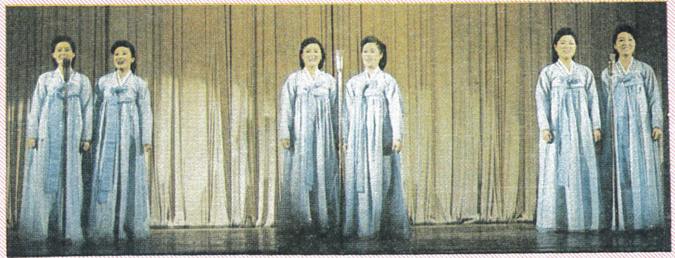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김일성**상》계관인, 인민예술가 리학범음악회중에서—



녀성중창 《수령님 높은 뜻 붉게 피였네》



녀성 6 중창 《빛나는 삶의 품》



남성독창과 합창 《전사의 념원》



녀성독창과 합창 《떠나는 마음》



남성독창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노래》



녀성독창 《장군님은 조선의 운명》



녀성기악중주 《아버지의 축복》



남성 3 중창과 합창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 인민예술가 김성근

주체 34(1945)년 7월 8일 평안북도 천마군 삼송리에서 태여나 중등교육과 3년간의 로동과정을 거쳐 군사복무를 한 그는 주체 60(1971)년부터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 미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후 평양미술대학 통신과정을 마치고 풍경을 전문으로 그리는 화가로서 전문창작생활 초기에 그는 일련의 주제화들과 명승지풍경들을 그렸다.

주체 76(1987)년 이후부터 조선화작품들인 《총석정의 파도》, 《여름의 바다》, 《국도의 파도》, 《염분진의 파도》, 《총석정기슭의 파도》, 《파도》, 《해금강의 파도》 등 수많은 파도그림들을 그린것으로 하여 화단에 파도전문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였다.

그의 파도그림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경애하는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드리였다.

그중 가장 우수한것은 조선화 《해금강의 파도》(주체 82년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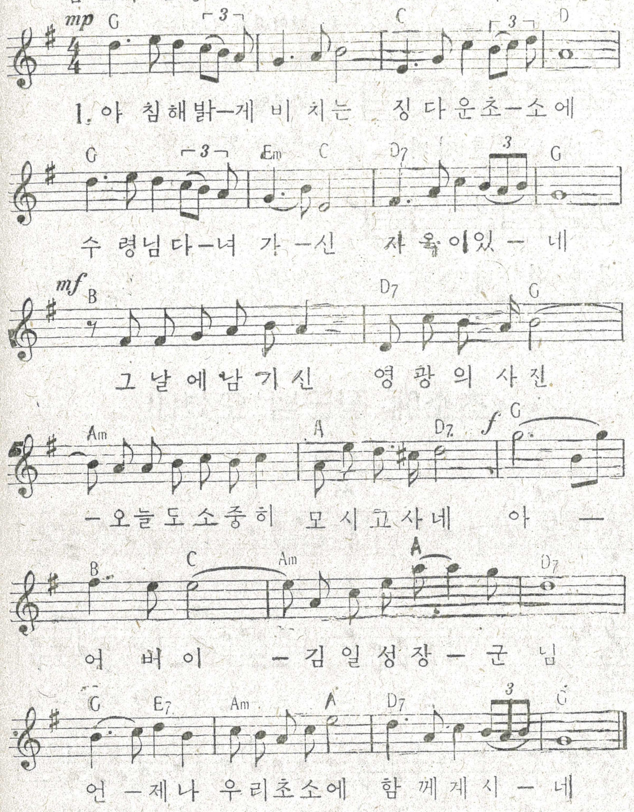
두 차례에 걸쳐 이 작품을 친히 보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화 《해금강의 파도》는 대 걸작이라고 하시면서 잔잔한 파도보다 격랑이는 파도가 더 보기 좋다고 매 파도들이 성격이 있다고 이 그림은 조선의 기상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세찬 물갈기를 날리며 노호하는 해금강의 격랑이는 파도를 통하여 시대의 숨결과 정서적감정을 훌륭한 명작속에 보여 준 화가는 오늘도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는 우리 인민의 필승의 신념과 강의한 의지를 파도그림에 담기 위해 사색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다.

언제나 우리 초소에 함께 계시네!

흠모의 감정으로 밝게 (♩=72)

작사 최준경
작곡 김광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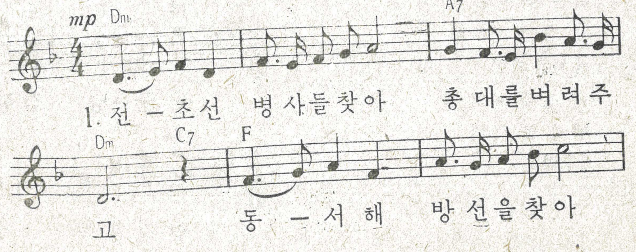


2. 진달래 붉게 피여 난
정다운 초소에
어머님 모시였던
행복이 있네
명사수총성을
울려 주시던
그날의 이야기
꽃을 피우네
아 자애론 김정숙장군님
언제나 우리 초소에
함께 계시네

3. 사랑의 전설 많은
정다운 초소에
장군님 모시였던
명절이 있네
병사들 못 잊을
그날에 살며
금별의 위훈을
수 놓아 가네
아 친근한 **김정일**장군님
언제나 우리 초소에
함께 계시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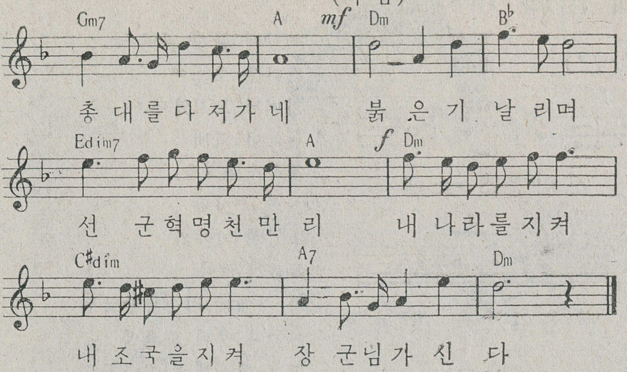
선군혁명 천만리

기백있게 (♩=94) 작사 윤두근, 작곡 도영섭



2. 수령님 총대로 여신
백두의 그 길 이어
난국도 총대로 헤쳐
승리를 떨쳐 가네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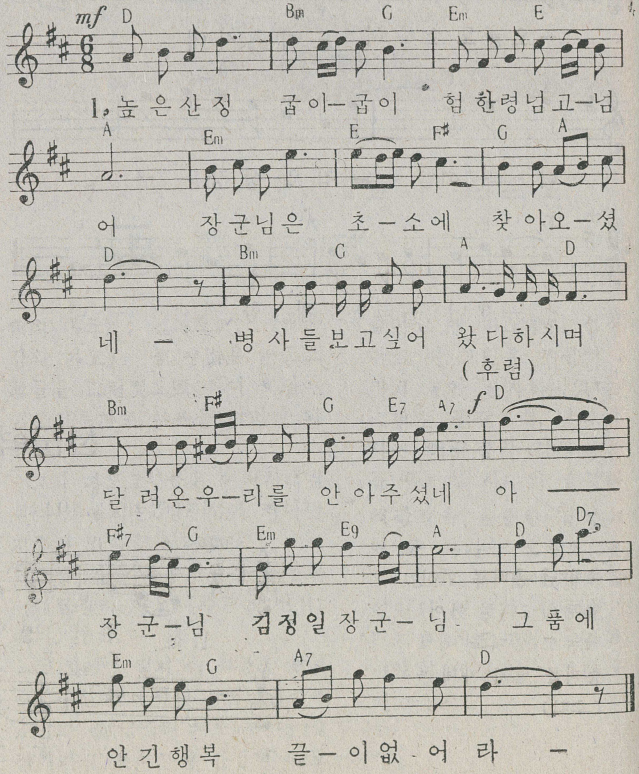
(후렴)



3. **김일성**사회주의를
총대로 떠받들고
김정일강성대국을
총대로 빛내가네
(후렴)

초소에 장군님 오셨네

정서를 담아 (♪=124) 작사, 작곡 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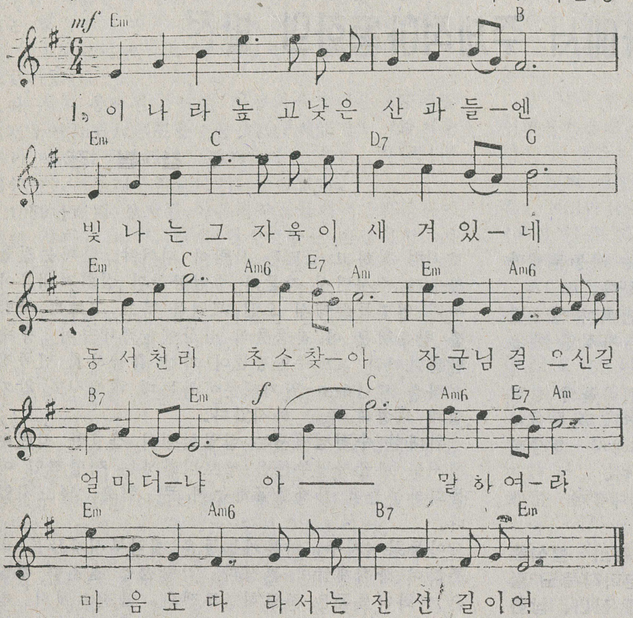
2. 장군님 모시고
나란히 찍은 사진
우리 중대병실에
환하게 모셨네
쌍안경 자동보총
가슴에 안고
일당백 위훈의 꿈
키워 간다네
(후렴)

3. 눈이 오면 추울세라
비 오면 젖을세라
병사들을 위한 사랑
끝은 어딘가
그 품에 모두다
총폭탄되여
내 조국 지켜 갈
맹세 불타네
(후렴)

말하여라 전선길이여

흠모의 정을 담아 (♩=88)

작사 강용복
작곡 계훈경



2. 철령은 그 사랑을
속삭이고
초도는 그 은정에
잠 못 드네
한겹의 옷자락에
장군님 맞은 눈비
얼마더냐
아 말하여라
눈시울 젖어 드는
전선길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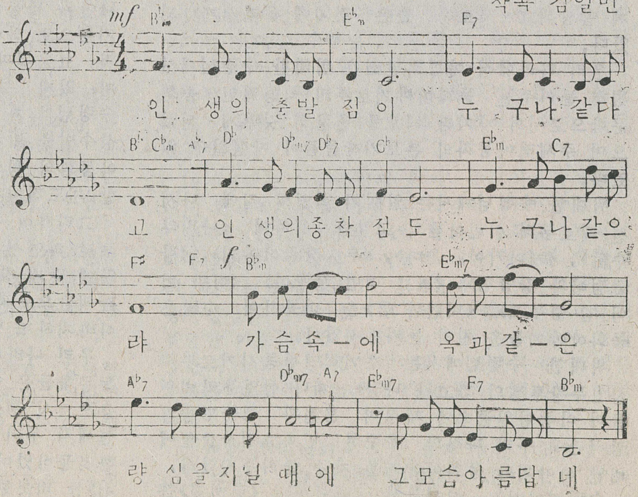
3. 병사들 있는 곳엔
다 가시여
금별의 영웅으로
키우셨네
내 조국 지키시여
장군님 쌓은 업적
얼마더냐
아 말하여라
력사에 길이 빛날
전선길이여

그 모습 영원하리

텔레비죤예술영화 《인생의 진정》 중에서

보통속도로 절절하게

작사 문기창
작곡 김일민



머나먼 인생길에
곡절이 있다고
찬바람 피해 가며
행복을 찾으랴
가슴속에 참대같은
신념을 지닐 때에
그 모습 아름답네

량심에 티앉으면
한생을 헛살아
신념이 휘여 들면
한생을 못살아
옥과 같이 참대처럼
한생을 살 때에
그 모습 영원하리

우리 나라에서 주체적아동화의 발전

학사 김 명 건

출판미술의 한 형태로서의 아동화는 아동문학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생발전하여왔다.

아동화는 아동문학과 긴밀하게 련관되여 있으면서도 자기의 조형적인 화면을 가진 독자적인 예술형식이다.

그러나 아동문학이나 아동화는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그들의 시점에서 형상이 이루어지며 하나의 교양적목적을 가진것으로 해서 호상련관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삽화예술을 낳고 그의 내용과 형식을 규정해 준다. 삽화예술이 발전하면 문학작품도 훨씬 돋구어 지고 인민들과 더욱 친숙해 진다. 삽화를 문학과의 관계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그것이 문학작품에 의존하여 내용과 형식을 취하는 예술이지만 다른 편으로는 조형적화면을 가진 독자적인 예술형식으로 된다.》

삽화예술이 책과 함께 출현하였고 그 발전도 책과 함께 이루어 진것처럼 아동화도 아동문학과 함께 발생되고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아동화발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동화이야기로부터 혁명적인 동화문학으로서의 자기의 체모를 훌륭히 갖추게 되였으며 주체적아동화의 본보기작품들이 마련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어린이들의 교양을 위하여 《나비와 수닭》, 《게다짝이 운다》, 《두 장군이야기》, 《황금덩이와 강낭떡》, 《놀고 먹던 꿀꿀이》, 《이마 벗어 진 앵무새》, 《미련한 곰》을 비롯하여 수많은 동화이야기들을 친히 들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로부터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 언제나 항일유격대원들과 아동단원들속에 계시며 훈련과 행군도중의 짬시간에 우리 나라의 우수한 민족고전작품들에 대한 이야기와 동화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고전동화 《흥보전》, 《토끼전》을 비롯한 동화이야기들을 들려 주신 다음에는 꼭 흥보처럼 착하고 근면한 사람이 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해 주시면서 작품의 주인공들과 설화적내용이 우리 인민들속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그토록 사랑을 받은것은 이 작품들의 사상예술적내용이 우수할뿐아니라 그 주인공들이 가장 훌륭하게 민족적성격을 체현하고 있기때문이라는데 대해서도 알기쉽게 해설해 주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혈전의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계급적원쑤들을 폭로비판하는 혁명적인 아동화작품들을 창작보급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아동화 《지주, 자본가놈들을 때려부시자!》를 비롯하여 착취계급의 본성과 악랄성을 조소한 수많은 만화작품들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작되고 보급된 혁명적인 아동화작품의 본보기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동화의 본보기들을 창조하시였을뿐아니라 혁명적인 동화문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동화, 우화창작에서는 어린이들의 나이와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의인화의 수법을 기본으로 하여 선한것과 악한것, 옳은것과 그른것, 고운것과 미운것의 내용을 교양적이면서도 흥미 있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곧 동화의 내용과 형식, 형상수법을 밝힌 강령적지침으로 될뿐아니라 주체적아동화의 형식과 형상전반에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그리하여 광복후 아동문학은 전통적내용들을 기초로 하면서 동시에 우리 인민들의 미학정서적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개작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각색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사상정서적교양에 적극 이바지하며 발전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광복전부터 전해져 내려 오는 아동문학들은 주로 민가에서 전해 지던 민화, 전설내용으로서 행복과 불행, 선과 악, 도덕륜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인민들의 소박한 념원과 지향을 반영한것들이였다. 광복후 동화분야에서는 《꼬마다람쥐》를 비롯한 일부 성과작품들이 창작되였으나 당시까지만 하여도 순수 의인화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 나지 못하였다.

전후시기 《도끼장군》, 《행복의 열쇠》 등 일부 우수한 작품들이 창작된 때로부터 아동문학분야에서는 일정하게 자기의 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아동화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작들이 창작보급되였다.

이 시기 창작된 우수한 아동화들로서는 《콩쥐팥쥐》(주체43년), 《친한 동무》(주체45년), 《즐거운 우리 마을》(주체46년), 《아름다운 우리 마을》(주체47년), 《청개구리이야기》 등이였다.

1950년대에 창작된 아동화작품들에서 일정하게 거둔 성과는 어린이들의 현실생활을 반영하고 자기 마을, 자기 고향,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을 키워 주는데 적극 이바지한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여도 아동화가 들끓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응당한 수준에 올라서지 못했으며 묘사력이 미약하고 대상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지 못한데로부터 어린이들의 생활과 심리를 생동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창작력량이 많지 못했던 사정과 함께 일부 창작가들이 밝고 명랑하고 행복한 어린이들의 생활을 다각적으로 깊이 있게 포착하지 못하고 있었기때문이다.

당시에 아동화분야는 매우 협소한 범위에서 몇가지 국한된 형식에 머물러 있었고 그것마저 단색조의 선화로 된 형식을 극복하지 못했다.

1960년대는 아동화발전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중요한 시기였다.

1960년대에 들어 서면서 여러가지 계급교양내용과 반간첩투쟁이야기를 취급한 아동화작품들이 창작보급되여 어린이들에 대한 사상교양에 적극 이바지되였다.

특히 이 시기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아동영화가 출현한것으로 하여 아동화분야를 더욱 흥성거리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을 철저히 구현한 우리 식의 주체적인 아동문학예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어린이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 특히는 계급교양에 이바지할 아동화를 의인화의 수법으로 만들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다.

아동화분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적인 문예교육사상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창작력량을 확대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자체의 창작력량을 마련하고 강력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함으로써 1960년대 전반기에 벌써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화가 독자적으로 걸어 나갈수 있게 되였다.

첫 아동영화 《금도끼와 쇠도끼》의 창작후 우리 나라에서는 년 평균 12편이상의 아동영화가 만들어 졌으며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에는 60여편의 아동영화가 창작보급되였다,

중요하게는 지난 시기 동화적인 소재, 전설적인 소재에 국한되였던 제한범위를 뛰여 넘어 현실적인 소재에 기초한 아동화창작비중이 늘어 나게 되였다.

이 시기 현실적인 소재에 기초하여 창작된 아동영화들가운데는 들끓는 사회주의건설의 혁신적성과를 창조하는 천리마시대의 눈 부신 현실들과 어린이들의 생활을 반영한 《흥겨운 들판》, 《500만톤》. 《꼬마붉은 별》, 《깜장토끼》, 《두 동무》, 《욕심 많은 돼지》, 《친한 동무》를 비롯한 우수한 작품들이 많다.

두번째 그림영화인 《500만톤》은 알곡 500만t을 증산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몰라 보게 변모되는 사회주의농촌의 벅찬 현실을 의인화된 농산물의 형상으로 흥미 있게 펼쳐 보이고 있다.

또한 그림영화 《흥겨운 들판》은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를 전면적으로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따라 나날이 변모되여 가는 농촌의 천지개벽을 잠자는 개구리의 시야를 통하여 재미있게 보여 주고 있다. 영화는 의인화된 개구리의 시점에서 변모되는 농촌현실을 과장된 동화적환상으로 흥미있게 보여줌으로써 아동영화의 형상적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렸던것이다.

1960년대 후반기 우리 나라에서의 첫 과학환상영화로 창작된 《꼬마우주 탐사대원》은 어린이들의 달나라 려행과정을 환상적으로 보여줌으로하여 어린이들이 보다 크나큰 희망과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해 더 많은 과학지식을 배워 나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1960년대 아동화분야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들려 주신 동화이야기를 아동영화로 옮긴 《놀고 먹던 꿀꿀이》가 창작됨으로써 주체적아동화의 본보기작품이 창조되고 아동화창작이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라 서게 된것이다.

1970년대는 아동문학과 함께 주체적아동화창작에서 력사적전환을 가져 온 뜻깊은 시기였다.

주체61(1972)년 1월 24일 동화, 우화를 가지고 아동영화를 더많이 창작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주체61(1972)년 9월 6일 조선문학예술총동맹산하 창작가들에게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은 1970년대 우리 나라에서 현실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혁명적인 아동화의 뚜렷한 면모를 갖추게 하는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들려 주신 이야기 **《나비와 수닭》, 《놀고 먹던 꿀꿀이》, 《이마 벗어 진 앵무새》, 《두 장군 이야기》, 《황금덩이와 강낭떡》,**

반 향

《조선은 예술부문에서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다》

지난해에 진행된 제7차 평양영화축전 심사위원회 위원장, 꾸바 국제심사원인 연출가 쎄르히오 누네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3년전 제1차 평양영화축전에 참가했을 때 나는 《**주체사상에 대하여**》, 《**영화예술론**》을 비롯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집필하신 불후의 저서들을 빠짐없이 구입하여 꾸바에 가지고 가서 읽었다.

나는 특히 《**영화예술론**》에서 《**연출가는 창작단의 사령관이다**》의 내용을 탐독하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니고 계시는 비범한 예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연출가로서의 나의 위치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이 자각하게 되였다.

조선은 예술의 영재이신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있는것으로 하여 예술부문에서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다.

또한 축전에 출품된 조선기록영화 《조선의 훌륭한 딸》을 보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에는 국제경기에서 이름을 떨친 수많은 체육인들이 있지만 조선에서처럼 그 성과를 민족의 이름, 조국의 이름, **수령**의 존함과 더불어 높이 내세워 주는 나라는 없다.

조선은 확실히 자기의 아들딸들을 훌륭히 키워 그들의 영예를 조국의 이름과 나란히 빛나게 해주기때문에 정성옥과 같은 영웅들이 가득찬 나라로 빛을 뿌리고 있다.

《**미련한 곰**》 등을 아동그림책과 아동영화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아동화창작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1980년대는 사회주의대진군의 벅찬 현실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과 새로운것을 끊임없이 지향하는 그들의 요구에 맞게 아동화창작에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폭넓게 발전한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

특히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 《**달나라 만리경**》, 《**연필의 소원**》, 《**보물통과 빈통**》을 비롯한 아동그림책, 아동영화들이 창작창조되여 아동화의 새로운 발전적면모를 보여 주게 된것이다.

뿐만아니라 학교전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가지 지능계발그림책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의 우수한 옛 이야기그림책, 동화와 우화그림책, 사화집, 민화집, 과학환상그림책, 아동소설책과 련속그림책 등 흥미있는 그림영화, 인형영화, 지형영화들, 그밖의 수많은 아동화작품들이 시대적요구에 맞게 창작보급되였다.

또한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우수한 동화와 우화내용들을 묶은 《세계아동문학선집》과 이름 있는 과학자, 발명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아동그림책, 아동소설책, 설화집들이 훌륭히 형상되여 어린이들의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적극 리용되였다.

오늘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의 벅찬 흐름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보다 더 새롭고 특색 있는 아동화의 다양한 작품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전날의 동화형상에서는 주로 선과 악, 도덕륜리적인 범위에서 이야기내용이 펼쳐졌다면 오늘은 새롭고 흥미있는 과학환상주제들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다.

아동화창작가들은 지난 시기 써오던 몇가지 수법과 형식에 국한되지 말고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새롭고 의의 있는 아동화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께서 친히 들려 주신 이야기들을 기본으로 하여 아동화의 새로운 경지를 부단히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지식환상과 로동을 싫어하고 국가재산을 애호관리하지 않는 현상, 개인리기주의,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현상들을 아동화《무대》에 올려놓고 흥미 있으면서도 교양적의의가 큰 특색 있는 형상을 창조해 내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그리하여 21세기 주체의 강성대국을 힘 있게 떠메고 나갈 믿음직한 역군들인 우리 어린이들의 사상정서교양과 지능교육에 이바지할수 있는 주체적아동화작품들을 훌륭히 창조해 나가야 한다.

영화문학

푸 른 견 장

리 희 복

철길

《붕—》 려객렬차가 기적을 울리며 전속으로 달려 간다.

여기에 울리는 누군가의 목소리.

《우리 승차보안원들은 렬차를 타고 다니면서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헤여지군 한다.》

달리는 렬차안에는 화려한 옷차림을 한 녀인(차옥금)이 차창곁에 앉아 고급당과류를 손님들에게 권하고 있다. 허나 다른 좌석에선 작업복차림의 한녀인(윤옥)이 어린 딸과 마주 앉아 감자를 손님들에게 권한다. 여기에 계속되는 목소리.

《이 사람들을 항상 어떤 눈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렬차보안원칸에서 대위견장을 단 광수가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 있다. 계속되는 그의 목소리.

《나는 렬차를 탈 때마다 이 물음에 대답을 준 참다운 인간, 푸른견장의 전형으로 알려 진 한 승차보안원을 잊을수가 없다.》

렬차가 아득히 멀어 지자 어둠속 어데선가 다가오는 세개의 불빛!

그 불빛들이 점점 커지더니 불현듯 상위견장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새겨지는 제명.

푸 른 견 장

어느 산간역

큼직한 지함을 등에 지고 서서히 움직이는 렬차에 가까스로 오르는 한처녀(선희).

렬차 승강대

선희가 열려진 승강대출입문앞에서 땀을 식히고 있는데 려객전무 창호가 다가온다.

창호 《동무, 승강대문을 닫읍시다. 동무, 사람말이 들리지 않소?》

선희 《미안합니다.》

《다들 안으로 들어갑시다.》

선희가 지함을 들고 렬차칸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지함에서 물방울이 새여 나와 창호의 옷자락을 적신다.

선희 《정말 안됐어요.》

《이동무가?… 동무 이게 무슨 지함이요?》

《저…》

《이거 혹시 수산물이 아니요?》

이때 지함속에서 《음메—》하는 새끼염소의 울음소리가 들려 온다.

창호 《나참?!…》

때마침 승차조장(대위)광수가 《자, 모두 안으로 들어 갑시다.》하며 승강대로 나오다가 염소울음소리에 그만 걸음을 멈춘다. 《이건 또 무슨 소리요?》

창호 《이 안에서 염소가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소.》

광수 《동무, 지금 제정신이요? 사람타는 렬차칸에 염소를 가지고 오르면 되오?》

《용서하십시오. 사실은…》

창호 《사실이구 뭐구 날 따라 오. 위반조서를 쓰고 다음역에서 내려야겠소, 갑시다.》

《전무동지.…》

《여러말 하지 말구 따라 오라지 않소.》

《야—참…》

광수 《그래, 전무동무의 원칙적인 요구가 달갑지 않다는거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그래?… 무슨 의견이 있소, 빤히 쳐다보면서. 이 동무 이거 까다로운 처녀로구만. 동무, 신분을 좀 확인합시다. … 날 따라 오, 어서…》

하는수없이 광수를 따라 가는 선희.

식당칸

광수가 선희를 데리고 들어와 의자에 앉는다.

이때 주인공 복재가 여기로 들어 서며 접대원처녀에게 《저…물 좀…》하고는 땀을 훔친다.

《복재동무.》

《예.》

《이 동무를 좀 따져 봐야겠소. 염소를 가지고 렬차에 올랐는데 수속중이라는 이 증명서두 어정쩡하구 서포피복공장이라는게 흥미 있소. 동무가 좀 알아보라구.》

복재 《서포피복공장에 있습니까?》

《예.》

《그 공장에 정문이 하나지요?》

《예?!… 아니, 정문이 둘인 공장두 있습니까?》

《옳소, 그러니 후문도 하나겠소.》
《그래요.》
《틀렸소. 그 공장은 후문이 둘이요.》
《미안하지만 하납니다.》
복재가 수첩을 꺼내든다. 그 수첩에 씌여진 《연선료해수첩》이란 글.
《명백히 확인시킵시다. 자, 보오. 그 공장은 후문이 둘이요.》
《상위동무, 전 사실대로 말했을뿐입니다.》
《그럼 공장보위대장 김철수동무는 아오?》
《보위대장은 남자가 아니라 녀잡니다.》
광수 《여, 동무. 이 상위동무가 바로 서포사람이요. 이 동무가 어데서 얼렁뚱땅 넘기려구… 복재동무, 데리구 오.》
복재 《자, 갑시다.》
《단속실인가요?》
《물론이지요.》
《좋아요. 갑시다. 그런데 가더라도 전무동무의 요구대로 염소야 다음역에 내려놓고 가야지 않습니까?》
《뭐요?…》
이때 차창밖에서 《중대장동지!》하는 처녀들의 목소리가 들려 온다.
차창밖에서 인민군 녀병사들이 저저마다 《중대장동지!》 하며 누군가를 찾는다.

작은역

렬차가 멎자 선희가 지함을 안고 내려 선다.
《동무들!》《중대장동지!》
선희를 둘러싸고 기쁨에 넘치는 녀성군인들.
누군가가 《중대장동지!》하며 울먹인다.
《은혜야, 난 꿈속에서도 너희들을 본다.》
《중대장동지!》 사관장이 선희의 팔을 흔든다.
《우린 중대장동지의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나두 막 동무들이 보고 싶었어요.》
녀병사 ① 《그새 점백이 어미돼지는 새끼를 열두마리나 낳았습니다.》《그래요?》
때마침 염소가 지함에서 머리를 내민다.
녀병사② 《어마나?!… 요 귀염둥이…》
녀병사 ③ 《중대장동지, 염소.》
사관장 《야, 정말 곱구나.》
이윽고 선희가 대원들을 둘러보며 나직이 입을 연다.
《사관장동무, 동무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길러 군인들의 식생활을 높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그것을 관철하지 못한채 중대를 떠난게 늘 마음에 걸리는군요.》
사관장 《중대장동지, 걱정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염소떼가 욱실거리게 만들겠습니다.》
《고마워요.》
이 광경을 승강대밖에서 바라보는 복재.

선희 《동무들, 부탁해요. 전투준비도 잘 갖추고 풀 먹는 집짐승을 많이 길러 낸 다음 아버지장군님을 꼭 중대에 모셔주세요. 그리고 초소를 잘 지켜야 해요. 동무들이 지켜 선 철길 초소 하나하나가 평양과 잇닿아 있고 매 구간의 철길우엔 언제나 장군님의 안녕이 있다는것을 명심하세요.》
사관장 《중대장동지, 하루밤이라도 중대에서 쉬고 가면 안되겠습니까?》, 《가야 해요.》
《그럼 결혼식땐 꼭 편지로 알려야 합니다.》
《그러찮구.》
《중대장동지, 평양에 가서도 우리 중대를 잊지 마십시오.》
《경숙아, 위탈이 있으니 식사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알겠니?》
이때 렬차가 발차신호를 울리며 서서히 떠난다. 그제야 선희에게 들고 온 꾸레미를 안겨 주는 사관장.
《중대 동무들이 보내는겁니다.》
복재 《동무, 빨리 타오. 빨리!》
선희는 그때야 렬차를 타려고 발걸음을 옮기나 끝내 렬차를 놓치고 만다.
멀어지는 승강대우에서 복재가 소리친다.
《동무, 역 주재원실에 들어가오. 다음역에서 전화해 주겠소.》

렬차승차보안원실

복재 《그 처녀 제대군관이더구만, 중대장을 하다가…》
광수 《엉?!… 로총각이 처녀한테 반한게 아니야? 올리뛰구 내리뛰구.…》
《중대병사들과 말하는걸 봤는데 속이 깊은 처녀더구만.》
《그러구보니 인제야 알만하구만. 어딘가 코대가 세드란말이야. 동무 같은건 한손에 휘둘러 댈거야. 괜히 밴밴한 얼굴에 빠져서 평생 고생하지 말고.…》
그 말을 듣는지마는지 가방에서 손전지를 꺼내는 복재. 가방속에 들어 있는 고급술병.
《그 술병은 뭔가?》
《오늘이 우리 어머니 생일이야.》《뭐?…》
《자! 난 그럼 렬차를 한번 돌아 보겠네.》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복재.
광수 《이런 실수라구야. 내가 복재어머니 생일을 잊다니…》
차창밖으로 산발이 지나가고 강이 지나간다.

평양역

렬차가 방금 멎어선듯 저마다 손짐들을 찾아드는 승객들. 여기로 려객전무 창호가 들어 선다.
《자, 옥금 아주머니.》
《오. 내 가방 좀, 자 좀 나가자요.》
허나 다음 좌석에선 감자를 먹고 있던 녀인이 어린 딸(경미)의 다리에 붕대를 감아 주고 있다.

《아프지 않니? 조금만 참아라.》

평양역홈

려객전무가 옥금이 가방을 들어주며 렬차에서 내려 선다.
옥금 《어느쪽으로 갈가요?》
《그저 날 따라 오면 됩니다.》
《예, 그럼 가자요.》
《아, 복잡한 지하나들곳엔 들어 서지 말구 이쪽으로 갑시다.》

렬차안

손님들은 다 내렸건만 근심에 잠겨 앉아 있는 윤옥이와 그의 딸.
윤옥 《야, 어찌면 좋니?》
광수와 복재가 여기로 다가온다.
광수 《아주머닌 왜 내리지 않습니까?》
《대위동지, 내리자구보니 이 가방이 바뀌였군요.》
《참, 답답하구만. 가방이 바뀌도록 뭘 했습니까?》
《이 앨 살펴보는 사이에 글쎄…》
《아주머니, 역전분주소에 신고하십시오. 우리들한테 맡겨진 임무는 렬차가 멎는 여기서 끝납니다.》
경미 《아저씨, 우리 어머니 가방 좀 찾아 주세요.》
광수 《글쎄 역전분주소에 가라구 하지 않느냐? 자 복재동무, 빨리 가자구. 아주머니두 앨 데리구 빨리 내리구요. 자 어서…》
광수가 자리를 뜨자 복재가 묻는다.
《어데서 오십니까?》
《혜산에서 옵니다. 제 농업과학원 혜산분원에서 일하는 연구삽니다.》
《아, 그렇습니까?…》하고는 경미를 측은히 내려다본다. 《딸입니까?》《예.》
경미 《아저씨 도와주세요.》
선뜻 대답을 못하는 복재를 보며 실망에 잠겨 딸의 손목을 잡는 연구사 윤옥.
《경미야, 가자. 아저씬들 이 밤중에 어디 가서 찾겠니?…상위동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찾아 보겠습니다. 이제 나타나겠지요 뭐. 자, 어서가자.》
수수한 작업복차림에 색날은 배낭을 메고 어린 딸애의 손목을 꼭 잡고 나가는 연구사의 뒤모습을 바라보던 복재가 《아주머니!》하며 따라간다.
《이 가방안엔 뭐가 들어 있습니까?》
《글쎄요. 얼핏 열어보고서는…》
《제 좀 봅시다.》
가방안에는 외국제상표가 붙은 양말이며 《련호수산사업소》명판이 찍힌 봉투가 나타난다.
그 봉투속에 들어있는 몇장의 딸라.

복재 《연구사선생 가방엔 뭐가 있습니까?》
《저, 농업과학원에 가져 오는 연구자료들입니다.》
그말에 우정 롱조로 말하는 복재.
《예, 그러니까 가방이 바뀌여도 크게 손해를 볼것 같진 않군요.》
《그 연구자료들을 어찌 몇푼의 돈에 비기겠습니까?》
《그렇테지요.》 생각이 깊어지는 복재.

복재의 집안

광수가 자기 처와 어린 철이를 앞세우고 복재어머니 생일을 축하하러 찾아 왔다.
철이 《할머니!》
《아이구, 우리 철이가 왔구나.》하며 철이를 닁큼 안아 주는 분녀.
광수 《어머니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이 밤중에 어떻게?》
《그런데 복재동문 안 왔나요?》
《아직 안 왔는데.》

어느 려관접수실(밤)

복재가 려관접수원과 말하고 있다.
접수원 《그런 손님은 들지 않았군요.》
《안됐습니다.》《안녕히 가십시오.》
어데론가 나가는 복재.

복재네 집안

철이를 안고 생일상에 마주 앉는 분녀.
《뭘 이렇게 술한걸…》
《그러지 마십시오. 절 친자식처럼 돌봐 준 어머닌데…》
분녀가 철이를 껴안으며 부러워 한다.
《우리 집두 언제면 요런 귀염둥이가 생기겠는지…》
《걱정 마십시오. 내가 소환되여 간다 해두 복재장가문제야 잊겠습니까?》
《소환되다니?》
《나 먹을래.》하며 철이가 도마도를 쥔다.
《아— 버릇없이.》
《아, 놔두라구. 먹어라.》
광수 《솔직히 말해서 비좁은 렬차칸에 갇혀 일년 열두달을 꽥꽥거려야 뭐…》
《렬차칸이 어쨌다구.…》
《아닙니다. 우리안에 갇힌 범이 일을 칩니까? 빨리 도약해야 합니다. 이제 저의 일이 잘되면 복재일도 자연히 잘되기마련이지요.》
광수 부엌에 대고 소리친다.
《여보, 내가 준 특별과업 있지?》
《예?》하며 광수 처가 수박 그릇을 들고 밥상에 마주 앉는다.
광수 《복재동무 색시감 말이야.》

《좋은 처녀가 있어요. 내 보건댄 나무랄데가 없더군요.》

《그런데 왜 우물거려, 속전속결해야지.》

《알지두 못하면서… 아무일이든 다 순서가 있는 법인데 무턱대고 덤비면 돼요?》

《순서는 무슨 순서, 하여튼 인물부터 고와야해. 하여간 사진이라두 내가 먼저 봐야겠어.》

그들의 말을 들으며 수박 한쪽을 집어 드는 분녀.

《수박은 참 이상두 하지. 겉은 이렇게 파란데 속은 이렇게 빨갛거든. 자, 들라구.》

광수가 그말에 생각이 깊어진다.

《어머니 말씀에 무슨 철학이 있는것 같군요.》

《아니, 난 그런건 몰라. 그저 푸른견장을 단 사람들두 이랬으면 좋겠거든.》

《허허… 어머니 말씀이 참 명담이군요.》

분녀가 철이에게 과일을 집어준다.

《어서 먹어라.》

광수처 《할머니 힘드시겠다.》

분녀 《이 앤 어찌된셈이냐? 모두 기다리는데…》

시계는 지금 10시반을 가리키고 있다.

광수 《아무래도… 어머니, 먼저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거리

복재가 땀을 흘리며 오고있다.

복재네 집안

광수가 어머니에게 술을 붓고 있다.

《어머니, 아들을 대신하여 올리는 잔을 받으십시오.》

광수처 《어머니 건강하십시오.》《고맙네.》

창밖으로 보이는 불밝은 평양의 야경.

아빠트 현관(밤)

복재가 아빠트마당으로 들어 서는데 광수네 가족이 현관에서 나온다.

《광수.… 철이 어머니까지 이렇게…》

《늦으셨군요.》

《예, 정말 안됐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만…》

복재가 철이를 넝큼 안는다. 《철이야, 아저씨네 집에 들어 가 자구 가자.》《응.》

《자, 어서 들어 갑시다.》

광수 《됐네, 당신은 앨 데리구 먼저 앞서오.》

《예, 그럼 전 먼저…》

《복재, 왜 이렇게 늦었나?》

《렬차칸에서 가방이 바뀌여 안타까워 하던 녀인이 생각나겠지?》《그래서?》

《지방에서 온 연구사더군. 그들 모녀를 보고는 그냥 돌아 서지 못하겠더란 말이야.》

《음— 그래 찾아 줬나?》

《찾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그냥 왔네. 래일 꼭 찾아 주겠네.》

《괜찮군, 그래? 한 녀인의 가방을 들고 돌아칠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다리며 밤새 시계만을 쳐다보고 계실 어머니 생각은 안나던가? 아픈 마음만을 안고 아들만을 기다릴 어머니가 말이야.》

《광수!》

《됐네. 어서 들어 가서 어머니 노여움을 풀어드리라구.》 광수가 자리를 뜬다.

무거운 마음으로 의자에 가 앉는 복재.

이때 분녀가 다가와 《복재야.》한다.

《어머니!》

《왜 이러구 있니?》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아니다. 내 이자 너희들 이야기를 다 들었다.》

《예?!》

《그런데 그 녀인의 가방을 끝까지 찾아 주지 않구 그냥 돌아서다니.… 그건 옳은 처사 같질 않구나. 이 에미 하나가 뭐라구… 그 녀인은 아마 지금두 널 기다리구 있을게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 마음을 리해해 줘서.…》

《무슨 소릴 하니?》

《어머니 여기서 돌아서겠습니다.》《오》

《가방을 꼭 찾아 주겠습니다.》

《그래라. 너야 인민의 복무자가 아니냐?》

《예, 어서 들어 가세요.》

《가만, 시장할텐데 얼른 한술 뜨구 가렴.》

《됐어요. 갔다와서 먹을래요. 들어 가세요.》

복재가 어둠속을 다시 걸어 간다.

아들을 대견스레 바라보는 분녀.

어느 벼랑우(회상)

철도복 차림의 분녀가 홰불이 타오르는 벼랑우에서 함마질을 하고 있다.

여기로 밥그릇을 들고 오고 있는 어린시절의 복재. 《어머니.—》

못들은듯 여전히 함마질을 하고 지레대로 돌을 들추어 내는 분녀.

복재 《어머니, 저하구 같이 당기자요.…》

지레대를 함께 당기는 모녀.

돌들이 벼랑아래로 굴러 내린다.

이윽고 들고 온 간데라불옆에 밥그릇을 내놓는 복재. 《어머니, 여기 앉으라요. 자, 어서 밥 잡수세요.》

《내가 널 고생시키는구나.》

《일없어요. 그런데 어머닌 철길감시원인데 왜 여기 벼랑을 까나요?》

《오, 그건 저 철길로는 늘 렬차가 다니지. …우리 수령님께서 현지지도의 먼길을 가실때두 늘 여기로 지나가신단다.

그런데 이 돌이 철길에 떨어진다구 생각해보아라.》 어머니를 바라보는 어린 복재.

밤거리(현실)

복재가 공중전화기에 다가가 전화번호를 돌린다. 그 전화번호판우에 전화를 받는 여러 접수원들 얼굴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어느 려관

전화를 받는 접수원녀인.

《예, 여기 그런 손님이 들었습니다.》

공중전화소

《그래요?》 하며 기뻐하는 복재. 《곧 가겠습니다.》

어느 려관안

가방을 그러안으며 기쁨에 넘치는 옥금.

《아?!—내 가방!》

복재 《틀림 없습니까?》

《예, 틀림 없습니다.》 하고는 무슨 생각이 났던지 가방을 부랴부랴 뒤지다가 사색이 되는 옥금.

《이안에 봉투가 하나 있었겠는데…》

《무슨 봉투입니까?》《돈…》

복재는 그제야 주머니에서 돈봉투를 꺼낸다.

《이거지요.》《예.》

《제대로 다 있나 보십시오.》

《맞습니다. 야 상위동지, 이 신셀…》

《이러지 마십시오.》

복재의 친절한 언행에 스스럼없이 묻는 옥금.

《아니, 저 혜산행렬차…》

《예, 그 렬차를 탑니다.》

《아이, 글쎄 낯이 익다 했지요. 그러니 전무동무를 알겠군요. 창호라구.…》

《예, 압니다.》

《그럼 광수 조장두요?…》

복재 《광수동무두 압니까?》

《예, 우린 그저 동생 누이처럼 지내는 사이랍니다. 오늘두 전무동무가 가방을 바꿔들구 내리는통에… 호호… 상위동지 정말 수고했어요.》

옥금은 복재의 팔까지 툭툭 건드리며 애교를 부린다. 《상위동지, 날 알아서 손해볼건 없어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가방을 찾았으니 됐군요. 하지만 아주머니, 미안하지만 증명서를 좀…》

《예?… 예.》

어딘가 당황해 하며 증명서를 꺼내는 옥금.

복재가 증명서를 유심히 보고야 돌려 준다.

《됐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까?》

《고려중앙병원에서…》

《예, 이쪽 가방은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예, 제가 인차 갔다 오겠습니다.》

이윽고 가방과 담배 한막대기를 들고 달려오는 옥금. 《밤새 수고하셨는데 이걸 받으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야— 절 례절없는 녀인으로 만들렵니까?》

《전 자기가 할 일을 했을뿐입니다.》

《상위동지!》

옥금은 끝내 거절하고 돌아 가는 복재를 한동안 바라본다.

과학자려관밖 (밤)

경미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다.

여기로 달려 오는 윤옥.

《경미야… 경미야, 왜 여기에 내려와 있니?》

《어머나, 가방을 못 찾았나요?》

《됐다. 어서 들어 가자.》

이때 가방을 든 복재가 현관쪽에서 오고 있다.

《연구사선생님!》《아니?! 상위동지!》

《이 가방을 보십시오.》

《옳습니다. 제 가방입니다.》

《그럼 됐습니다》

윤옥 《그러니 제 가방때문에 온밤…》

《괜찮습니다.》

《정말 어떻게 인사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러지 말구 어서 열어 보십시오.》

《남이 가져갈건 없습니다. 그저 연구자료들밖엔…》

《그게 얼마나 귀중한겁니까? 연구사선생의 고심어린 탐구가 깃든건데…》

《그러지 마십시오.》하고는 자기를 반성하듯 나직이 말을 잇는 윤옥.

《연구사란 말을 듣기가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일을 쓰게 하지 못하다나니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해서…》

복재 《예,… 그러니 출장길에 겸사 이 앨 데리구 왔군요.》

《적십자병원에서 수술을 해야겠다고 해서…》

《그래요?!》

경미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수술을 잘 받아라, 알겠니?》 《예.》

《선생님, 연구성과를 바랍니다. 애 치료두 잘하구요.》

《상위동지,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밤도 깊었는데 어서 들어 가십시오.》 《예.》

《자! 그럼.》 거수경례를 하고 돌아 서는 복재.

경미 《아저씨 잘 가세요.》

《어서 들어 가십시오.》

《예.》 눈굽을 적시며 오래도록 복재를 바라보는 윤옥과 경미.

철길

철길에 나와 있는 분녀.

집으로 오고 있던 복재가 어머니를 보더니 걸음을 멈춘다. 《아니?!… 어머니!》

《복재야.》

《왜 쉬지 않구 나왔습니까?》
《잠이 오지 않더구나.》
《참 어머니두… 가방을 찾아주었습니다.》
《잘했다. 우리 철길을 따라 걷자꾸나.》
《예.》
새벽안개속으로 나란히 걷는다.
분녀 《이렇게 걷느라니 너의 아버지 생각이 나는구나. 시한탄을 안구 위험천만한 길을 걸어 가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시장했지?》
《…》
《비록 철길순회원이긴 했으나 너의 아버진 오직 수령님을 두줄기 철길우에 모신다는 그 한가지 생각으로만 살아 왔다. 언제나 그걸 잊지 말어라.》
《알겠습니다.》
아득히 보이는 두줄기철길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어머니와 아들.
여기에 노래가 울린다.

먼 후날 나에게도 애들이 자라나
아버지 청춘시절 물을 때 있으리
그러면 인민의 안녕을 지켜 싸운
그날의 푸른견장 떳떳이 보여 주리
그날의 푸른견장

그 노래속에 고려중앙병원에서 접수대장을 보는 복재의 모습,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복재의 모습이 흘러간다.

보안원방

복재가 전화를 하고 있다.
《예, 예. 신포시 련호수산사업소 인수원 차옥금, 예… 그 녀인의 려행목적은 병치료로 되여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게 되였다는 병원에 와서 확인한데 의하면 려행목적이 병치료가 아니라는것이 확인되였습니다. 예, 려행목적과 적지않은 외화사이에 의심이 가기때문에, 예 그래서 해당기관에 통보해 드리는겁니다.》

신포보안서

《고맙습니다.》하며 전화를 받는 소좌.
《그러지않아도 우리두 그에 대해서 료해중이였는데 제때에 알려 주었습니다.》

평양승차보안서

선희가 정문앞에 서 있다.
이때 정문을 들어서던 승용차가 선희앞에서 멎더니 상좌견장을 단 정치부장이 내려선다.
《나갈 때두 본 동문데… 왜 아직까지 서있소?》
《저— 렬차 승무조원들을 좀 만나자구 왔습니다.》《누구를?!》
《이름은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 도착했을겁니다.》
《어제 저녁?!… 오, 광수동무네 조로구만, 가만, 그 동무들은 오늘 아침 집체적으로 렬사릉에 갔는데… 동문 누구요?》
《서포피복공장 보위대장입니다.》
《예, 그런데 무슨 일루…》《저… 사실은…》
《말하오. 내 여기 정치부장이요.》《예?!》
선희는 그제야 놀라며 몸가짐을 바로한다.

대성산렬사릉

광수네 조원들과 가족들이 영웅메달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광수 《자 모이시오, 그런데 복재동무가 안보인다, 못 봤소?》
조원 《못 봤습니다.》
광수 《하여간 한장 먼저 찍구 보자구. 자! 영웅메달을 배경으로 찍는것만큼 가슴들을 쭉 펴구… 그렇지, 영원한 기념이 될거요.》
이 시각 복재는 렬사릉의 어느 대리석계단에 앉아 수첩에 글을 쓰고 있다.
그 글이 복재의 목소리로 울린다.
《오늘 우리는 대성산렬사릉을 찾았다. 모두가 영웅메달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으나 나는 그앞에 다가설수 없었다. 혁명선렬들의 숭고한 모습앞에 내 어찌 가슴 펴고 나선단 말인가? 선렬들의 넋은 말해 주고 있다. 〈혁명의 수령을 결사옹위하라!〉 내 이 신념을 안고 이 신념으로 살리라.…》
숭엄한 감정으로 투사들의 반신상을 우러러 보는 복재.

승차보안서 훈련장

승차보안원들이 격술훈련을 하고 있다.
여기에 《훈련 그만.》하는 소리.
복재와 광수가 휴식터에 나란히 앉는다.
이때 직일관이 광수에게 달려 와 보고한다.
《대위동지, 소위 김현철 만날수 있습니까?》
《예.》
《정치부장동지가 찾습니다.》《날?》
《예, 복재동지두 같이.…》

정치부장 방

정치부장이 두사람을 쳐다본다.
《거기들 앉소.… 광수동무!》《예.》
《동문 언제 가야 그 버릇을 고치겠소?》
뜻밖의 추궁에 어쩔바를 모르는 광수.
《모르겠소? 문제 처리에서 심중치 못하고 사람들앞에서 떽떽거리는 그 못된 습관 말이요. 동무가 무턱대고 증명서를 빼앗아서 한 제대군관 처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하는가?》
그제야 알겠다는듯 서로 마주 보는 광수와 복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인민의 충복이 돼야 한다구 그토록 강조하구 계시는데 동문 그게 뭐요?… 처녀는 자기 잘못이라고 했지만 난 그렇게 보지 않소. 동무한테 문제가 있소, 앉소. 그리구 복재동무…》《예.》
《서포피복공장에 후문이 몇이던가?》
《둘입니다.》
《둘이다?!… 확실하오?》《예!》
《좋소. 믿기오. 그럼 그 공장 보위대장은 아오?》《압니다.》
《누구요?》《김철수라구 저의 동창생입니다.》
《그것두 확실하오.》《예.》
《정말이지?》《정말입니다.》
《좋소. 다시 알아보구 나한테 와서 직접 보고하오. 알겠소?》《알았습니다.》
《동무들은 지금 당장 서포피복공장으로 가오. 모든것을 제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뭔가 잘못된것이 있으면 처녀를 만나 사죄하오. 증명서두 책임적으로 돌려 주구.…》
《알았습니다.》 일시에 대답하는 두 사람
《떠나오.》

거리

광수와 복재가 오토바이를 타고 처녀를 찾아 간다.
복재 《그 처녀가 여기까지 찾아 와서 정치부장동지를…》
광수 《당장 가자구. 가서 동창생 보위대장두 만나구 처녀한테 후문두 확인시키구… 버릇을 좀 단단히 가르치자구.…》

피복공장 접수실

《보위대장 말이지요?》하며 복재와 광수를 쳐다보는 접수원아바이. 《예.》
《알겠수다.》하고는 급히 전화를 하는 접수원.
《여보시오. 보위대장동무 있소?… 예 들어 오면 정문에 손님들이 오셨다구 알려 주시우. 예.》
광수 《아바이, 하나 좀 물읍시다.》《예.》
《이 공장에 후문이 몇입니까?》
《하나지요.》
깜짝 놀라 마주 보는 광수와 복재.
접수원 《원래 둘이던걸 하난 막아 버렸수다.》
복재 《언제요?》《한달쯤 됐을가?》
광수 《이거 어떻게 된거야?》
복재 《아바이, 보위대장은 김철수동무가 그냥 하겠지요?》
《그 동문 구역당학교에 갔수다.》 《예?!》
놀라는 두사람.
《대신 녀성제대군관이 새로 왔는데 인기가 대단하지요. 아! 저기 나옵니다.》
공장구내길로 산뜻한 적위대복차림의 선희가 오고 있다.
그를 보자 당황해서 복재를 이끄는 광수.
《여, 처녀의 증명서는 접수에 주라구. 이런 땐 삼십륙계 줄행랑이 상책이야.》
허나 그냥 서 있는 복재.
광수가 다시 독촉한다. 《왜 그래?》
《사죄해야지.》《뭐?!…》
《나의 잘못된 연선료해수첩때문에 저 처녀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았는데 응당 내가 빌어야지.》
《하긴… 자, 난 저기 나무밑에 가서 기다리겠네.》《광수동무!》
이때 선희가 정문으로 나오더니 복재를 보자 의아해 한다. 《아니?》
《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
《동무의 증명섭니다.》
선희 《안됐군요. 우정 걸음을 걷게 해서‥》
나무뒤에 숨어 넌지시 지켜보는 광수.
복재 《정말 안됐습니다. 동무는 나의 무책임성에 대하여 할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알아 보았습니다. 나의 연선료해수첩이 잘못됐다는것을 명백히 인정했으며 그 실태를 그대로 정치부장동지에게 보고하고 응당한 비판을 받겠습니다. 사죄합니다. 안녕히.》
황황히 돌아 서는 복재의 뒤모습을 선희가 빙긋이 웃으며 한동안 바라본다.

평양역

출발을 앞두고 서 있는 혜산행렬차.
여기로 정치부장이 승차가방을 멘 복재와 나란히 걸어 오고 있다.
정치부장 《교훈을 찾았으면 됐소. 사실은 연선료해수첩을 잘 리용하면 근무수행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지. 철도연선의 주민구성과 류동, 공장, 기업소는 물론 철도시설물들을 환히 꿰뚫을수 있거든. 그래서 나두 동무의 발기를 지지했던거요.》
《정치부장동지! 경애하는 장군님을 두줄기 철길우에 모신다는 립장, 언제나 수도 보위견지에서 연선료해수첩을 빈틈없이 준비해놓겠습니다.》
《그렇게 하오.》

렬차앞

인수원 옥금이가 승강대앞에 서 있는 려객전무에게 반기며 달려간다. 《창호동무!》
《아,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짐들은 수화물칸에 실었어요.》
《어서 오릅시다.》 드디여 렬차가 떠난다.

달리는 렬차안

어느 한 좌석에서 책을 보고 있던 연구사 윤옥이가 렬차안을 살피며 걸어 오는 복재를 보더니 무척 반긴다. 《상위동지!》
《아, 연구사선생이 아닙니까? 왔던 일은 다잘됐습니까?》

《잘됐습니다. 애두 입원시켜 놓았구요.》

《그럼, 그앨 혼자?…》

《글쎄 그 애가 오히려 날 막 떠밀면서 어머닌 빨리 가서 연구사업이나 하라나요. 의사선생님들도 모두 걱정 말라면서 얼마나 극성스럽던지… 그래서 난 마음 놓고 갑니다.》

감동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는 복재.

식당칸

옥금이가 지금 갖가지 음식을 차려 놓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로 익살을 부리며 복재와 광수를 데리고 오는 려객전무 창호.

《자! 모셔 왔수다.》

광수 《아, 옥금아주머니군요.》

옥금 《조장동지, 안녕하셨어요?》

광수 《이거 내가 잘못 온게 아닌가?》

《사실은 저 상위동지한테 가방을 찾아준 신세갚음을 하려구.…》

《오. 그러니, 내가 확실히 잘못 왔구만.》

광수가 우정 자리를 뜨려하자 옥금이 《조장동지, 또 연극 논다.》하고는 복재의 팔을 잡아 끈다.

《오늘 주인공은 상위동지예요. 자, 여기 앉으세요.》

《이러지 마십시오.》《아, 상위동지.》

복재는 손에 든 증명서를 보인다.

《이걸 보십시오. 다음역에서 내릴 손님건데…》

《그럼 기다리겠어요.》《시작하십시오.》

그 바람에 광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옥금.

《저 사람은 꽤나 용해 빠진것 같애.》

《그래두 원칙앞에선 칼끝에라도 올라 섭니다.》

옥금은 사이다를 권하며 아양을 편다.

《자! 씨원히 마시세요.》

《언제 봐야 옥금아주머니가 우리들의 수고를 알아 준단말이야.》

이때 렬차방송원의 목소리.

《다음역은 중흥역입니다. 내리실 손님들은 준비하십시오.》

광수 《벌써 중흥역이?》 하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렬차승강대

광수가 승강대에 서있는 복재에게 다가온다.

《복재동무, 벌써 중흥역이야?》

《그렇네. 그런데 언제부터 그 녀인과 잘 아는 사이가 됐나?》

《사람을 많이 알게 되는것이 우리들의 생활이지.》《그래?》

《그 인수원이 참 괜찮은 녀인이야. 씨원씨원하구 통이 크구 인상 좋구. 사실이야 녀자의 몸으로 인수원을 하자니 얼마나 고생이 많겠나?》

《그 녀성에 대한 좋은 인상이 장차 동무생활에 문제가 될수도 있어.》

《그건 또 무슨 소린가?》

《명심하라구. 그 녀인이 전무와 동무한테 붙어서 임의의 시각에 마음대로 평양에 드나든다는 여론이 있어. 한갖 인수원이 돈 냄새를 풍기면서 말이야.》

《지나친 억측이 아닌가? 난 지금껏 수도 평양을 지켜섰다는 자각만은 한번도 잊은적이 없네. 마음 놓으라구.》

《하여간 잘 알아 보게. 해당 기관에서도 썩 좋게 보는것 같지 않더구만.》

차창밖으로 산이 지나가고 바다가 지나간다.

신포시보안서 부부장 방

전화를 받던 소좌가 부부장에게 보고한다.

《상좌동지, 소좌 리영호 만날수 있습니까?》

《예.》

《수산사업소 인수원 차옥금이 방금 도착했습니다. 반영에 의하면 오자마자 희귀한 외화상품들로 고급어족들을 교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평양승차조 동무들이 문제를 옳게 본것 같소. 잘 알아 보시오. 평양엔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며 목적은 뭔가? 그리구 어떤 대상들과 접촉교재하는가 이런것들을 말이요.》

힘주어 말끝을 맺는 부부장.

철길

복재는 늘 철길로 집을 오고 있다.

침목이랑 철길상태를 살피며…

철길옆 산비탈

피복공장보위대처녀들이 작업총화를 짓고 있다.

선희 《모두 수고들 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지원사업에 적극 동원됩시다. 그럼 근무성원들은 공장에 들어 가고 나머지 동무들은 퇴근하세요.》

대원① 《대장동지,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

대원② 《대장동지, 이 곡괭이를 어떻게 할가요?》

《나한테 주면 돼요.》《알았습니다.》

땅에 있던 곡괭이를 집어주는 대원.

이때 철길로 걸어 오던 복재가 선희를 보더니 슬그머니 얼굴을 돌린다.

선희 《아니?!… 상위동지!》

하는수없이 시선을 돌리는 복재.

《대장동무가 철도지원사업에 앞장섰군요.》

《그런데 어떻게 이쪽으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아, 집이 서포라구 했지요?》

《예, 동무들이 가누만요. 같이 가보십시오.》

《전 철길소대에 이 곡괭이를 주구 ‥》

《그래요.》 그들은 철길을 따라 걷는다.

침목앞에서 걸음을 멈춘 복재가 삐여져 나은 레루못을 보고 말한다.

《저… 곡괭이를 좀 주겠습니까?》

레루못을 박고 있는 복재를 선희가 감동어린 눈길로 지켜 본다.

선희 《주십시오.》《아, 그냥 갑시다.》

두사람은 다시 철길을 따라 걷는다.

철길옆에서 꽃씨를 뿌리고 있는 소년단원들.

복재 《아이들이 꽃씨를 뿌리는군요.》

《그래요.》

《듣자니 대장동무도 군사복무를 철도연선에서 했다는것 같던데…》

《예. 렬차의 동음을 들으며 평양두 생각했구…》

《예.》

침묵을 따라 걷는 두사람.

철길 건늠길초소

달려 오던 우편차가 차단봉이 내리자 멈춰 선다.

운전칸에 앉아 있는 광수처와 철이.

철이 《엄마, 저기 아저씨야, 아저씨…》

차단봉옆으로 복재와 선희가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며 가고 있다.

의아해서 지켜 보는 광수처.

《아니, 언제 벌써…》

여전히 함께 걸어 가는 선희와 복재.

선희 《꽃씨를 뿌리는 아이들을 보니 중대를 떠날 때 놓친것이 많았군요. 철길주변에 심을 고운 꽃씨도 장만해 주지 못하구…》

《여기서 헤여져야겠습니다. 난 이쪽으로…》

《안녕히 가십시오.》《안녕히 가십시오.》

서로 인사를 하며 헤여지는 두사람.

광수네 집안

사진액틀을 걸고 있는 광수.

《철이야, 멋 있니?》《응.》

《여보, 당신두 올라 와서 좀 보오.》

광수처가 사진액틀앞으로 다가온다.

《영웅메달앞에서 찍은 사진이군요. 그런데 여보, 가슴은 왜 저렇게 쭉 내밀구 찍었어요. 자기두 영웅이나 된듯이…》

《영웅이 못될건 뭐야. 이제 렬차에서 내려만 보지.》

광수처가 눈을 흘긴다. 《흥, 철이야, 우습지.》

《그건 그렇구. 내가 준 특별과업은 어떻게 됐어?》

《복재아저씨 일은 저절로 척척 돼가고 있어요.》

《어떤 처녀야?》《또 인물이예요?》

《나야 당신처럼 못 생긴 녀자와 살지만 복재야 그럴수 있나?》

그 소리에 《눈을 감으라요.》하고는 책장에서 사진 한장을 꺼내오는 광수처.

《눈을 감으라니까요.》

철이가 광수의 눈을 감긴다. 그제야 광수의 눈앞에 사진을 내대는 처.

《눈을 뜨세요.》《엉?!…》

뜻밖에도 군복을 입은 선희가 사진속에서 웃고 있다.

《이건 뭐야?… 당신이 이 처녈 어떻게 알아?》

《그 공장을 담당한 통신원인데 왜 몰라요.》

《이 처녀 안돼.》《예? 이 처녈 알아요?》

《알아. 고자질 왕초인데다가 코대가 세기를 이를데 없어. … 이건 본다는게 어데서…》

《그래두 둘이 눈이 맞아 철길쪽으로 산보하면서 다정하게두 걸어 갑디다.

정말 부럽더군요. 철이야, 맞지?》《응, 맞아.》

눈이 둥그래서 다우쳐 묻는 광수.

《그게 정말이야?》

《내가 언제 거짓말을 합디까?》

정치부장방

분녀가 웬일인지 정치부장을 찾아 왔다.

《안녕하시유.》

《아니? 어머님이 어떻게?》

《돼지사롤 좀 가져 오느라구…》

《어머니두 참, 그 먼데서 이렇게…》

분녀가 정치부장의 손에 이끌려 쏘파에 가 앉는다.

《그건 그렇구요. 우리 복재가 처녀를 봤다는군요.》《예?》

《그런데 그 처녀가 탐탁치 않다구 해서…》

《오, 어떤 처년데요?》

《서포피복공장 보위대장이라나요.》《예?》

정치부장 《아, 그렇지. 거 정말… 그런데 어머니, 그 처녈 누가 나쁘다고 합디까?》

《옆에서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 처녈 압니까?》

《압니다. 제대군관인데 나무랄데 없는 처녑니다.》

《그래요?!》《예.》

마음놓으라는듯 머리를 끄덕이는 정치부장.

병원 수술실

경미를 찾아온 복재가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마침 녀의사가 나온다.

《아, 선생님. 아무래두 시간이 안되겠군요.》

《걱정말구 가보세요.》

《예, 부탁합니다. 연구사업때문에 먼데서 오지 못하는 어머니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복재는 들고 온 구럭을 가리킨다.

《저 변변치 않지만 경미한테 전해 주십시오.》

《예.》《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어데선가 들려 오는 기적소리 《붕—》

렬차안(일반침대칸)

복재가 연구사와 조수처녀를 어느한 좌석에 앉힌다. 《여기 앉으십시오.》
《일반차표인데 어떻게 여기에…》
《일없습니다. 자. 조수동무도 어서…》
여전히 불안해 하는 윤옥. 《일반칸에 갑시다.》
《걱정마십시오. 연구사선생 같은분들은 꽃방석에 앉혀두 아깝지 않기때문에 그러는겁니다. 내 전무동무를 만나겠습니다. 다른게 없을겁니다.》
복재가 자리를 뜨자 렬차원이 다가온다.
《손님, 차표를 좀 봅시다.》
미안해하는 연구사. 《일반차표입니다.》
《자리를 내십시오. 자, 일반칸에 가십시오.》
그 소리에 저쯤 걸어 가던 복재가 다시 돌아 온다. 《렬차원동무, 내가 앉혔으니 나한테 물어 보오.》
《저 전무동지가 이걸…》
렬차원이 복재에게 쪽지편지를 보인다.
거기에 씌여 진 글.
《이 손님에게 3번 좌석을 보장하시오.》
이때 인수원 옥금이가 여기로 오더니 복재를 먼저 반긴다. 《아니? 상위동지가?》
《인수원아주머니군요. 어델 가십니까?》
《자재때문에 혜산에 가지요 뭐. 렬차원, 내가 잘 아는 상위동지야.》
《그러니 이게 아주머니가 가져온 쪽지입니까?》
《예, 전무동무가…》
《이거야 쪽지지 차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사선생, 마음놓고 앉아 가십시오. 렬차원동무, 내 전무동무를 만나겠소.》
복재는 연구사가 앉는걸 보고서야 자리를 뜬다.
옥금 《아니, 제가 뭐 이 렬차를 좌지우지하나? 나 원참, 정말…》
연구사가 듣기 거북한듯 슬며시 일어선다.
《아주머니, 여기 앉아 가십시오.》
《됐어요. 저 사람들 안면에야 견디나요.》
새파래서 돌아서 가는 옥금.
차창밖으로는 고산지대의 산발이 지나간다.

서포 강가

보위대처녀들이 빨래를 하고 있다.
대원 ① 《대장동지, 중대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하며 일손을 놓는 선희.
대원 ② 《무슨 편지가?!》
대원 ③ 《대장동지, 제가 읽읍시다.》
보란듯이 편지를 주는 선희. 《자.》
《읽겠습니다. … 그리운 중대장동지에게! 중대장동지, 얼마전 10렬차 리복재상위동지가 중대에 꽃씨를 전해주었습니다. 중대장동지가 보낸 꽃씨와 상위동지의 편지를 보며 온 중대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선희 《꽃씨라니?!》
편지를 읽는 처녀의 목소리가 계속된다.
《…여기에 상위동지의 편지도 함께 보내니 그에게 중대의 인사를 꼭 전해 주십시오. 거듭 부탁합니다. 정말 좋은분이더군요.》
감동하는 처녀들.
편지를 읽던 처녀가 《계속하여 리복재상위동지가 초소군인들에게 보낸 편집니다.》
하고는 다시 읽기 시작한다.
《조국의 철길연선을 지키고 있는 포병동무들! 이 꽃씨는 동무네 중대장동무의 마음이자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잠시라도 향기 그윽한 꽃밭속으로 가시도록 동무들이 이 꽃씨를 활짝 꽃 피워주십시오.》
깊은 감동속에 앉아있는 선희.

평양승차보안서 정치부장방

정치부장이 《예. 들어 오십시오.》하고 눈길을 드니 선희가 방안에 들어 선다.
선희 《안녕하십니까?》
《아이구… 보위대장동무가 어떻게?…》
《저… 리복재상위동지를 만날 일이 생겨서…》
정치부장이 빙그레 웃는다.
《이것 보지, 만나야 할 사람들은 이렇게 제발로 찾아 온다니까. 하하…》
《어마나, 아닙니다, 정치부장동지… 사실은…》
선뜻 말을 떼지 못하는 선희.
《복재동무를 찾아 온 사연을 말하오.》
《저… 그 상위동지가 우리 중대에 꽃씨를 보내주었습니다.》
《꽃씨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을 가실 때 잠시라도 꽃밭속으로 가시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음—》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정치부장.
《그래서 중대병사들이 그 상위동지에게 감사편지를 보내왔는데 저보구 꼭 전해달라구 해서…》하더니 편지봉투를 꺼내놓는 선희.
정치부장이 시치미를 뗀다.
《그런건 본인에게 직접 전해야지, 직접…》
《아니, 정치부장동지가 전해주면 됩니다.》
《아니, 난 그런 심부름을 들어 주지 않겠소. 내가 뭐 동무 심부름군이요?》
《예?》
이때 역전쪽에서 기적소리가 《붕—》 울린다.
정치부장 《가만, 이제 곧 평양역에 나가보오. 혜산에서 오는 렬차가 당장 도착할 시간이 됐소. 나가서 본인에게 직접 전하오. 어서.》
어쩔바를 몰라 하는 선희.

정치부장은 선희가 들고 왔던 우산과 자기 비옷을 벗겨 안겨 준다.
《자, 우산… 그리구 이 비옷은 우리 복재에게 가져다 씌워 주구…》
《어마나?!… 이거야 어떻게…》
《동무, 난 그래두 일부러 사람을 띄워서 동무에게 증명서까지 보내주었는데 그래, 이쯤한 심부름도 못 들어 주겠소. 자!》
그제야 비옷을 받아 드는 선희.
《돌아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허허… 진작 그랬어야지.…》
정치부장이 뜻 있는 웃음을 짓는다.

평양역

방금 도착한듯 승차가방을 멘 복재가 개찰구를 나서는데 뒤에서 《상위동지!》하는 처녀의 목소리가 들려 온다. 선희가 비옷을 들고 서 있다.
《아니?》
《안녕하십니까.》
《아니? 대장동무가 어떻게?》
《정치부장동지를 찾아 갔더니 역전에 나가라구 알려 주더군요. 이 시간에 나가면 만난다구…》
《그런데 무슨 일루?…》
두사람은 약속이나 한듯 나란히 걸어 나온다.
《우리 중대동무들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중대에 꽃씨와 편지까지 보내준 상위동지에게 꼭 전해달라면서…》
이때 뒤따라 나오던 광수가 이들을 보더니 기둥에 숨어서 지켜 본다.
선희 《정말 고맙습니다. 언젠가 꽃씨이야기를 한적이 있었는데 상위동지가 그걸 구해서 중대에…》
《그러지 마십시오. 난 동무의 그 마음에 자신을 비춰 봤을뿐입니다.》
《지나치게 겸손한 말씀을 하시니 할 말도 못하겠군요. 전 돌아 가서 중대에 편지를 쓰겠습니다. 상위동지에게 인사를 전했다구…》
두사람이 어느덧 출입문앞까지 오고 보니 밖에서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다.
그제야 생각난듯 비옷을 내미는 선희.
《저 이걸 쓰십시오.》
《고맙습니다. 날 생각해서 이렇게 비옷까지…》
《아닙니다. 전 그저 심부름을…》
《심부름이라니요?》
《글쎄, 정치부장동지가 자기 비옷을 전해 달라면서 강제로 주더군요. 제가 좀 멋적어 하니까 욕까지 하면서…》
《하하.》하며 어줍게 웃는 복재.
《어서 쓰십시오.》
선희가 복재에게 비옷을 씌워준다.
기둥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 보는 광수.
《저것 보지!》
비속을 나란히 걸어가는 복재와 선희.

적십자병원

복재가 환자복차림의 경미를 등에 업고 구내공원속으로 걸어 온다. 《경미야.》
《예.》
《절대 어머니한테 걱정 끼칠 편지를 해서는 안된다. 어머니가 연구사업을 빨리 끝내야지?》
《알겠어요. 아저씨, 난 걷구 싶어요.》
《안돼.》
《아저씨가 부축해주세요.》
이때 구럭을 든 선희가 누구 면회를 오는지 병원앞으로 오다가 복재를 보고 걸음을 멈춘다.
경미가 복재의 잔등에서 내리고 있다.
그러더니 푸른견장을 자세히 보며 속삭이듯 경미가 묻는다.
《아저씨네 견장은 왜 푸른색이나요?》
《그것말이냐?》
복재는 뜻밖의 질문에 경미의 손을 꼭 그러쥐며 차근차근 말한다.
《너 역전에서 푸른신호등을 봤지?》
《예.》
《그 푸른색은 기차가 가두 안전하다는 신호야. 이 푸른 견장두 인민의 안전, 경미랑 이렇게 안전하게 데리고 다니라는거란다.》
여기로 선희가 다가온다. 《상위동지!》
복재 《아니? 대장동무가?…》
경미 《아지미!》
《경미야 다리는 일없니?》
의아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복재.
《경미를 어떻게 압니까?》
《사촌동생이 경미엄마의 조수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때 경미또래의 환자애들이 《경미야, 저기 가 놀자.》하며 달려 온다.
《아저씨, 저기 갈래요.》
《안돼.》
옆에 있던 애가 한마디한다.
《우리가 도와 줄래요.》
《그럼 애들아, 조심해야 한다.》
선희가 들고 온 구럭을 내민다.
《경미야, 동무들하구 같이 먹어라.》
경미를 부축하고 꽃밭속으로 걸어 가는 애들.
그애들은 저저마다 고운 꽃들을 골라 잡는다.
환자 ① 《경미야, 자!》
환자 ② 《경미야, 곱지. 저길 봐.》
이 광경을 공원의자에 나란히 앉아 바라보는 복재와 선희.
선희 《경미 어머닌 로력영웅이구 박사더군요.》
복재 《예? 뭐…뭐라구요?》
《왜 그렇게 놀랍니까?》
《이제 한 말이 사실입니까?》
《모릅니까?》

《예. 모릅니다.》
이때 경미가 꽃송이를 들고 한걸음 한걸음 다가온다.
《아저씨!》하고는 제일 고운 꽃송이를 복재에게 안겨 주는 경미.
《이 꽃은 아저씨거.》
《경미야, 고맙다.》
《이 꽃은 아지미거.》
《고맙다, 경미야.》
《야 이렇게 하구 사진을 찍으면 좋겠네.》
얼굴을 붉히는 선희.
《어마나, 애두 정말…》
《사진을 찍으면 안되는가요?》
《아니, 그런건 아니지만…》
부끄러워하는 선희.
꽃송이를 내려다보는 복재.
행복에 넘친 두사람의 얼굴에 《축복하노라》선률이 울리면서 결혼식장면이 펼쳐진다.

좋은때 좋은날 맺어진 사랑
한쌍의 꽃으로 활짝 피였네
축복하노라 그대들 새 가정
축복하노라 오늘의 이 행복

노래속에 결혼식을 축하하는 친척들과 푸른 견장을 단 보안원들의 얼굴이 흐른다.
박수를 치는 사람들.
분녀와 정치부장에게 술을 붓는 복재, 선희.
여기에 광수의 목소리가 설화로 울린다.
《나는 이때야 비로소 생활도 두줄기 궤도우를 달리는 렬차처럼 자기의 곬을 따라 흐른다는것을 깨달았다. …가장 깨끗한 사랑, 가장 아름다운 사랑에 바탕을 두고 나의 생각은 깊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얼마후 예상치 않았던 나의 경거망동한 행동으로 리복재동무를 크게 자극한 일이 빚어 졌다.
그때 그는 얼마나 분노에 떨었던가?》

고산지대
《붕—》렬차는 오늘도 혜산을 향해 달리고 있다. 승강대에서 광수가 지금 손님들의 증명서를 검열하고 있다.
《손님, 증명서를 좀 봅시다.》
이때 앞뒤로 배낭을 멘 연구사—윤옥이가 광수를 밀치며 지나간다.
《이건 뭐요? 아주머니… 거기 좀 서오.》
《미안합니다. 짐이 많다보니 그만, …정말 안됐습니다.》
《안됐다?!》
광수는 무섭게 윤옥을 쏘아본다.
흙 묻은 윤옥의 신발이며 앞뒤로 걸머진 배낭.
《장사질하러 다니면서 무슨 구실이요?》
《예? 장사질이라니요?》
윤옥은 배낭을 벗어 헤쳐 보인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큰 배낭을 앞뒤로 달구 다니면서 장사배낭이 아니란 말이요?》
광수가 당장 어쩔듯이 배낭앞으로 다가간다.
때마침 반대쪽에서 증명서검열을 하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는 복재.
광수《정말 문제야, 이런 장사군들때문에…》
광수의 발밑에 배낭이 그만 자빠져 있다.
승강대바닥에 흩어진 종자강냉이며 비닐에 싼 감자 몇알!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으며 울먹이는 연구사.
《대위동무, 너무하군요. 어쩌면 이럴수가 있습니까?》
《장사군이 무슨 푸념질이요. 예?》
《이건 연구소에 가져 가는 새 종자들이예요.》
《자! 하여간 안으로 들어 가오.》하고는 다음칸으로 가버리는 광수.
그를 원망어린 눈으로 한동안 지켜보던 윤옥이 인기척에 시선을 돌린다.
복재가 지금 쏟아진 종자강냉이를 한알 두알 주어 담고 있다. 그를 보는 순간 쏟아 지는 눈물을 걷잡지못하는 연구사. 《상위동지!》
복재《선생님, 용서하십시오. 저 친구가 선생님을 알아 보지 못하구 그만… 분원에 가십니까?》
《연구소에서 새로 육종한 종자를 요구해서…》
《예—자, 안으로 들어 갑시다.》
복재가 배낭을 들고 앞선다.

일반침대칸
윤옥이 앉은 좌석으로 렬차원이 들어선다.
《증명서검열이 있습니다. 다들 준비해주십시오.》
이윽고 광수가 나타나 《증명서를 봅시다.》하며 사람들을 둘러 보더니 다소 놀란다.
《아니? 저 아주머니가? 증명서…》
윤옥은 아무말없이 증명서를 준다. 증명서를 보며 깜짝 놀라는 광수.
거기엔 《박사, 로력영웅》이란 도장이 찍혔다.
차창밖으로 흘러 가는 고산지대의 산발.

렬차식당칸
차창곁에 생각깊이 앉아 있는 복재.
광수가 오더니 마주 앉는다.
《내 오늘 큰 실수를 했는데 …글쎄 영웅인 연구사를 몰라보구…》
들은듯 만듯 창밖만 바라보는 복재.
《복재, 무슨 일이 있었나?》
여전히 아무 응답없는 복재.
이윽고 복재의 날카로운 시선이 광수를 쳐다본다.
복재《영웅메달앞에서 영웅처럼 살겠노라 사진을 찍던 동무가 영웅을 모욕했구만.》
복재의 눈길을 피하는 광수.
《친구지간에 허물없이 말 좀 하자구. 언젠가 가방이 바뀌여 안타까와 하던 녀인이 바로 오늘 동무한테 모욕 당한 그 영웅이야.》
《?!》
《그가 다만 영웅이라구 해서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녀인으로 볼 때도 그렇지, 사람의 진속을 알아 보지도 않고 어찌면 그럴수 있나 말이야?》
어깨를 푹 떨구는 광수.
《연구사의 배낭을 들여다 봤을 때 과연 생각되는게 없던가? 오늘같이 어려운 때 제집 터밭농사가 아니라 온 나라 농사를 위해서 한두끼 감자로 때식을 에우며 그 큰 배낭을 등에 지고 다니는 그의 깨끗한 량심에 대해서 말이야.》
자책하는 광수.
《뭐? 그를 보구 장사군이라구? 그는 장사군이 아니라 영웅이야. 그러나 그는 그걸 언제 한번 내색한적두 없구 보수나 명예, 그 어떤 특전, 특혜도 바란적없는 그대로 소박하고 진실한 인민의 연구사야.…》
심중히 듣고 있는 광수.
《동문 오늘 그의 배낭이 아니라 연구사의 깨끗한 량심을 모독하고 짓뭉개버렸단말이야.…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인민을 위해 하는 일인데 왜 인민들은 푸른 견장을 단 우리를 멀리 하는가?… 그건 바로 동무 같은 사람들이 있기때문이야.》
《…》
《우리 푸른 견장을 달면서 약속했지? 두줄기궤도우에서 영원히 탈선하지 말자구…
이 궤도우에서 우리의 사명은 시작도 끝도 인민의 안전, 장군님의 안녕을 지키는거야.
푸른 견장이 그 생명력을 잃으면 쓸모 없어. 가라구, 당장 렬차를 떠나가란 말이야.》하고는 자리에서 일어 나 나간다.
자책에 잠겨 앉아 있는 광수. 여기에 노래가 울린다.

오늘은 어려워도 인민을 위해 살며
고난과 시련의 고비 웃으며 헤치리
혁명의 수뇌부 지키는 한길에
그날의 푸른 견장 값높이 추억하리
그날의 푸른 견장

노래속에 흘러가는 산발.
어느 렬차칸에서 복재를 보자 기뻐하는 할머니.
복재가 다음 렬차칸에 들어서니 웬 어린애가 《엉엉》울면서 잠든 어머니를 깨운다. 어린애에게 다가가 속삭이듯 묻는 복재.
《왜 그러니?》
《나 오줌 눌래요.》
《그래? 아저씨하구 같이 가자!… 옳지…》
어린애를 안고 조용히 승강대로 나가는 복재.
달리는 렬차 바퀴. 복재가 어느덧 아이를 안고와 어머니옆에 살며시 내려 놓는다.
《눈을 감으라요.》
얼른 눈을 감는 어린애.
노래가 계속 울린다.

애들의 새별 같은 귀여운 눈동자에
내 량심 비껴 있도록 그렇게 살리라
전사의 한마음 장군님 옹위할
그날의 푸른 견장 내 한생 빛내가리
그날의 푸른 견장

그 노래속에 렬차칸에서 경제선동을 하는 승차보안원들의 모습. 박수를 치는 승객들.
손님들에게 연설하는 복재. 바다기슭을 달리는 렬차.

피복공장 정문
근무를 마친 복재가 퇴근길에 선희를 찾아 왔다.
퇴근차림으로 정문을 나오는 처녀들.
처녀 ①《선희동무, 빨리 가자요.》
이윽고 정문을 달려 나오던 선희가 복재를 먼저 보고 반긴다.
《언제 왔어요?》
《좀전에.》
《그래요.》
《가기요.》
선희를 이끌고 공원쪽으로 가는 복재.

공원
의자에 나란히 앉아 속삭이듯 말하는 복재와 선희.
《이번에두 경미어머니를 렬차에서 만났댔어, 당신 얘길 많이 하더구만.》
《그래요.》
이때 그들앞으로 한 녀인이 유모차를 밀고 간다.
《가자요. 현주, 떨어 지겠어요.》
유모차안에서 발버둥치는 어린애.
선희가 그애를 애무한다.
《아이참, 귀엽네. 아들인가요?》
《딸이예요.》
멀어지는 유모차를 한동안 지켜보는 선희.
《애가 참 복스럽게 생겼군요.》
《부럽소?》
《부럽지않구요.》
《딸이나 가지구 뭘…》
《딸이 어째서요?》
복재가 머리를 흔든다.
《아니, 난 아들을 바라오. 이 푸른견장의 뒤를

이을수 있는… 아들, 자신있지? 가능하면 쌍둥이나 삼태자면 더 좋겠는데…》
《아이, 정신 나갔어요?》
선희가 부끄러운듯 어데론가 뛰여간다.
달려 가는 두사람의 행복한 모습.
《선희, 왜 그래?…섯!》
《호호…》
두사람은 즐겁게 웃으며 나무에 기댄다.
복재 《좋아, 그 문젠 전적으로 당신에게 맡기겠어.》
《좋아요. 가자요.》
저녁노을을 받으며 나란히 걷고 있는 두사람.

평양승차보안서장 방

정치부장과 보안서장이 마주앉았다.
《부장동무, 광수동무의 소환장이 내려 왔는데 차를 태우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번 태웁시다. 본인의 요구도 그렇습니다.》
《그리구 광수동무네 조장으로 복재동무를 임명하는게 어떻습니까?》
《전 반대없습니다.》
《예.》
벽에 걸린 철도연선략도.

복재네 집안

거울앞에서 출근준비를 하고 있는 복재.
《모자!》
《네, 자 쓰세요.》 선희가 모자를 씌워주자 익살조로 거수경례를 하는 복재.
《중대장동지, 상위 리복재 승차근무를 떠나겠습니다.》
함께 익살을 부리는 선희. 《상위동무! 모자를 바로 쓰세요. 채양위치는 자! 이렇게… 보세요. 좋지요.》
《좋구만. 하하.》
복재가 아래방으로 내려오더니 선희를 부른다.
《선희, 여기 좀…》
《왜요?》
《이제 말이요?》 가까이 다가오자 선희의 볼에 제꺽 입을 맞추는 복재.
《정신 나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전실

분녀가 아들, 며느리구두를 닦으며 웃고 있다.
이윽고 출근차림을 하고 나오는 선희, 복재. 그들에게 신발을 놓아주는 분녀. 《자.》
《어머니두 참, 갔다오겠어요.》
《어서 가거라.》

아빠트 현관앞

마당을 나서는 복재와 선희.
《여보, 경미가 다 나아서 펄펄 뛰여다닌다는데 이번 근무를 끝마치고 함께 가보기요. 공장일이 바쁘더라도 준비를 잘해 놓소.》
《알겠어요.》
선희가 복재의 팔을 그냥 잡고 걷는다.
《자, 이젠 놓고 가보오.》
《헤여지기 싫군요.》
《남들이 보겠소.》
《볼테면 보라지요 뭐.》
서로 헤여지던 선희가 《여보, 기타.》하며 복재에게 다가와 기타를 메워 준다.
《어머니가 보고 있소.》
베란다에서 그들의 모습을 정찬 눈길로 내려다보는 어머니.
《난 가겠소.》
《여보, 잘 다녀오세요.》
복재와 선희가 손을 흔들며 헤여진다.
선희가 오래도록 복재를 바라본다.
여기에 광수의 설화가 다시 울린다.
《참으로 평범한 헤여짐이였다. 생활의 행복을 한껏 느끼는 이들로서는 류다른 약속도 없었다.》

신포시 어느 바다기슭

옥금이가 웬 사나이와 백사장을 걸어 오고 있다.
《약속대로 오셨군요.》
《예, 평양려행을 함께 하고 싶어서…》
《걱정 마세요. 다 조직사업을 해놨으니…》
그들은 다박솔 우거진 어느 의자에 가앉는다.
《그러니까 옥금동무를 따라 렬차에 오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이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 떠나는건 어느 차루?》
《오늘 10렬차루…》
《좋습니다. 출장준비하는데 쓰십시오.》
봉투속의 딸라를 보자 대뜸 얼굴이 밝아지는 옥금. 《아?!… 이거…》
《평양회사들과 련계만되면 옥금동무두 단단히 덕을 보게 될것입니다.》
백사장으로 밀려 오는 잔파도.

혜산 분원시험포전

온실에서 새 종자를 보고 있는 연구사 윤옥. 여기로 분석실처녀가 뛰여든다.
《연구사동지,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허둥지둥 밖으로 달려나가는 윤옥.
분석공처녀 ①이 분석표를 내보인다.
《이번엔 성공한것 같습니다.》
《어디 좀…》
여러 처녀들이 함께 지켜본다.
《축하합니다. 선생님.》

《아니, 아직 축하 받긴 일러요.》

혜산역전려관

광수와 복재가 려관에서 나오고 있다.
여느때 없이 친근하게 말하는 복재.
《광수동무의 마지막승차길이라…》
《정작 떠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썰렁하구만.》
《그럴테지.… 전번에 내가 광수한테 지내 했지? 연구사선생을 모욕했다구…》
그 말이 광수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
《사람두 원, 난 그때 한 복재의 말을 평생 잊지 않겠네. 어데 가선들… 정말이야.》
《그래?! 정말 고맙네. 참 오늘 그 연구사가 새 론문을 완성해 가지고 평양에 올라 가네. 만나게 될거야.》
《그럼 내 머리 숙여 사죄하지.》
《그게 좋겠네. 마지막승차마무리를 깨끗하게 하는 의미에서두… 허허…》

신포시 공중전화소

낯 익은 소좌가 전화를 하고 있다.
《2번동지, 우리가 찾던 미지의 인물이 신포에 나타났다는 통보입니다. 해당 기관에 알아본데 의하면 량강도에 있는 신흥회사와 련계가 있는 잡니다.》
전화기에서 울리는 소리.
《알겠소. 다음행동으로 넘어 가시오.》
《알았습니다.》
어데선가 기적소리가 들려 온다.

렬차식당칸

렬차원처녀가 연구사를 어느 한 식탁에 안내한다.
《자! 어서요.》
《아니? 여긴.》
식탁에 잘 차린 음식이 놓여 있다.
《여기 앉으십시오.》
《아니, 이건?!…》
《이건 리복재상위동지가 차린겁니다. 연구사선생님과 오늘 점심식사를 같이 하겠다면서.》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위동지께 알리겠습니다.》
깊은 감동속에 식탁을 내려다보는 윤옥. 이윽고 복재와 광수가 여기로 들어 선다.
복재 《오셨구만요.》
《아니, 상위동지.》
《선생님, 이 친구가 생각납니까?》
《예 생각납니다.》
광수 《선생님, 이 미련한 놈을 용서하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하두 복잡한데서 질서를 잡다나면 간혹…》
복재 《자! 앉읍시다. 어서…》
식탁에 앉는 세사람.
복재 《선생님, 달리 생각 마십시오. 연구과제를 완성하느라 얼마나… 선생님의 흙 묻은 신발이며 색날은 배낭 그리고 언제한번 때식도 제대로 못하면서 먼 산간벽지의 포전들을 돌아다니던 그 모습이 잊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심이라두 같이 나누자구 이렇게…》
《별 그러십니까? 너나없이 〈고난의 행군〉을 이겨 나가는 때가 아닙니까?》
접대원처녀가 과일물을 가져 온다.
《상위동지, 가져왔습니다.》
《오, 수고했소.》
광수가 과일물을 고뿌에 붓는다.
《선생님, 노여움을 삭여 주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군요.》
복재 《선생님, 이 친구는 상급기관에 소환되여 가게 됩니다. 결국 이번 승차근무가 마지막승차길인 셈이지요. 하하…》
《그래요?!… 대위동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복재 《선생님, 오늘은 기분이 참 좋겠습니다. 론문이 완성되였으니 말입니다. 도착하면 함께 가서 경미를 퇴원시킵시다. 얼마나 좋아 하겠습니까?》
《상위동지, 제 경미편지를 통해서 다 압니다. 친혈육도 아닌 그 애를 그토록… 상위동지는 정말 드물게 보는 사람입니다.》
복재는 인제야 생각난듯 하모니카를 꺼낸다.
《참, 이건 경미에게 줄려고 준비한건데 마음에 들겠는지.》
복재가 하모니카를 입에 물려다 그만 둔다.
그 모습에 웃음을 짓는 연구사.
복재 《선생님이 웃는걸 보니 연구성과가 대단한 모양입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꼭 성공할겁니다. 연구사업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성공의 날엔 남 다른 긍지와 기쁨을 안게 되는게 우리 연구사들이랍니다.》
《그래요?!》
즐겁게 웃는 세사람.

신포역

《혜산—평양》행 렬차가 《붕—》 떠날 신호를 보낸다.
어느 한 승강대앞으로 달려가는 옥금.
《전무동무.》
《아 왔구만요.》
《약속대로 오늘 갑니다. 그런데 나 말구 한사람 또 있는데 좀 잘 봐달라요.》
《하여간 오르십시오.》
렬차가 어느덧 서서히 떠난다.
이때 역구내길에 달려 와 급정거하는 승용차.

소좌가 《세우시오.》하며 차에서 급히 내려선다.
렬차가 떠나자 다시 차에 오르는 소좌.
《자! 빨리!》

렬차 승강대

전무가 광수를 만나고 있다.
《광수동무, 옥금아주머니가 증명서두 없는 사람을 평양까지 같이 가자구 왔는데 어떻게 할가?》
《증명서 없는 사람?… 안되지 뭐.…》
《안되지?》
《그럼.》

렬차칸

복재가 증명서확인을 하고있다.
《증명서 봅시다.》
이때 여기로 들어서던 옥금이가 복재와 맞다들게 되자 불안해한다. 《아이구…》
《아니, 인수원아주머니군요.》
억지로 웃음을 짓는 옥금.
《안녕하셨어요. 상위동지.》
《어데 가십니까?》
《나야 또 평양엘 가지요 뭐. 기업소에선 날 그저 평양주재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그 말은 들은둥 만둥… 《증명서 봅시다.》
《나야 이 차 고정손님인데…》
《그래두 매번 봐야 합니다.》
하는수 없이 증명서를 꺼내는 옥금.
복재 《기일이 지났군요.》
《아이 어찌겠어요. 나야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안됩니다. 이 증명서로는 평양에 들어 못 갑니다.》
《예? 야 사정 좀 봐 달라요. 빤히 알면서…》
《그렇게 못합니다.》
복재는 증명서를 쥔채 돌아선다.

단속칸

복재가 옥금이를 데리고 조서를 받는다.
《조서에 수표하구 다음역에서 내리십시오.》
《내가 전무동무와 조장동무를 만나겠어요.》
《두말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 누구도 승인 못합니다.》
복재가 단호히 거절하자 가방에서 담배곽을 꺼내드는 옥금.
《달리 생각말고 받으세요.》
《아주머니! 누굴 우롱하는거요. 당장 거둬 넣으시오.》

렬차승강대

사나이가 지금 승강대구석에서 단속칸쪽을 눈여겨 살피고 있다.
신포인민보안서 소좌를 단속칸으로 데리고가는 광수.
《여깁니다.》
이들을 눈여겨 주시하는 사나이.

단속칸

옥금이가 앉아있는속에 신포소좌와 복재가 악수를 한다.
소좌《우린 구면이요. 언젠가 우리 보안서에 걸어준 전화도 내가 받았소.》
《그렇습니까?》
광수가 복재를 나오라고 눈짓한다.
《복재동무.》 소좌가 옥금이를 따지고든다.
《내 묻는 말에 솔직히 대답하는게 좋소. 같이 렬차에 오른 사나이가 어데 있소?》
《예?! 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차옥금은 이것이 마지막기회라는걸 알아야 할텐데…》
겁에 질린 옥금의 눈길.

승차보안원칸

광수가 승차조원들을 둘러본다.
《동무들, 긴급수사가 포치됐소. 신포에서 정체불명의 대상자가 렬차에 올랐소.》
긴장해서 듣고있는 승차보안원들.
《강조하건대 우리 렬차는 평양으로 가고 있다는걸 잊지 말아야 하오. 때문에 이시각부터 긴장한 전투를 벌려야 하오. 알겠소?》
《알았습니다.》
힘차게 대답하는 조원들.

단속칸

소좌를 쳐다보며 기겁하는 옥금. 《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데 의하면 회사관계자의 너울을 쓴 이놈은 3국을 통해서 기여든 침입간첩이라는것이 확정되고 있소. 이자의 목적은 수도 평양에 침투하자는거요.》
옥금 《몰랐습니다. 전 그저 평양까지 데려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돈에 환장하여 원쑤를 돕다니…흐흑…》
《그래? 어떻게 하겠는가?》
《소좌동지가 시키는대로 하겠습니다.》
《좋소. 그놈의 얼굴을 아는건 이 렬차칸에 동무밖에 없소. 만나기로 한 위치는?…》
《두번째 차칸 승강대입니다.》
《알겠소. 그놈을 절대 놀래우지 말구 이렇게 하기요.》
어둠속을 쏜살같이 달리는 렬차.

렬차승강대

옥금이가 지금 사나이를 기다리고 있다. 지척에서는 승차보안원 소위가 승강대쪽을 살피고…
이윽고 보이라칸에서 사나이가 조심히 나온다.
긴장해서 서 있는 옥금에게 사나이가 다가선다.
《옥금동무.》

와뜰 놀라는 옥금.
사나이가 모르는척 한다. 《어떻게 됐소?》
《차표를 받았습니다.》
《보기요.》
침대표를 보이는 옥금.
《상급침대 하단이예요. 갑시다.》
《가야지, 자! 앞서오.》
사나이는 뒤따르는척하더니 불의에 옥금의 입을 막고 보이라칸으로 끌고 간다.
불꽃을 튕기며 달리는 렬차바퀴.

보이라칸

사나이가 옥금이 목을 조인다.
《사실대로 말해. 이자 소좌가 뭐랬어?》
《으악…》하며 사나이의 손을 무는 옥금.

승강대

소좌와 소위가 옥금을 찾는다.
소좌 《어데 있소?》
《방금 여기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다음칸으로 달려 가는 소좌, 소위.

보이라칸

옥금이가 맥을 놓고 쓰러지자 문짬으로 차칸을 내다보는 사나이. 살며시 보이라칸을 나서며 차안을 살피는 사나이. 광수가 증명서검열을 하며 오고 있다.
광수의 목소리. 《어데로 가십니까?》
《군인건설자들에게 원호물자를 가지고 갑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번엔 반대쪽을 살피는 사나이. 달리는 렬차바퀴.

승강대

광수가 승강대문을 살핀다.
《렬차원동무, 이 문을 왜 걸지 않았소?》
《아까 걸었댔는데요.》
광수가 승강대문을 열고 어둠속을 여기저기 살핀다.
《렬차원동무, 단단히 잡그오.》
《예.》하며 문을 거는 렬차원. 광수가 자리를 뜨면서 보이라칸을 유심히 본다. 흔들거리는 보이라칸문. 다급히 열어 보니 옥금이가 쓰러져있다.
《아니? 렬차원동무, 빨리!》
옥금을 안고 렬차칸으로 들어가는 광수, 렬차원.
렬차는 《붕―》 어둠속을 그냥 달리고 있다.

승강대

려객전무가 사나이와 마주 섰다.
《증명서를 좀 봅시다.》
《볼테면 보오.》
사나이는 증명서대신 칼날을 빼든다. 겁에 질려 뒤걸음치는 전무. 사나이가 위협한다.
《나와 차옥금을 이 렬차에 태운건 당신이요. 내가 잡히면 당신도 무사치 못할줄 아오. 날 보호해 주겠소?》
《네놈이 감히.…》
이시각 옆칸에서는 지금 복재가 증명서를 검열하며 오고 있다.
《증명서 봅시다.》
증명서를 보고 돌려주는 복재. 《됐습니다.》
이윽고 승강대로 나와보니 전무가 사나이와 마주서 있다. 그앞을 지나오다가 다시 돌아서 보는 복재. 이상한 려객전무의 시선.
례사롭게 묻는 복재. 《손님, 증명서를 봅시다.》
전무를 쳐다볼뿐 아무 응답없는 사나이.
《증명서가 없소?》
《예, 있습니다.》
사나이는 그제야 안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이때 《복재동무!》하고 소리치는 전무. 사나이가 어느새 전무를 강타하며 수류탄을 쳐든다. 재빨리 권총을 뽑아드는 리복재. 사나이가 수류탄을 든채 렬차안으로 뛰여든다.
복재 《서라! 쏜다!》
너무도 놀라운 광경앞에 어쩔바를 모르는 승객들.
남승객① 《수류탄이다.》
녀승객① 《어마나?!》
권총을 뽑아든 복재가 사나이를 쏘아보며 승객들에게 말한다.
《가만! 여러분! 덤비지 말고 그놈옆에서 물러 나십시오. 저기 동무, 이쪽 아주머니두…》
사나이가 수류탄을 쳐든채 뒤걸음친다. 한발두발 따라가는 복재.
사나이가 우뚝 서더니 소리친다.
《다가서지 말라!》
순간 복재의 눈에 안겨 오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
더는 지체할수 없는 순간 복재는 우정 《광수동무!》하고 찾는듯이 소리친다.
순간 수류탄고리를 입으로 와락 뽑는 사나이.
더는 생각할새 없이 사나이를 향해 몸을 날리는 복재.
《엎디라!》
그 소리가 잔향되는속에 사나이를 덮치며 렬차바닥에 엎디는 복재.
순간 수류탄이 작렬한다. 《쾅!》
연기속에 묻히는 복재.
렬차는 그냥 어둠속을 달리고 있다.
승객들과 보안원들이 복재를 둘러싸고 흐느낀

다.
녀인 《아저씨!》
남자승객 《상위동무!》
《복재!… 복재! 정신 차리라. 나 광수야, 광수란 말이야.》
이때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서는 연구사.
《상위동지! 이게 웬일입니까? 예?》
여전히 대답없는 복재. 연구사가 흐느낀다.
《상위동지, 눈을 좀 뜨세요. 나 경미엄마예요. …상위동지, 대답 좀 하세요. 예? 상위동지…》
광수 《복재!…》
그의 얼굴이 정지되며 주제가 음악이 울린다.
두줄기의 철길로 쏜살같이 달리는 렬차.
어느덧 평양역구내에 들어서는 렬차.

평양역의 탑시계가 유표하게 안겨 온다.

평양역구내

멎어선 렬차에서 담가가 내린다. 그 담가우에 푸른 견장을 달고 누워 있는 복재의 얼굴. 담가를 따라 정치부장, 분녀, 선희가 내린다.
복재의 모자를 꼭 그러안고 뒤따르는 선희.
여기에 노래가 울린다.

먼 후날 나에게도 애들이 자라나
아버지 청춘시절 물을 때 있으리
그러면 인민의 안녕을 지켜 싸운
그날의 푸른견장 떳떳이 보여 주리
그날의 푸른 견장

노래속에 담가에 누워가는 복재. 거리를 지나가는 야영생들. 담가에 누워 가는 복재. 회전말을 타고 웃는 아이들.
복재와 영결하는 인민보안원들. 복재를 싣고 떠나는 구급차. 아득히 멀어진다.

리복재고등중학교 마당

제막포가 벗겨지며 리복재의 반신상이 나타난다.
거기에 씌여진 글. 《공화국영웅 리복재.》
반신상앞으로 생화를 든 소년단원들이 오른다. 그들속에 보이는 경미. 소년단원들이 리복재의 반신상을 바라보며 맹세를 다진다.
《아저씨, 저희들도 아저씨처럼 살겠습니다.》
반신상을 바라보는 정치부장. 그옆에 서있는 분녀.
《복재야, 넌 죽지 않았다.》
선희가 인민보안원복을 입고 서있다.
《여보, 당신이 섰던 초소에 오늘은 제가 섰어요.》
반신상을 바라보는 수많은 인민보안원들. 그들속에 보이는 광수의 얼굴. 여기에 그의 목소리가 설화로 울린다.
《공화국영웅 리복재동무는 비록 우리곁을 떠나갔으나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오늘도 영생의 삶을 빛내이고 있다.》
렬차가 두줄기 궤도를 따라 달린다. 계속되는 광수의 목소리.
《그는 나를 두줄기궤도우에 다시 세워 준 잊을수 없는 혁명동지이며 벗이다. 오늘도 그는 나에게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장군님의 참된 전사, 인민의 참된 훌륭한 아들이 될수있다고 조용히 일깨워주며 충성의 한길을 함께 가고있다.》
렬차는 저멀리 노을속으로 달려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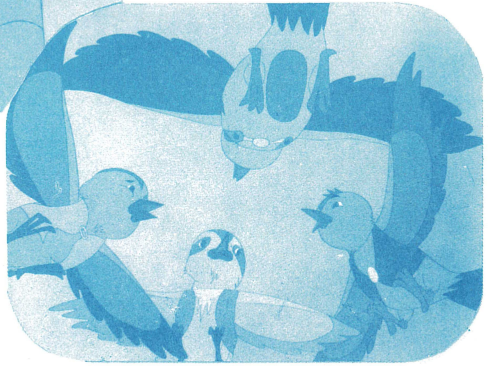
끝

조선예술 주체90(2001)년 제3호(루계 531)
편 집 위 원 회
낸 곳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주체90(2001)년 3월 3일
발 행 주체90(2001)년 3월 5일
ㄱ—16031 값 1원 20전



아동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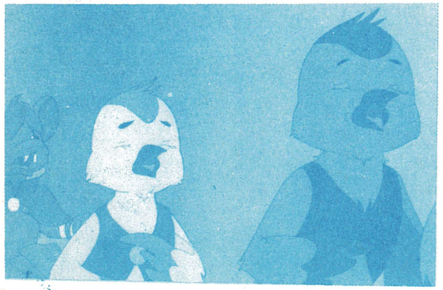
박쥐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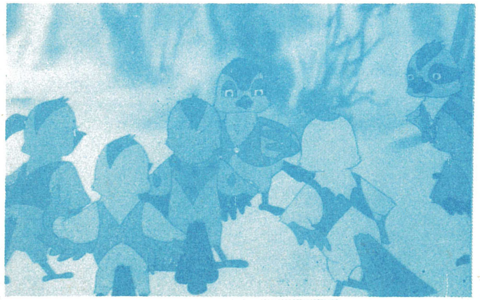
창조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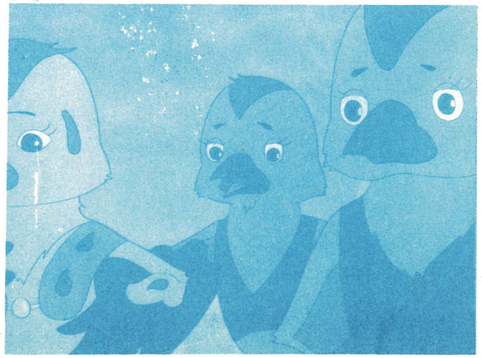
영화문학 김수화
연 출 김영철
촬 영 강성락
미 술 리문철, 강성민, 백만식
작 곡 백인선

영화는 새 동산에서 살던 박쥐가 난관을 이겨 내지 못하고 동요하면서 도적들인 쥐편에도 가붙고 새편에도 붙었다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의리를 저버리고 동무들을 배반하면 망하게 된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





정기간행물번호
제 1 36 20 호

문학예술종합출판사